

이재운
이민법 변호사
저의 케이스를
진행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703.916.1111 / 703.916.1215

경쟁력 있는 이자율
호프 프리퍼드
정기예금 (CD)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십시오.
Bank of Hope

중일일보

“최고”
가장 많은 이들의 선택
배준원 용자
NMLS# 178471
703-868-7147

유 파이낸셜 그룹
메디케어
703-961-8811

대표전화: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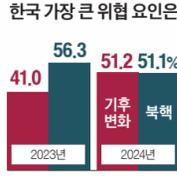
COPY RIGHT 2024 제 691145호

Tuesday, October 8, 2024 A

대한민국 안보, 국민에 묻다



한국 안보의 가장 큰 위협 북핵만큼 기후변화 꼽아



본지·EAI 공동 여론조사

올여름 기록적인 폭염 등 갈수록 빈도가 잦아지는 이상기후가 한국인의 안보 위협 인식까지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 변화를 최대 위협으로 보는 인식이 북핵 위협 인식과 사실상 비슷해졌다.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의 공동 기획 여론조사 결과다. 특히 젊은 세대일수록 기후 변화를 더 큰 위협으로 받아들이었다.

7일 여론조사(8월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 대상 웹조사, 최대 허용 표집 오차 95%신뢰수준에 ±3.1%) 결과에 따르면 '한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협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복수 응답, 1~2순위 종합)는 질문에 응답자의 51.2%가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라고 답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라는 응답은 51.1%였다. 미·중 전략 경쟁과 갈등(42.5%), 보호무역 확산 및 첨단 기술 경쟁(39.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여론조사(2023년 8월 25일~9월 13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8명 대상 심층 대면 면접조사)에선 같은 질문에 56.3%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가장 큰 당면 위협으로 꼽았다. 다음으로는 55.0%가 보호무역 확산 및 첨단기술 경쟁을 꼽았고, 기후 변화와 환경 문제

를 위협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41.0%였다. 1년 사이 순위가 역전된 것이다.

이는 그간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보건, 기후 등 이른바 '연성 안보'(soft security) 분야의 위협에 대한 경각심이 과거 전통적으로 중시돼 온 군사 등 '경성 안보'(hard security) 분야의 위협성에 비견할 정도로 커졌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고 EAI는 분석했다. 특히 이번 조사가 이뤄진 기간에 역대급 폭염이 이어진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한국인에게 북핵 위협이 상수가 된 측면이 있다는 뜻일 수 있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 2면 '안보위협'으로 이어집니다

'극과 극 이민정책' ... 한인들 선택은?

SPECIAL STORY

오는 11월 대선 후보들이 이민 정책에 대해 가장 극명하게 다른 공약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과연 한인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인들은 다른 어느 이민자 커뮤니티와 같이 이민문호를 더욱 확대하는 후보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최근에는 역풍도 만만찮다.

이민업무를 주로 하는 한인 변호사 A씨는 "10여년 전만 해도 한인 대부분이 가족 중 누군가는 영주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민 문제가 곧 내 가족의 문제였기에 이민문호를 확대하자는 후보를 지지해 왔으나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고 전했다.

2010년 이후 한국에서 더 이상 대규모 이민유입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국의 경제력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이 급속히 높아지면서 가족 초청 이민 뿐만 아니라 취업이민 흐름도 단절된 것이다.

A씨는 "그나마 결혼이민이 어느정도 유지되고 있으나 이들은 가족 초청이민과 취업이민에 비해 영주권 받기가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대선후보의 이민공약과 무관하다"고 전했다.

워싱턴 지역에도 전체 한인의 5~10%로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들이 있지만, 사면을 거론했던 역대정권도 모두 실패한 만큼 이민공약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진 상태다.

한인 B씨는 "가족 중에 영

주권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은 없다"면서 "히스패닉 불체자 문제가 더욱 심각해 보여, 차라리 이들을 추방하겠다는 후보에게 한표를 던지겠다"고 말했다.

한인 C씨는 "요즘 한국에서 이민오는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반갑지 않다"면서 "누구를 찍을지 고민할때 이민 정책은 아예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및 합법 이민 모두를 줄이 고자 하고 있다. 김옥채 기자 >> 5면 '이민정책'으로 이어집니다

내년부터 IRS 무료 세금보고 확대

다이렉트 파일 12~24개주로
올해 납세자 14만 명이 이용

국제청(IRS)이 내년부터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인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 지역을 확대한다.

IRS는 최근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 지역을 현행 12개 주에서 24개 주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가주, 뉴욕, 네바다, 매사추세츠, 애리조나, 텍사스 등을 포함해 알래스카, 뉴저지, 오리건, 펜실베이

니아, 메릴랜드 등의 납세자도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게 됐다.

다이렉트 파일은 연방과 각 주의 세금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IRS 자체 서비스다. 이용 가능 대상은 임금 소득, 소셜 연금, 실업수당, 1500달러 미만의 이자 소득 보고자다. 내년부터는 1500달러 이상의 이자 소득이나 은퇴계좌를 통해 수익을 보고하는 납세자로 혜택이 더 넓어진다. IRS는 2025년 세금보고 때는 24개 주에서 3000만 명

이상 납세자가 다이렉트 파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올 세금보고 시즌에는 다이렉트 파일을 통해서 14만명의 납세자가 9000만 달러 이상의 환급을 청구하고 세금보고 비용으로 560만 달러를 절약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처음 시범적으로 운영된 다이렉트 파일은 납세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런 호응에 힘입어 IRS는 지난 5월 다이렉트 파일이 장기적으로는 50개 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하 바 있다.

조원희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301-279-6960
원장 Dr. 김홍국, D.C.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야기 플랜지 팔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종업원 상해보험 보험료의 10%를 돌려 드립니다

보험료 10% Return 프로모션

- Audit 완료 9개월 후에 보험료의 10% 지급
- Audit 및 할인된 보험료 기준:
\$1,000 이상만 해당



703.639.0882



10% Flat Dividend

* The 10% Flat Dividend is offered by AmTrust Financial.



SCAN ME

견적문의는 휴대폰으로
왼쪽 QR코드를 스캔하셔서
보내주시면 신속한 견적이 가능합니다.

VA Office

7535 Little River Turnpike,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MD Office

1404 N Rolling Road, Catonsville, MD 21228 (구. 소망치과 위치)

SMART.SOLOMONUS.COM

트럼프 포비아에 ... “미국 핵우산 불충분” 26→47% 급증

대한민국 안보, 국민에 물다

트럼프 ‘동맹경시 기조’ 학습효과
재선면 확장억제 약속 깨질 것 우려
미 정계 북 비핵화 조정 기류도 영향

한-미 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됐다는 정부 평가와는 달리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에 부족하다는 국민 불신이 불과 1년 사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11월 5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기존의 확장억제 관련 약속을 되돌릴 수 있다는 ‘트럼프 포비아’가 수치로 확인된 셈이다. 중앙일보와 EAI는 지난해와 올해 공동 기획 여론조사에서 공통으로 확장억제와 관련한 질문



을 던졌다. 올해 조사에서 응답자의 47.4%는 “북핵 위협 대응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핵우산)로 충분하다는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동의한다”(41.2%)보다 6.2%p 높았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한-미 양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2023년 4월)에 대해 설명한 뒤 ‘워싱턴 선언이 한국의 안보 우려를 해소하기에 충분하다는 평가에 동의하느냐’고 물었는데 응답자의 57.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26.2%에 그쳤다. 특히 이런 결과는 한-미 정상이 지난 7월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서명하고, 미국 핵전력이 한반도에 상시 배치되는 수준으로 전략자산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키로 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이런 모순된 현상의 배경에는 트럼프가 재임 시 보였던 동맹 경시 기조에 따른 ‘학습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해 최근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조정하는 듯한 기류가 감지되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지난 7-8월 발표된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강서 한반도 비핵화 관련 문구는 빠졌다. 여론의 비관적 전망과 달리 전문가들의 확장억제에 대한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이었다. 학자, 전현직 관료, 언론인 등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별도 조사한 결과 “북핵 대응은 미국이 제공하는 핵 확장억제(핵우산)로 충분하다”는 응답은 61.7%였다. 전문가 집단에선 한-미 동맹의 공고함이 ‘트럼프 변수’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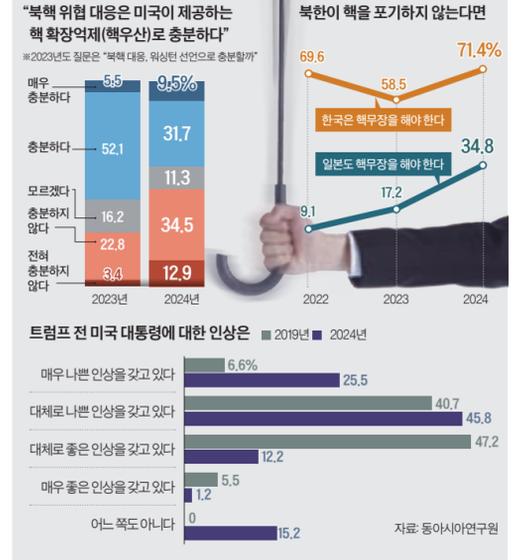


“한국 자체 핵무장해야” 59→71%, “일본의 핵무장도 찬성”

이번 공동 기획 여론조사 결과 일반 국민의 열에 일곱은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일본의 핵무장에 찬성하는 여론까지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1.4%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전에도 핵무장 지지 여론은 과반이었지만, 추세에 변화가 있었다. 핵무장 찬성 응답은 2022년에 69.6%였다가 지난해 한-미 양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나오면서 58.5%로 꺾였다. 하지만 올해 다시 2년 전 수준으로 반등한 것이다. 주목되는 건 일본의 핵무장을 지지하는 여론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2022년 9.1%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7.2%로 뛰었다. 이어 올해는 34.8%까지 올랐다.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이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경계하는 일반적 인식과는 배치되는 결과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2%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전망하면서도 82.9%가 여전히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불안과 불신 속에서도 비핵화 목표는 흔들림 없이 추구해야 한다는 인식이 결국 한-일이 손잡고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진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실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일 안보 협력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72%, 올해 70.8%로 줄곧 70%대를 웃돌았다. 안보 협력의 수위와 관련해 올해 응답자의 35.6%는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21.6%는 “정

보 공유뿐 아니라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응답자의 13.6%는 “한-일 군사동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도 답했다. 물론 이와 관련해서 응답자들이 한-일 군사동맹의 현실성과 파급 효과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못한 채 찬성 응답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중앙일보와 EAI는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도 웹 조사를 했는데, 한-일 간 동맹 검토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1.0%뿐이었다. 한국의 핵무장을 지지한다는 응답도 19.6%에 그쳤다. 핵무장 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의 훼손은 불가피하고, 비확산 규범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돼 이란이나 북한이 받고 있는 국제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등 이익보다 손실이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 1번 ‘안보위협’에서 이어집니다
세대별로 위협 인식이 다르게 나타난 점도 주목할 만하다. 고령층일수록 북핵 문제, 젊은 연령일수록 기후 문제를 더 심각하게 여기는 경향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60대에서는 가장 많은 56.3%, 70세 이상에서는 71.6%가 북핵을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기후-환경 문제를 택한 비율은 60대 44.8%, 70대 17.7%에 그쳤다. 반면에 30대에서는 가장 많은 52.3%(북핵 위협 43.6%), 40대

에서는 58.2%(북핵 위협 43.9%)가 기후 변화를 가장 큰 위협으로 꼽았다. 손열 원장은 “미래 세대가 새롭게 떠오르는 비(非)전통 안보 이슈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점이 수치로 드러났다”며 “정치권 등에서 여전히 전통 안보 이슈만 중시할 뿐 이런 우려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기후-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이 큰 폭으로 증가했지만, 정책을 통해 이에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인식을 드러냈다. ‘정부의 최우선 외교 지향점이 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가장 많은 34.5%가 “안보와 평화 추구”라고 답했다. “기후 변화-환경 대응”을 꼽은 응답자는 13.5%에 그쳤다. 여기에 기후 변화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는 정부가 독자적으로 해결하기엔 역부족이란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중국 사이 심각한 갈등

이 발생할 경우, 한국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1.6%로 “중국을 지지한다”(2.9%)보다 14배 이상 높았다. 그러면서도 가장 많은 46.8%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하는 대만해협을 둘러싼 갈등 상황과 관련한 답변도 눈길을 끈다. “대만해협에서 긴장 고조 시 미국과의 공동 대응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54.1%로 절반을

넘었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 수위와 관련해서선 고민도 드러났다.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경우 한국은 최대 어떤 대응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가장 많은 44.2%가 “인도적 지원”이라고 답했다. 동시에 탄약-무기 지원(15.6%), 비전투 병력 파병(12.2%), 전투병 파병(5.9%) 등 군사적 지원을 지지하는 응답도 총 33.7%였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워싱턴 날씨 (°F)

9일(수)	73~49	12일(토)	80~56
10일(목)	66~43	13일(일)	75~60
11일(금)	70~48	14일(월)	65~45

10월 8일(화) 70~49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RE/MAX EXECUTIVES

싱글홈 지하 렌트 월아웃 \$2,100

BURK타운홈 3층 END UNIT

특별 \$660,0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사원, 드라이어

SOLD

인터넷 마케팅은 인텔리시스템에서

기억 못하는 광고에 얼마를 쓰시겠어요?

YouTube

스몰 비즈니스, 유튜브 광고가 압도적인 5가지 이유

1. 건너뛰면 광고비 없다
2. 건너뛰어도 고객이 기억한다
3. 원하는 지역에서만 광고한다
4. 사업체를 눈부시게 차별화한다
5. 하루에 커피 한잔 값이면 한다

지금 전화주세요!
내 사업체의 미래를 바꾸세요~

703-337-0123

www.Intelisisystems.com

아마존 스토어 마케팅 | 구글 스마트 쇼핑 | 구글광고 & SEO

온라인 리뷰관리 | 문자마케팅 | 유튜브광고 | 소셜미디어 | 웹사이트 제작 | 온라인 쇼핑물 | 이메일 마케팅

이민·경제 이슈 격돌... VA 토론회 '난타전'

(연방상원의원)

VA연방상원후보 토론회 지상중계

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 선거 출마 후보들이 토론회를 통해 이민과 경제 이슈에 대해 전혀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버지니아 노퍽 스테이트 대학에서 지난 2일 치뤄진 후보 토론회에서 헝 카우(공화·사진 오른쪽) 후보는 "버지니아 경제는 늘 같은 방식으로 어려웠는데, 현재 항만노동조합이 전면적인 파업에 들어가는 이유이기도 하다"면서 "우리가 가장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4년 전보다 형편이 더 좋아진 사람들은 불법체류자와 범죄자 그리고 팀 케인(민주·왼쪽) 연방상원의원 뿐"이라고 공격했다.

카우 후보는 "미국은 불법체류자를 먹이고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매일 수십억 달러의 예산을 평평 낭비하는 미친 짓을 수년째 이어오고 있다"면서



공화 카우 후보 "불체자 위해 수십억불 평평 낭비... 중산층은 경제 고통" 민주 케인 후보 "버지니아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주, 발전 이어질 것"

"이러한 돈은 버지니아의 평범한 근로자 가족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이 허리케인 헬린으로 수십억 명이 숨지고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는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해변에

서 놓고 있고,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억만장자들과 어울려 펀드레이징 행사를 하고 있었고 케인 의원의 도제구이 요리 식당에 있었다"면서 "그들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불법체류자와 같은 문제에는 큰 관심을 갖는 동안, 우리가

미국인들은 모든 문제를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인 의원은 불리한 이슈를 뒤로하고 교육과 국가안보, 헬스케어 문제에 집중했다. 그는 "버지니아 주민들의 선택은 매우 명확하다"면서 "주민들은 결코 극단주의를 선호하지 않으며 토론과 타협을 통해 결과를 도출하길 원한다"고 반박했다. 케인 의원은 "내가 주지사 재임시절(2006-2010년) 버지니아는 기업하기 가장 좋은 주, 교육하기 가장 좋은 주였으며 상원의원에 당선된 후에는 미국이 인프라 재건을 위한 강력한 법률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카우 후보는 해군 특수전 부대 장교 출신으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전쟁에 참전한 바 있다. 그는 "우리가 베타남 패망 후 갈 곳이 없었으나 미국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민주당이 어둠의

나라로 만들었고 나는 미국을 되돌려 놓기 위해 출마했다"고 밝혔다. 카우 후보는 "펜데믹 이후 휘청거리는 미국 경제를 살리는 방법 중의 하나는 에너지 독립을 이루는 것"이라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의 적국인 이란, 베네수엘라, 그리고 중동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에 매장된 화석연료의 적극적인 채굴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카우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부과 공약을 적극 지지하며 "관세부과로 인해 미국에 제조업이 되돌아오고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인 의원은 한국의 LS전선이 해저 광케이블 공장 건설을 위해 6억8천만 달러를 투자한 사실을 거론하며 자신의 참여한 해양 풍력발전 에너지 산업을 홍보하기도 했다.

김욱제 기자

"유도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무도인 되자"

워싱턴 지역 재미대한유도협회 출범 조광제(DC)·조해훈(MD) 회장 취임

재미대한워싱턴DC 및 재미대한MD유도협회가 지난 7일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한인커뮤니티센터에서 창단식 및 제 1대 조광제 회장(워싱턴DC), 조해훈 회장(MD) 취임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재미대한유도협회, 재미대한워싱턴DC체육회, 버지니아 및 메릴랜드 한의학 인사들과 태권도 관계자 및 유도회 원로, 워싱턴DC PNC뱅크 지점장들이 대거 참석해, 새롭게 출범하는 워싱턴D.C, 메릴랜드 유도협회를 지지하고 격려했다.

재미워싱턴D.C체육회 김유진회장의 인준장 수여로 재미워싱턴D.C 유도협의 출범이 공식화 됐다. 이어진 취임사에서 재미대한워싱턴DC 유도협회 조광제 회장은 "도의상마(道義相磨)와 욱의위인(欲意爲人), 즉 도



와 의를 갖고 뉘아 미국 및 한인 사회에 이바지 하는 인간이 되자"고 말했다. 조광제 회장은 2010년에 용인대학교 유도학과를 졸업하고 2015년에 한국 해병대 대위로 전역후 도미, 현재 버지니아 소재 M.T Kim Martial Art에서 유도를 가르치고 있다.

이와함께 재미대한MD유도협회 조해훈 회장은 창단으로 무도인들의 화합과 조화로 서로 한인사회에 힘 쓸 것을 강조하였다. 조해훈회장은 Black Belt Institute(Glenelg, MD) 체육관에서 유도와 태권도를 지도하

며, 운영하고 있다.

격려사에 나선 재미대한유도협회 수장인 한상필회장은 워싱턴 지역 협회 출범이 "유도 발전과 저변 확대에 뜻깊은 첫걸음"이라면서 "협회의 출범으로 유도의 가치와 전통을 계승하고 새로운 세대에 유도수련을 통해 꿈과 희망을 주는 든든한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한편 축사로는 세계유도회 원로 양동자 박사, 재미대한유도협회 김문호 대사법 등이 참여해 유도협회 출범에 대한 기대를 전했다.

박세용 기자



"우리글 '한글' 이 자랑스러워요"

맥클린 한국학교 한글날 기념 강의

맥클린 한국학교(교장 이은애)는 10월 9일, 제578돌 한글날을 기념하여 지난 5일 한글의 탄생과 그 의미를 배우는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다.

학생들은 훈민정음과 세종대왕을 기념하는 시간을 가진 후, 김에스터 교사의 지도로 훈민정음 창제와 세종대왕의 애민정신, 한글의 과학적이고 독창적인 가치에 대해 배웠다.

학생들은 집현전과 훈민정음, 언문에서부터 가갸날과 한글날 노래 가사

까지 다채롭게 배움으로써, 한글이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받는 이유를 더욱 잘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학생들은 미술활동을 통해 세종대왕과 한글을 주제로 한 작품을 만들며 배운 내용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한편 이은애 교장은 "한국 문화와 한글이 점점 더 세계화되는 시점이기때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아름다운 우리말과 글을 바로 사용하고 지키는 데 앞장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571-235-8997 김윤미 기자

OMNI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1985
오직 오미!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미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대표
OMNI
1-866-915-6664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리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 Implant Crown,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다양한 종류와 형태의 치과 임플란트,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703)569-8000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CarePeople Home Health, Inc. Korean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대신,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 People Home Health

케어피플 홈헬스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폴스처치, 센터빌, 페어팩스, 뉴퓌트뉴스, 리치몬드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1/4-11/8 전화 예약 필수!

애난데일 사랑방 이전 (10월)
(로우 코스트, 베스트케어 치과 2층)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Richmond 11212 Oakstone Dr. Glen Allen, VA 23060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	--	---	---	---

조이 김 USC 한국학 도서관 전 관장 인터뷰

“한인 이민역사 자료의 보물창고”

38년간 근무하고 지난 1일 은퇴 한국학 대표 연구소 발전에 기여



이 ‘USC 같은 우수한 대학이 한국학을 가르치면 좋겠다’고 제안을 했어요. 당시 미국 대학의 동아시아 도서관은 중국, 일본 중심이었고, 한국학 도서관은 너무 취약했거든요. 대학에서 한국학에만 매년 5만 달러씩 투자하면서 기틀을 다졌어요. USC 한국학 도서관은 한인사회와 대학 구성원이 합심해 설립한 보물창고인 셈이죠.”

-USC 한국학 도서관 후원회도 대단했다고.

“정말 많은 분이 1990년대 중반까지 한국학 도서관 발전에 앞장서 주셨어요. USC 출신 한인 문인들이 우리 도서관을 엄청 도왔어요.”

-USC 한국학 도서관의 강점은?

“한인 이민사 자료의 발굴과 보존에 독보적인 도서관이 됐습니다. 미주 한인전자기록관, 한인 이민선조의 삶과 애국활동을 알리는 대한국민회 자료 3만5000여점 디지털화, 17~18세기 한국해(sea of Korea)로 명시된 고지도 178개 등 미주 한인 역사 관련 1차 자료 정보가 엄청 많아요.” 김형재 기자

“백인 초등생 6명이 한인 친구 집단폭행”

“목 조르고 침뱉고 끌고다녀” 학교측 미온 대응에 2차 피해 “또 다른 한인 동급생도 당해” 온라인 커뮤니티서 공분 확산

LA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인 초등학생이 백인 동급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피해 학생의 부모를 비롯한 다른 한인 학부모들은 학교측의 미흡한 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미시USA’에 따르면, 피해 학생의 부모 A씨는 지난달 19일 라치몬트 차터스쿨에서 1학년인 자녀가 학교 쉬는 시간에 다른 학생들로부터 심각한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A씨는 “가해 학생들이 아이의 목을 조르고, 손을 비틀며 무릎으로 눌러 제압했다”며 “발목을 잡아 질질 끌고 다니거나 홀라후프에 가둬 심하게 흔들었다”고 썼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은 총 6명으로 모두 백인이며, 당시 또 다른 한인 학생 1명도 괴롭힘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 폭행으로 A씨의 자녀는 손에 상처를 입었고, 심각한 신체적·정서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즉시 교사와 교장에게 이 사실을 알렸으나, 학교 측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학교에서 받은 이메일에는 아이의 폭력 피해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단지 가해자 부모에게 사건을 알리고 운동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제거했다는 내용만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첫 폭행을 당한 지 6일 뒤인 24일 또다시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가해 학생이 종이로 만든 무기인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침을 뱉어는 부상을 입었으며,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학교가 여전히 가해 학생들에 대한 명확한 처벌이나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분노를 표했다.

A씨는 “학교는 사실을 부정하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싸움에 가담한 것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학교 측의 결론에 불만을 나타냈다.

학교 측에서 A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사건 조사가 완료되었으며, 증거와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며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피해 학생을 위한 안전 계획을 마련했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다.

같은 날 폭행을 당한 또 다른 피해 학생의 부모 B씨도 유사한 상황을 전

했다. B씨는 “우리 아이도 4명의 백인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며 홀라후프에 가두는 등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망가려던 아이가 다시 잡혀 폭행당했다”고 덧붙였다.

부모들은 학교가 이번 사건을 단순한 학생 간의 다툼으로 축소하고 있으며, 피해 학생들의 고통보다는 학교의 이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B씨는 “학교는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CCTV를 공개하지 않고, 사건에 대한 명확한 조사 결과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표명했다.

현재 피해 학생의 부모들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경찰 보고서와 병원 기록을 확보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다른 한인 학부모들 또한 분노하고 있다.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2학년 아들들 둔 학부모 김모씨는 본지에 “한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집단 폭력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며 “인종차별을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한인 학부모들이 힘을 모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는 학교 측에 공식 입장을 요청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수아·정윤재 기자

USC 한국학 도서관(Korean Heritage Library)은 120년의 한인 이민사 자료를 발굴하고, 디지털화해 세상에 알리는 데 독보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오늘날 연방의회 도서관, 하버드-버클리 대학 한국학 도서관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한인 역사와 문화를 집대성한 기관이다.

이런 결실은 한국학 도서관에 반평생을 바친 전 USC동아시아 도서관장인 케네스 클라인 박사와 조이 김(사진) 전 USC 한국학 도서관장의 헌신 덕분에 가능했다. 지난 1일 조이 김(한국명 김정현·71·사진) 전 관장이 은퇴했다.

다음은 김 전 관장과 일문일답. -한국학 도서관 개관 때부터 일한 감회는. “1985년 11월 1일부터 USC 도서관에서 일을 시작했고, 1986년 한국학 도서관 개관하며 목록담당 사서(librarian)로 클라인 박사와 팀으로 일했어요. 저는 미국 시민이지만 심장은 ‘코리아인’입니다.” -USC 한국학 도서관이 소중한 이유는. “1985년 당시 한인사회 뜻있는 분들



한국유학지원센터 개소식 및 박람회 지난 4일 LA한국교육원에서 한국유학지원센터 개소식이 열렸다. 센터는 미국 내 학생과 교육 관계자들에게 한국 유학 정보 제공과 일대일 맞춤상담 등을 지원한다. 5~6일 오렌지카운티 소스몰에서는 12개 대학이 참여한 첫 한국유학박람회가 열려 1000명 이상이 방문했다. 개회식 참석자들이 기념행사로 비행기를 날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탠퍼드 교수 한글날 훈장

주르 교수, 한글 보급 헌신 22년째 한국 작품 번역·출판



LA한국문화원(원장 정성원)은 제578돌 한글날을 맞아 다프나 주르(사진) 스탠퍼드대 교수가 한글 발전과 보급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 정부로부터 ‘화관문화훈장’을 수여받았다고 밝혔다.

주르 교수는 지난 5월 LA한국문화원에서 한국 정부에 한글발전 유공자로 추천된 바 있으며, 한국 정부의 공적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 9일 제578돌 한

글날 기념식에 직접 참석해 화관문화훈장을 수여받는다.

이스라엘 국적의 아버지와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주르 교수는 중학교 시절 본 무술영화물 계기로 태권도를 배운 뒤 한국에 대해 알게 됐다.

주르 교수는 하버드대에서 한국어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러스 킹(Ross King) 교수의 지도 아래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에서 본격적으로

한국문학을 공부했다. 주르 교수는 2002년 9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한국 문학 작품의 번역과 출판을 통해 한국 문학을 세계에 알리고 있으며, 2012년부터는 스탠퍼드 대학교 동아시아언어문화학부 교수로 한국 문학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2014년부터 미네소타주 콩코르디아 언어마을(Concordia Language Villages)내 한국어 마을인 ‘숲속의 호수’촌장을 겸임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미국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알리며, 한글의 발전과 세계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경준 기자

DARCARS
LEXUS OF SILVER SPRING
LEXUS

실버스프링 렉서스에서 최고의 딜을 만나십시오.
Huge Selection of New and Certified Pre-Owned Vehicles

SALES | 301-234-8525 SERVICE | 301-234-8583 PARTS | 301-235-1016
2505 Prosperity Terrace, Silver Spring, MD 20904

DARCARS.com

“신규가입 거부 많고 기다리라는 말만”

보상한도 너무 낮추면 혜택 못봐 디덕터블 올리면 사고시 부담 커 온라인 사이트 이용했다 스캠만 주소 이전·운행거리 쫓는 금융

온·오프라인서 '자동차보험료 절약' 시도해보니...



금융한 자동차 보험료를 낮추려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보았지만 결국 실패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하며 저렴한 보험료를 찾고 있는 모습. 김상진 기자

자동차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가운데 보험료를 낮추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직접 시도해봤다. 하지만 모두 실패해 높아진 보험료를 그대로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한 건 9월 초였다. 지난해에는 6개월에 2300달러가 밀돌던 보험료가 올해는 3100달러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나 위반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1년 만에 800달러나 급격히 오르는 것은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 이때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많은 조사를 하고 에이전트들과 상의를 하는 등 다방면으로 보험료 절약에 나섰다.

▶ 디덕터블과 보상한도

가장 빠르고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것은 디덕터블(본인 부담금)을 높이거나 보상한도를 낮추는 것이다. 디덕터블을 얼마나 높이느냐 보상한도를 얼마나 낮추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를 통틀어 20% 이상 보험료를 절약했다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경우 사고를 대비할 수 없어서 이를 권하지 않았다. 현재 가입해 있는 보험은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 등 인명피해 보상한도가 1인당 10만 달러, 사고 건당 30만 달러다. 이를 가주가 설정한 최소한도인 1만5000달러와 3만 달러까지 내리면 보험료가 내려간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 수리비도 크게 상승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 보험 혜택을 못 받고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막대할 수 있다. 디덕터블을 올리면 사고가 났을 시 본인 부담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낭패를 볼 수도 있다. 파머스의 스티브 진 에이전트는 “주택이나 사업체 등의 재산이 있을 경우는 보상한도를 높게 설정하는 것이 필수”

라고 말했다. 큰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디덕터블과 보상한도를 조정해서 보험료를 낮추는 것은 피하기로 했다.

▶ 보험사 제공 할인

같은 보험사를 5년 이상 이용하거나, 주택보험과 자동차보험을 한 업체에서 가입하거나, 2대 이상의 자동차를 하나의 보험약관에 가입한 경우 할인 혜택이 있다. 보통 이 경우 5~20%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혜택을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이었다. 추가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은 거의 없었다.

▶ 다른 보험사와 비교

많은 전문가가 “발품을 팔아야만”싼 보험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여러 보험사를 비교하고 낮은 보험료를 찾으면 과감하게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저렴하다는 코스트코에 연락했더니 가주 운전자는 가입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다른 자동차 보험사도 문의했다. 신규 가입은 불가하다거나 2주간의 검토 기간 후에 알려주겠다고 하고는 답이 없는 경우도 다반사였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차량 정보와 거주지, 결혼 여부, 고용 여부 등의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가격 비교를 해봤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현재 보험료

보다싼 곳은 딱 한 곳뿐이었고 나머지는 모두 훨씬 더 비싼 보험료를 제시했다. 심지어 6개월에 2000달러가량 더 높은 보험료를 제시한 업체도 있었다. 더 저렴한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사도 자세히 살펴보니 보상 한도가 기존 보험보다 낮았다. 현재 수준으로 올리니 보험료가 지금 내는 것보다 훨씬 높았다.

보험료 비교 사이트에 정보를 입력하고 난 뒤에는 스팸 전화에 시달렸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소규모 보험회사에서 계속 전화가 불편함이었다.

▶ 필수 절대 금물

주변 지인을 통해서 들은 ‘획기적으로 보험료 줄이는 방법’을 시도해보려고도 해봤다. 교통량이 적고 교통사고 빈도가 낮은 교외 지역으로 주소를 옮기거나 1년간 운행하는 거리를 대폭 축소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기고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엄밀하게 보면 보험 사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사고가 나면 보상도 못 받을 수 있고 보험사기기도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캘코보험의 데이비드 이 에이전트는 “적절치 않은 방식으로 보험료를 줄이려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원희 기자

만나봤습니다

도미니크 최 LAPD 수석부국장

“정말 좋은 경험... 기회 준 시정부에 감사”

도미니크 최 LAPD 수석부국장 7개월간 임시국장 마치고 복귀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LA경찰국(LAPD)을 이끌어 온 도미니크 최(사진) LAPD 임시 국장이 임기를 마치고 수석 부국장(Assistant Chief)으로 돌아간다. 최 부국장은 짐 맥 59대 LAPD 국장으로 짐 맥도널 전 LA카운티셰리프국(LASD) 국장을 임명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새 경찰국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LAPD 국장 업무를 맡았던 최 부국장의 임시 국장 임기도 종료됐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 부국장은 “대단한 여정이었다”며 “부국장으로서(LAPD) 조직을 잘 이해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렇게 큰 조직의 책임자가 되는 것의 복잡성도 이해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회를 준 시장과 경찰위원회 위원들, 그리고 LA시에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국장은 짐 맥

도널 신임 LAPD 국장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고 기대가 크다고 말하기도 했다.

베스 시장은 이날 최 부국장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그는 “최 부국장의 경험과 지속적인 리더십은 나와 LA시에 귀중했다”며 “20년 이 넘는 시간 동안 보여준 수고와 앞으로 수석 부국장으로서 보여줄 헌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마이클 무어 전 경찰국장이 경찰의 과도한 물리적 사용 등에 대한 비판을 직면하면서 갑작스럽게 사임하자, 당시 LAPD 수석 부국장이었던 최 부국장이 임시 국장에 임명됐다. 그는 LAPD 역사상 한인 최초, 아시아계 최초로 LAPD 수장이 됐다. 김경준 기자

▶ 1면 '이민정책'에서 이어집니다

그는 가족 기반 이민(I-601, I-601A 면제 신청) 승인전수를 크게 줄이고, 취업 기반 이민(EB1, EB2, NIW, EB3, EB4, EB-5)는 전문기술을 가진 이민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메리트 기반 이민시스템으로 변경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취업 비이민 비자(H-1B, H-2B, O-1, P-1, L-1, E-2)를 크게 줄인다는 방침이다.

불체 신분으로 취업이 가능한 DACA 제도는 즉각 폐지하는 한편, 난민 영주권을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이다.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공약은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정확하게

180도 다르다.

A 번호사는 “한인사회가 이제 더 이상 이민이 이슈가 안되는 사회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면서 “당장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혼자 및 배우자 비자(K-1/K-2, K-3/K-4) 승인을 까다롭게 하고 귀화 시민권 시험과 인터뷰를 강화하겠다고 공언하는 등, 한인 커뮤니티에 적지않은 이민 스트레스를 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B씨는 “주변에 체감하는 한 인정서를 놓고 보면 이민문제는 우리의 고민을 떠나있고 단지 길거리에 너무도 많은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결해 줄 대통령을 원한다”고 밝혔다.

김욱재 기자

① 중앙일보 구독 신청 : 703-281-9660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할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3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용자의 절인 마이클 장

맞춤 용자와 함께라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책용자 · 상업용자 · 재정상담

NMSI,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헤민한의원

동서 의학의 접목

Columbia
화, 목, 토 진료

Gaithersburg
월, 수, 금 진료

Tel. 443-878-4637

통증·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 해 드립니다

센터빌 천들리

교통사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캐시플랜, 각종 의료보험

진료 내용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추손상 후 재활치료

근골격계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박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예약환자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이스라엘, 확전의 함정 빠졌나... “출구전략 없이 공세 강화”

이스라엘이 확전 양상을 보이는 중동 전쟁에서 기세를 잡았지만 갈등 종식을 포함한 장기 전략이 부재한 상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확실히 복수의 전투에서 현재로써는 승리하고 있으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정치적 입지가 굳어지고 있다”면서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같은 승리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불투명하며, 갈등 종식이 이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 팽배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아론 데이비드 밀러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연구원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성공이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스라엘 북부 탈환이라는 목표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며 현재

헤즈볼라·하마스 로켓포 저항 “이겨도 갈등 종식 가능성 없어” 이란, 석유·핵시설 공습 대비 나서 정예군 사령관 5일째 실종 수령

행되고 있는 무차별적 전투의 전략 부재를 지적했다. 한 미국 당국자는 “헤즈볼라 공격에서는 확실한 이스라엘의 전략이 존재한다”며 “그러나 그다음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것을 성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스라엘은 자국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공격에 재보복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핵 시설 타격을 포함해 석유 생산 시설, 군 기지 등에 대한 공격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란도 이스라엘의 재보복



6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의 공습으로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의 다히예 지역에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치솟고 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은신처인 땅굴(지하터널)을 급습해 조직원 수십 명을 사살하고 대전차 미사일, 총기, 탄약, 군복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P=연합뉴스]

움직임과 관련해 대비에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모흐센 파크네자드 석유장관은 걸프 해역의 원유 수출 터미

널을 방문해 이 지역 이란혁명수비대(IRGC) 해군사령관을 만나 석유 시설 안보 유지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격려했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들은 지난 3일 이스라엘의 레바논 베이루트 공습 후 IRGC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 에스마일 가니(67)의 행방이 묘연해 이란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란 반관영 메흐르통신은 7일 이라즈 마스제디 부사령관은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가니 사령관은 안전하며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군은 이날도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지역을 맹폭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무장 정파 헤즈볼라의 은신처인 땅굴(지하터널)을 급습해 조직원 수십 명을 사살하고 무기를 대량 압수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전쟁 1주년을 하루 앞둔 6일 레바논

과 국경을 맞댄 이스라엘 북부의 군사 기지를 방문해 장병들에게 “싸우자”면서 “우리는 함께 싸울 것이며 함께 이길 것”이라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7일 새벽 이스라엘 북부 도시 하이파 인근의 이스라엘군 기지를 향해 로켓을 발사하며 맞섰다. 이스라엘군은 일부를 요격했다고 밝혔으나, 이스라엘 언론은 약 10명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하마스도 이날 텔아비브 등을 향해 로켓을 발사했고, 이스라엘군은 로켓 발사원점을 공격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대피를 경고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미국 브라운대 ‘전쟁 비용 프로젝트’ 보고서에 따르면 가자 전쟁이 시작된 이래 미국의 이스라엘 군사 지원 규모가 최소 179억 달러로 추산됐다. 한지혜 기자

최강 허리케인 ‘밀턴’ 플로리다 근접

2주만에 또 큰피해 우려



최강 등급의 허리케인이 플로리다 지역을 관통할 것으로 관측돼 이 지역이 10여일 만에 두 번째 허리케인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7일 국립허리케인센터(NHC)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동부시간)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허리케인인 5등급으로 격상된 허리케인 ‘밀턴’(Milton·위성사진)이 플로리다 탬파의 남서쪽으로 1천150km 떨어진 해역에서 플로리다 반도를 향해 시속 15km로 움직이고 있다.

밀턴은 화요일인 8일 오후 8시께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근접하고 다음 날인 9일 오전 8시께 플로리다 반도를 관통한 뒤 같은 날 오후 동쪽 대서양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허리케인의 최대 풍속은 이미 시속 155마일에 달한다.

NHC는 “밀턴은 현저히 빠른 속도로 강해지고 있다”며 “24시간 동안 이렇게 빨리 강해진 허리케인은 이전까지 2005년 윌마와 2007년 펠릭스 등 2개뿐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이 허리케인은 플로리다 걸프 연안에 도달하기 전에 약간 약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플로리다에 상륙 시 여전히 크고 강력한 허리케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플로리다 해안과 내륙에 생명을 위협하는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NHC는 특히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서 강풍으로 인한 대형 해일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허리케인 주의보를 발령했다. 또 8일 밤부터 허리케인이 몰고 온 비구름으로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측하면서 침수와 강도의 범람 등 피해에 대비하라고 당부했다.

플로리다 지역은 지난달 27일 플로리다 서부 해안에 상륙해 북동쪽으로 가오지른 4등급 허리케인 헐린으로 이미 큰 피해를 본 상태에서 2주도 채 되지 않아 더 강한 허리케인을 맞닥뜨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비상

이 걸렸다. 헐린은 플로리다를 비롯해 조지아와 사우스·노스 캐롤라이나 등 남동부에서 최소 230명의 사망자와 수십조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플로리다 피해 지역의 주민들은 또다시 상륙하는 허리케인이 ‘열린 데 닫힌’ 격으로 피해를 가중할까 걱정하고 있다.

특히 이번 허리케인 밀턴이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탬파 베이 지역에서는 헐린이 휩쓸고 간 잔해를 치우느라 당국과 주민들 모두 분주한 상황이라고 AP통신과 CNN 방송 등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건물 잔해와 폐기물이 강풍에 날아다니면서 또 다른 인명피해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전날 51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지역 재난당국은 힐스버러 카운티를 비롯해 패스코·피넬라스·헤르난도 카운티 등에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 힐스버러 소방국장 제이슨 도허티는 주민들에게 “여러분이 집에 남아 있으면 여러분도 죽을 수 있고 우리 대원들도 여러분을 구조하려다 죽을 수 있다”며 “제발 집을 떠나 그들을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노벨생리의학상에 ‘마이크로 RNA 발견’ 미국인 듀오

엠브로스·러브컨 교수 유전자 조절 연구 등 새 지평 열어



빅터 엠브로스 게리 러브컨

암과 같은 난치병 차세대 치료제로 주목받고 있는 ‘마이크로 RNA(miRNA)’를 발견한 연구자들이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노벨위원회는 2024년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로 빅터 엠브로스 미국 매사추세츠 의대 교수와 게리 러브컨 하버드대 의대 교수를 공동 선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이들이 유전자에 의해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유전체 발현)을 조절하는 마이크로 RNA를 처음 발견하고 그 역할을 규명한 공로를 인정했다.

엠브로스 교수는 미생물인 ‘예쁜꼬마선충’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처음 마이크로 RNA를 발견했다. 러브컨 교수는 이후 마이크로 RNA가 생물의 유전체 발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밝혀냈다.

각 세포에 맞게 적절한 양의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장수환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생리학교실 교수는 “마이크로 RNA는 세포 성장, 발달, 분화 등 여러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한다”며 “유전체 발현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의 치료를 위해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분야”라고 말했다.

엠브로스 교수는 1953년 미국 뉴햄프셔 주에서 태어나 매사추세츠 공대(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다트머스 의대를 거쳐 매사추세츠 의대에 근무하고 있다.

러브컨 교수는 1952년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태어나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뒤 MIT에서 박사 후 과정을 거쳐 하버드대 의대에서 일하고 있다.

노벨위원회는 이날 생리의학상을 시작으로 8일 물리학상, 9일 화학상, 10일 문학상, 11일 평화상, 14일 경제학상 수상자를 차례로 발표한다. 윤상언 기자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 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AWARDED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찌든 먼지와 세균 알러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HELPER, TECHNICIAN 구함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MARYLAND • VIRGINIA • TIDEWATER • RICHMOND

2025 메디케어 등록안내

2025년에는 가지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벤처지(Part C)와 약보험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비교해 보세요!

상담예약: 703-973-5900

* 매주 토요일 상담합니다 [예약에 한함]

매주 토요일 9AM~4PM

엘리콧시티 롯데플라자 내 만남의 장소
8801 Baltimore National Pike, Ellicott City, MD 21043

+ 메디케어 플랜 변경기간 2024년 10월 15일~12월 7일

애난데일



7003 Evergreen Ct., Annandale, VA 22003

센터빌



14631 Lee Highway, #214,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10176 Baltimore National Pike, #201, Ellicott City, MD 21042

볼티모어



425 E Federal St., Baltimore, MD 21202



오향제
703-973-5900



Jenny Oh
703-642-0305



Elizabeth Kim
703-642-7578



Jennifer Chung
410-698-6877



Michelle Kim
703-337-0910

26년의 경험과 실력

코너스톤 종합보험

Fairfax

(703) 642-0305

Richmond

(804) 767-3714

Ellicott City

(410) 698-6877

Tidewater/Newport News

(757) 941-7216

학비싸고 환경·취업전망 좋아 남쪽으로

북부서 남부 대학으로 진학 급증
조지아공과대학·클렘슨대학 등
남부공립대 수업료 평균 3만불

대입 수험생들이 북부의 전통적 명문대 대신 사우스캐롤라이나나 조지아, 앨라배마주 등 남부 지역 공립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최근 보도했다. 역사적으로 하버드 등 아이비리그(북동부 명문 사립 8개교)를 위시한 북동부 지역의 대학들의 위상이 높았고 학생들도 선호했으나 최근에는 남부 학교들이 저렴한 학비와 온화한 날씨, 유리한 취업 전망 등에 힘입어 인기가 높아졌다는 것이다.

듀크, 롤레인, 에머리, 밴더빌트 등 남부 명문 사립대들의 선호도도 꾸준히 높아졌지만 최근 남부 대학들의 인기는 조지아공대, 클렘슨대, 앨라배마대 등 공립학교들이 이끌고 있다고 WSJ은 전했다.

WSJ가 교육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남부 지역 공립대학으로 진학한 북부 출신 학생 수는 지난 20년간 84% 늘었고 2018년부터 2022년 사이에는 30% 증가했다. 앨라배마대의 경우 2002년 1% 미만 이던 북동부 출신 학생 비율이 2022년에는 11%로 올라갔다. 미시시피대 역시 2022년 신입생 4500명 가운데 200명이상이 북부 출신으로 20년 전의 11명에서 크게 늘었다.



저렴한 학비와 높은 취업률에 학생들이 남부지역 대학으로 몰리고 있다. 사진은 조지아공대.

남부 공립대가 인기를 끄는 가장 큰 요인은 저렴한 학비다. 뉴욕 롱아일랜드 출신인 얼리샤 카라치올로는 사우스캐롤라이나대에 진학했다. 당초 커뮤니케이션 전공으로 유명

한 뉴욕주의 시러큐스대 진학이 목표였고 장학금 1만5000달러를 받아 6만5000달러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입학 허가도 받았다.

그는 사우스캐롤라이나대 의대에 다니는 사촌을 보고 이 학교에도 지원했는데 장학금을 받을 경우 학비가 시러큐스대의 절반 수준이라는 점에 끌렸다고 한다. 남부 공립대학을 다니는 다른 주 출신 학생들은 평균 2만9000달러의 학비를 내는데 이는 전국의 공립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WSJ은 전했다. 북부보다 따뜻하고 화창한 날씨와 여유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도 남부 대학의 인기 요인 중 하나다.

올해 상반기에 대학가를 휩쓴 가짜 지구 전쟁 반대 시위도 남부 대학 선호도를 높였다.

뉴욕의 컬럼비아대를 비롯한 여러 학교가 반전시위로 졸업식까지 취소하는 등 몸살을 겪었다. 하지만 남부 지역 대학에서는 반전 시위 여파가 덜했다고 WSJ은 전했다. 이와 함께 남부 지역 경제 호조로 취업 전망이 좋다는 점도 학생들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고용정보업체 오토매타데이터프로세싱(ADP)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이 일자리를 찾기 좋은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남부 지역에 있었다고 WSJ은 전했다.

연합뉴스

동부 항만 3일 만에 정상화 노사, '임금 62% ↑' 잠정 합의

동부 항만의 선적과 하역 작업을 중단시켰던 노조 파업이 3일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항만 노동자 4만5000 명이 가입한 노동조합인 국제항만노동자협회(ILA)는 이날 파업을 끝내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3일간 중단됐던 동해안과 멕시코만 일대 36개 항만의 화물 선적과 하역 작업이 재개될 수 있게 됐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 30일에 만료된 단체협상 갱신 협상 과정에서 노사가 임금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생했다.

노조는 시간당 임금을 77% 인상하라고 요구했고, 사측인 미국해양협회(USMX)는 50% 인상안으로 맞섰다. 이에 노조는 지난 1977년 이후 47년 만에 동부 항만 동시 파업에 돌입했다.

식품부터 자동차까지 공급망 흐름을 중단하는 항만 파업의 경제적 파급

을 우려한 백악관은 사측에 새로운 임금 인상안을 제안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결국 사측은 62% 인상안을 내놴다. 다만 노조는 이번 합의가 잠정적이라고 밝혔다.

일단 파업을 중단하겠지만, 임금 인상과는 별개로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인 항만 자동화에 대한 일자리 보호 문제에 대해서도 노사가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지난달 30일자로 만료된 단체협약을 내년 1월15일까지 연장하고, 사측과 일자리 보호 문제 등을 협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임금 인상에 따라 지금껏 시간당 39달러를 받던 동부 항만 노동자들은 향후 6년간 시간당 63달러를 받게 됐다. WSJ은 항만 노동자 중에는 시간당 임금이 더해 연장근로수당 등으로 1년에 10만 달러를 받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구글 자율주행 로보택시, 아이오닉5 달린다

현대차 파운드리 사업 본격화
양사 내년 말 도로 주행 테스트

현대자동차가 구글 자회사 웨이모에 아이오닉5를 로보택시용 전기차로 공급한다.

현대자동차는 4일 현대차 아이오닉5에 웨이모의 6세대 완전 자율주행 기술 '웨이모 드라이버(Waymo Driver)'를 적용해 자율주행 택시 서비스에 투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글은 2018년 자율주행 서비스 웨이모 원을 시작한 이후, 현재 애리조나주 피닉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LA, 텍사스주 오스틴 등에서 운영 중이다.

양사는 내년 말부터 웨이모 드라이버가 탑재된 아이오닉5 차량의 도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한 뒤, 실증 작업을 거쳐 실제 서비스에 투입할 방침이다. 웨이모 공급용 아이오닉5는 조지아주에 위치한 전기차 전용 공장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

서 생산될 예정이다.

송창현 현대차그룹 AVP본부장(사장)은 "자율주행 차량 판매 파운드리 사업을 통해 글로벌 자율주행 기업들에 SAE 기준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 구현이 가능한 차량을 공급하겠다고 최근 발표했다"며 "사업의 첫 시작에서 만난 웨이모는 업계 리더로서 최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웨이모의 테크드라 마와카나 공동 최고경영자(CEO)는 "지속가능성과 전기차 로드맵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현대차는 더 많은 지역의 더 많은 이용자에게 완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웨이모의 훌륭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웨이모와의 협력은 현대차의 자율주행차 파운드리(위탁생산) 신사업이 본격화했다는 신호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대차는 지난 8월 CEO 인베스티데이에서 자율주행에 최적화된 차량 플랫폼을 소프트웨어 기술 기업들에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파운드리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기업 웨이모(Waymo)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현대차 제공]

리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차량 제조사가 아닌 웨이모는 그동안 자율주행 차량 조달 문제를 속세로 안고 있었다. 특히 지난 6월부터 샌프란시스코에서 누구나 얌만 설치하면 로보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완전 개방하면서 유료 이용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는 만큼, 차량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다.

현대차와의 이번 협약으로 웨이모는 안정적인 제조 파트너를 확보함으로써 테슬라 등과 차세대 로보택시 서비스 경쟁에서 유리해졌다.

박영우 기자

고용 25만4000명 '깜짝 증가'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 늘어
연준의 '빅스텝' 기대 사라져

9월 신규 일자리 증가 폭이 예상 수준을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 및 경기 상황이 우려와 달리 약화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금리

인하 속도를 낮출 것이란 기대를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9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25만4000명 증가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31만명) 이후 6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앞선 7월 고용 증가 폭은 종전 8만9000명에서 14만4000명으로 5만5000

명 상향 조정됐고, 8월 고용 증가 폭은 14만2000명에서 15만9000명으로 1만7000명 상향 조정됐다. 7~8월 상향 조정 폭은 기존 발표치 대비 총 7만2000명이었다.

9월 고용 증가 폭은 8월 증가 폭(15만9000명)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은 물론,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15만명)도 크게 웃돌았다.

9월 실업률은 4.1%로 8월(4.2%) 대비 0.1%포인트 하락했고, 전문가 예상

치(4.2%)도 밑돌았다.

시간당 평균임금 상승률은 전월 대비 0.4%, 전년 대비 4.0%로, 시장 전망치(전월비 0.3%·전년비 3.8%)를 모두 웃돌았다.

예상을 크게 웃돈 9월 고용 지표와 7~8월 지표의 상향 조정은 경기 상황이 우려와 달리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인식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준이 오는 11월 통화정책 회의에서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

를 단행할 수 있다는 기대를 크게 낮추고, 나아가 금리 인하 속도를 더 늦출 수 있다는 기대를 키울 전망이다.

프린서플 애셋 매니지먼트의 시마샤 수석 글로벌 전략가는 "9월처럼 어마어마한 깜짝 고용지표는 고용시장이 실제로는 약하지 않고 강함을 시사한다"며 "이는 연준이 11월 추가 빅컷을 단행할 것이란 기대를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메디케어!

풍부한 경험과 신뢰의 에이전트
프라임 보험(조앤김)이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프라임 보험(조앤김)
상담전화 **(703) 861-9923**

14641 Lee Hwy #D3, Centreville, VA 20121
7535 Little River Tpk, Suite 204, Annandale, VA 22003

[메디케어 무료신청]

1959, 1960년생이신 분들
65세 이후 직장에서 은퇴하신 분들
약값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LIS 신청

- 눈높이 상담 • 쉬운 설명 • 보험료 및 의료혜택 비교

상담 내용	파트 A & B	파트 C	파트 D
	서플리먼트, 플랜 A,B,G,K,L,N	타주에서 이사오신 분들	
	이중 특별 필요 플랜		
	메디케어 (파트 A, B) + 메디케이드 (모든 메디케이드 대상) 추가 혜택 VA 지역, MD 지역		

We do not offer every plan available in your area. Currently we represent (X) organization which offer (X) products in your area. Please contact Medicare.gov, 1-800-MEDICARE, or your local Statw Health Insurance Program to get information on all of your options.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페어팩스 스테이션 싱글홈	페어팩스 싱글홈	페어팩스 타운홈	센터빌 타운홈
			
\$1,250,000	\$750,000	\$699,000	\$569,000
**방4/화3.5/ 차고2. Many Upgraded. ** 주인이 잘 관리한 집.	**방4/화3. Ranch 스타일. 0.2 Ac. ** 굿로케이션, 조용한동네. Move-in Ready	**방3. 화 2.55/ 차고 2 ** Many Upgraded (지붕, HVAC, 워터허터,Bathrooms)	**방4/ 화3.5/ 2 Assigned. 세지붕. ** 지하 Full Bath. Walkout. 업그레이드 Bath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김경아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웰빙모아 Wellbeing More

가을 할인+

여성의류

50% OFF

COUPON

겨울이불

50% OFF

COUPON

잠옷, 내복, 모자, 가방, 강아지옷

20% OFF

COUPON

시즌이불

20% OFF

COUPON



깊이가 다른 1도 제어기술!

혜택이 가득한 가을 세일 이벤트

숙면, 기술을 써!

대한민국 숙면의 기술 | 나비엔 숙면매트

온수매트 10% off!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쾌적 숙면 가전/무전자파/1mm 초슬림매트/분리난방/보조난방, 숙면모드/살균모드/다중안전장치/차일드락/타이머 등등

카본매트 20% off!



경동나비엔 카본매트
쾌적 숙면 가전/직류 저전압/전자파 안심/분리난방/Wi-Fi/스마트히팅케어/슬립케어 시스템/원격외선/이지워셔블/다중안전시스템

한미우체국 택배 대리점 전화 주문시 당일 발송 모든 행사는 애난데일과 센터빌 동시 실시



애난데일점 (703) 256-5500
7133-D Columbia Pike, Annandale, VA 22003
애난데일 곰바우 식당 옆

센터빌점 (703) 830-7755
5961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센터빌 롯데, 하하핑크 옆

영업시간
9:30am ~ 8pm
(365일)

거야, 증인선정부터 국감 독주 ... '탄핵' 이진숙도 출석시켜

행안위·과방위·문체위 곳곳 총돌
야당, 의석수 이용해 동행명령 의결
여당 "종합감사 때 부러라" 퇴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위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등 야 3당 의원들이 7일 오후 서울 성동구 21GRAM(그림) 앞에서 행안위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김태영·이승만 21그램 대표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7일 막을 올린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거야의 집중 공세로 시작됐다. 국정 전반을 감시·견제하고 민생 정책을 토의하는 본연의 기능 대신 여야 간 정쟁으로 국감이 얼룩질 것이라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170석의 위력은 상당했다. 이날 국감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인 '21그램'의 김태영·이승만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실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날 국감에 불참했다.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낸 21그램은 전시기획업체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는 등 김 여사와 인연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위원장은 "(두 사람이) 출석 요구서를 회피하고 어떠한 소명도 없이 국감 출석을 거부하는 대단히 잘못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회 사

무처 공무원이 해야 하는 동행명령장 집행엔 윤건영 간사 등 민주당 의원 11명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동참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동행명령장에 기재된 주소지에 머물고 있지 않아 강제 구인은 못했다. 이 와중에 국민의힘이 "종합감사 때도 할 수 있는데, 인테리어 업체 대표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과하다"고 반발하며 집단 퇴장해 행안위 국감이 잠시 파행되기도 했다.

국감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관련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수령을 회피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여야 세력이 엇비슷했던 과거 국회에선 정정성 동행명령 발부 시도가 불발되기 일쑤였다. 이번 국회에선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증인 선정부터 동행명령까지 모두 일방 주도했다.

방통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도 동행명령의 위력이 발휘됐다. 거야의 탄핵 의결로 직무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심판 중으로 국정감사 출석이 어려우니 양해바란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민주당 소속의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참석하지 않으면 동행명령장(발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께 출석했다.

야권은 이 위원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월급을 받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세금으로 월급 파박파박 받아가고 있는데,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다"고 했고, 황정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의 국감 불출석 사유서를 방통위 직원이 대리로 국회 행정실에 제출한 것을 들며 "이 위원장은 법안카드도 관용차도 사적으로 마구잡이로 이용하던니 이제는 방통위마저 사유화하려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원해서 뛰쳐나온 게 아니다. 나는 일을 하고 싶다"면서 불출석 사유서 제출 과정과 관련해선 "방통위에서 국회에 출입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그렇게 하면(사유서를 내면) 되겠냐고 해 그렇게 하자

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선 김 여사 리스크를 부각하려는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겨냥한 국민의힘이 국감장 곳곳에서 부딪치기도 했다.

행안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을 거론하며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국정농단까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사항"(위성곤),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박정현)이라며 김 여사를 겨냥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선 김 여사가 한국정책방송원(KTV)이 개최한 무관중 공연을 관람했다는 의혹이 쟁점이 됐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2년6개월 동안 벌어진 괴이한 의혹의 뿌리를 쫓아 가다 보면 어김없이 김 여사가 등장한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김건희 국정농단과 민생 대란, 인사 폭망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고 밝혔다. 대어 공세 컨트를 타워인 '김건희 심판본부'도 이날 발족했다.

전명계 김민석 최고위원이 본부장을 맡은 김건희 심판본부는 ▶주거조작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관저 이전 ▶당무 개입 ▶공천 개입 ▶이단 관여 ▶댓글팀 개입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전방위로 다룰 계획이다.

김민석·김기정·강보현 기자

여당 "이재명 재판 왜 지연되나" 야당 "김 여사 주가조작 연루"

(도이치모터스)

대법원 국감서 여야 대리전 펼쳐
조희대, 국회에 법관 증원 지원 요청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와 재판을 두고 대리전을 벌였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대법원 법원행정처 및 사법연수원·사법정책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다.

여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기소 후 1심 선고까지 799일 걸린 점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폈다. 과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170석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가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문제를 집중 질의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창래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가 기소만 됐다면 실형을 맞는 것인데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결을 못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씨가 SGI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으로 임명된 것과 관련해

"만일 김 여사가 '총선 포기하면 어디 공사에 취직시켜 줄게' 얘기했다면 '후보자 매수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때 과격한 인사도 오갔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이 대표의 선거법 결심에서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한 데 대해 "검찰이 미쳤다"고 반복 주장하면서다. 과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에게 모욕 제지를 요청했지만, 정 의원

은 "모욕은 주관적인 영역이라, 제가 지지하기에 상당히 거시기하다"며 응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이 "편파 진행"이라고 반발하며 소동이 일었다.

전대법 법원행정처장은 여야 질의에 모두 "개별 사건에 답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조희대(사진)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법관 증원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준영·최서인 기자

"해리스 되면 반도체 리스크 ... 트럼프 되면 배터리 불확실성"

산업연 '미 대선과 한국 산업' 보고서
"철강은 누가 당선돼도 부정적 영향"

오는 11월 5일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국 경제를 이끄는 반도체 산업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반대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 배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것이라 전망과 함께다.

산업연구원은 7일 이런 내용의 '미국 대선 시나리오별 한국 산업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우선 해리스 후보가 당선될 경우 반도체 전방산업인 스마트폰 등 디바이스 시장에서 화웨이·샤오미 등 중국 기업 제품에 대해 미국 정부의 견제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다.

구매 제한이나 관세를 높이는 방식의 견제가 완화하면 중국 디바이스 기업의 점유율 상승→중국산 반도체 수

요 상승→한국산 반도체 수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국내 철강·화학 산업계에도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는 게 악재일 수 있다. 노동·친환경 측면에 기반을 둔 비관세 장벽 심화로 한국의 교역 조건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게 산업연구원의 경고다. 다만 해리스 후보가 당선되면 국내 자동차·배터리·방위산업엔 '청신호'라고 산업연구원은 분석했다. 특히 자동차의 경우 현행 보조금 등이 유

지폐 수출 호조가 지속할 거란 이야기다. 방위산업을 보면 우크라이나·나토(NATO)에 대한 미국의 지원 강화에 힘입어 수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 국내 배터리 산업에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질 거라고 산업연구원은 내다봤다. 현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그린딜' 정책이 폐기될 것으로 예상돼서다. 다만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연방 상·하원 총선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의회가 IRA 폐

지 등에 제동을 걸 수 있어서다.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후보 당선 시 한국의 미국으로 수출과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일정 부분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해외 기업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 생산하게 하는 '아메리카 퍼스트' 기조가 강화하고, 관세 장벽이 두텁게 세워질 전망이다. 트럼프 후보는 "10% 보편관세, 중국에 대항 60% 고율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의 자동차·철강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세종=김민중 기자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 65세 되시는 1959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703-347-3788

수잔 김

구강교육치과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무보험자를 위한
무이자 Plan,
Care Credit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정 수료
- ◇ 씨애틀 인스티튜트 수료 (Seattle Institute)
- ◇ 한국, 미국에서의 22년 임상경력
- ◇ 100여명의 치과 의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필라 A-1 Family Dental Care에서 최고 기어 치과의사상 수상



“염증없는 잇몸, *건강한 치아*
오래가는 임플란트”

- 임플란트 Implant
-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 응급환자 Emergency
-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인비절라인 지정치과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www.naturadent.net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한동훈, 친한 의원 20명 만찬 다음날 ... 원외 90명과 오찬

(당협위원장)

세력 키워가는 친한계

6선 조정태·3선 송석준 중진역할
용산 출신 주진우도 친한만찬 참석
원외 유의동 등 한동훈표 정책개발
일각 "단합해도 힘든데 모임 부적절"

국민의힘 친한계가 6일 서울 종로에서 열린 한동훈 대표 만찬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세력 결집에 나섰다. 현역 의원 20명이 모인 자리에서 "친한계 의원을 50명까지 늘리자"는 목소리가 나왔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7일 라디오에서 "친한계 의원도 20~30명밖에 안 된다"며 "향후 여당의 중립 의원 40여 명은 한 대표와 싱크로(일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한 대표의 7일 원외 당협위원장 90여 명과도 오찬을 했다. 이를 두고 "한 대표가 장악력 강화에 나섰다"는 평가와 함께 "분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특히 만찬이 눈길을 끈 건 시점이었다. 모임 이틀 전인 4일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에선 4표의 이탈표로 긴장감이 흘렀다. 여기에 한 대표가 빠진 2일 '용산 만찬'과 '김대남 의혹'까지 겹치자 "윤·한 갈등 증폭"이라는 뒷말이 돌았다. 이런 미묘한 시기에 친한계가 보란 듯이 모인 것이다. 게다가 복수 친한계 의원 사이에서 "대통령실의 변화 없이는 쉽지 않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더 추가될지 걱정된다" 등 용산과 대립각

을 세우는 메시지가 적지 않았다. 과거 친이·친박계나 정권 초기 친윤계와 비교하면 친한계의 규모는 크지 않고, 중진 의원 숫자도 적다. 하지만 당내에선 "친한계가 내부 역할 분담을 통해 전열을 갖추고, 원외 당 대표인 한 대표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만찬에 참석한 친한계 중진 그룹은 6선의 조정태, 3선 송석준 의원이다. 조 의원은 한 대표가 제안한 순직해병 특

검법에 "치고 나가야 한다"고 힘을 실었고, 8월 당 격차 해소특위 위원장에 임명돼 친한계로 발돋움했다. 송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한 대표를 지원자격했고, 최근에는 직능·사회 단체를 관리하는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당 지도부에도 친한계가 포진해 있다. 최고위에 친한계 핵심 장동혁(재선·수석최고위원), 진종오(초선·청년최고위원) 의원이 속해 있다. 서범수 의원은 당 살림을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박정하 의원은 대표 비서실장을 각각 맡아 '재선 핵심 당직 라인'을 구축했다. 이외에도 삼성전자 사장 출신 고동진(초선) 의원은 인재영입위원장, 정성국(초선) 의원은 조직부총장에 임명됐다. 이외 초선 의원 중 한지아 의원은 수석대변인, 김소희·우재준 의원은 원내부대표를 맡았고, 국방·안보 전문가인 유용원 의원은 당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주요 당직을 맡진 않았지만, 재선의 배현진 의원과 초선 박정훈 의

원은 친한계 '핵심 스피커'로 통한다.

6일 만찬에는 중립 지대에 속하는 의원도 참석했다. 주영국 대사를 지낸 김건 의원과 서울 도봉갑 김재섭 의원이 다.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을 지낸 주진우 의원도 함께했다. 원외 친한계도 포진해 있다. 김중혁 최고위원과 신지호 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최진선에서 '한 대표 네거티브'를 반박하고 있다. 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 유의동 원장, 제승환 부원장은 '한동훈표'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과제를 맡았다.

다만 당내에선 "노골적으로 광고하며 모임 하는 걸 본 적 없다" (권성동 의원), "대동단결을 해도 부족한 지금 대단히 부적절하다" (권영세 의원)는 지적도 나왔다. 초선 의원도 "한 대표가 제식구 챙기기도 다른 의원과 스킨십부터 늘려야 한다"며 "대표와 소통하지 못해 생각을 알기 힘들다는 동료 의원도 있다"고 말했다. **손국희 기자**

한동훈 "김대남, 필요시 법적 조치 검토" ... 김씨 서울보증 감사직 사퇴

국민의힘 "탈당해도 조사 가능" 당무감사위 차원 조사 추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SGI서울보증 감사직에서 사퇴했다. SGI서울보증은 7일 김 전 행정관이 상임감사위원 사임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사임서를 제출한 만큼 조만간 관련 절차를 거쳐 사퇴 절차가 마무리될 것"이라며 "절차가 완료되면 관련 내용을 공식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해 10월 대통령실을 퇴직하고 연봉 수익원에 달하는 SGI서울보증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지난 8월부터 출근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낙

하산' 논란이 있었다. 특히 7·23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엔 잘 기회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해 한 대표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샀다. 같은 날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김

전 행정관에 대해 당무감사위원회 차원의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 대표가 지난 2일 김 전 행정관의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 진상 규명을 지시한 지 5일 만이다. 한 대표의 조사 지시 당일 김 전 행정관이 국민의힘을 탈당한 것과 관련해 신의진 당 중앙윤리위원장은 기자들에게 "(탈당했어도) 다양한 조사가 가능하다"고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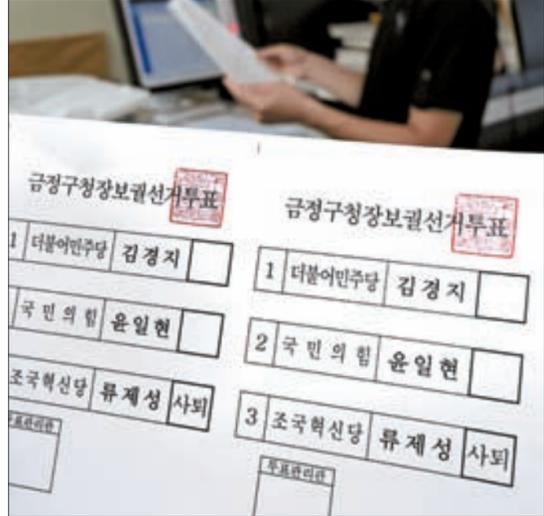
했다. 한 대표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연수를 마친 다음 기자들과 만나 김 전 행정관에 대해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이라며 "감찰하고 필요한 (사법)조치를 해서 기강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이 탈당한 상황이라 조사의 강제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당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고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하면 또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있다"고 했다. **김남준 기자**

선거법 데자뷔? ... 금투세도 이재명 입만 바라보는 민주당

현장에서
이 대표, 보완→유예 입장 오락가락
민주당, 석달째 결론 못 내고 대흔돈
폐지 정한 여당은 "이재명세" 맹공
결국 대표에 결정 말긴 선거법 때 비슷
"이제 이재명(대표)의 결단만 남았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여부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당 핵심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데, 주식시장이 침체하자 '유예냐, 폐지냐, 시행이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우여곡절 끝에 민주당이 결정 책임을 떠안은 모양새다. 이 대표로선 역을 할 법하다. 그러나 논쟁을 촉발한 건 이 대표 자신이다. 지난 7월 전당대회 때 "금투세 시행 시기를 고민해 봐야 한다"고 군불을 때다. 이후 "공제 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린 뒤 시행하자" "자본시장 구조 개혁이 수반돼야 한다"는 식으로 입장이 오락가락했다. 이런 틈새를 여당이 노렸다.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폐지 입장을 정하고 "금투세는 '이재명세'라는 프레임에 찌다. 여당뿐 아니라 야당 중진도 "지도부가 실기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1400만 투자자가 이 대표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는 지난해 11월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냐"며 병립형 비례대표제 회귀를 시사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서 "선거법을 후퇴시키면 안 된다"는 논란이 커지자 이 대표는 입을 닫았다. 당 최고위는 "이 대표에게 선거제 관련 포괄적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결정했다. 이 대표는 2월 5일 광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동형 유지'를 감쪽 발표했다. "같이 칼을 들 수는 없지만 방패라도 들어야 하는 이 불가피함을 조금이나마 이해해 달라"고 했지만, 당에서도 "결국 연동형을 유지할 거면 뭐하러 3개월 넘는 논쟁으로 삼쳐만 키워느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때처럼 금투세 논쟁도 결국 이 대표 입만 쳐다보게 됐다. 수권정당이라는 민주당의 비민주성이 노골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민주당 중진은 "속이 부글부글한다"고 말했다. 혹시나 '역할극'이었다 해도, 관객도 배우도 별로 얻어간 게 없는 듯하다. **성지원 기자**



'대대 대결' ... 부산 금정구청장 투표용지 7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용지를 살펴보는 선거관 직원. 금정구는 보수세가 강한 지역이지만, 아권 후보 단일화 이후 박빙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9일 현장 지원 사격에 나선다. **송봉근 기자**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이극한방병원

원장 이극 (한의학 박사) 저서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 *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신침구원리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White Oak 도서관, EXIT 28A, 650

TV TRAVEL CHANNEL 서울이극한방병원 방영

크레딧카드 결제 환영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3년 over 9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0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 녹내장 레이저 치료 & 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nt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구인 리셀러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side T: 412 681 8505
144 South 20th Street
Pittsburgh, PA 15232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군 “북, 핵추진잠수함 건조 시작… 성공할진 봐야”

국방부 “건조정황 포착” 첫 공식평가
북한판 핵어뢰엔 “러와 협력 가능성”
김정은 ‘헌법 개정’ 최고인민회의
통일개념 삭제, 영토조항 신설 관측



지난해 9월 전술핵공격잠수함 진수식에 참석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군 당국이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건조가 시작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수차례 핵잠에 대한 집착을 드러냈는데, 군 당국이 건조 정황을 확인한 건 처음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7일 국방정보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최근 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 건조를 개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일부 식별했다. “최종적으로 원자력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으로 보이는 함정의 초기 건조 단계가 포착됐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한-미가 획득한 비밀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제한된다”며 “관련 동향을 꾸준히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이 북한 핵 추진 잠수함을 주시하게 된 건 “실제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는 김정은의 2021년 8차 당대회 발언을 통해서였다. 김정은은 지난해 9월 전술핵공격잠수함 ‘김군 옥영웅함’ 진수식에서 “앞으로 계획돼

있는 신형 잠수함들 특히 핵추진 잠수함과 함께… 전반적인 잠항작전능력을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 1월 김정은이 잠수함발사 순항미사일(SLBM) ‘불화살-3-31형’ 시험발사 현장에서 “핵동력(추진) 잠수함과 기타 신형 함선 건조 사업과 관

련한… 당면 과업과… 집행 방도에 대한 중요한 결론을 주셨다”고 북한 매체들이 보도했다. 핵 추진으로 움직이는 잠수함에서 핵 공격을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결론”으로 구체화됐다는 것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전략폭격기와 함께 3대 핵전력을 구성하는 핵 추진 잠수함은 본토가 공격당하더라도 수중에서 반격이 가능하다. 하지만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한다. 김정은의 재근으로 건조를 시작했다고 해도 잠수함에 탑재될 소형 일체형 원자로 기술 확보 등은 넘기 어려운 관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비밀리에 소형 원자로 시험을 진행하면서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또 북한판 핵 어뢰인 ‘해일’로 불리는 수중발사핵전력무기에 대해 “현재 초기 개발 시험 단계로 일 반적 수준의 장거리 잠수함행 기술력 정도를 축적했을 수 있다”며 “러시아와의 기술 협력으로 핵 추진이나 핵 탐

재 기술의 발전 가능성도 있어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모두 4차례 해일을 시험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해일 첫 시험 당시 “은밀하게 잠항해 수중 폭발로 초강력적인 방사능 해일을 일으켜 적의 함선 집단들과 주요 작전항을 파괴 소멸”한다고 소개했다.

북한은 7일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14기 11차)를 열어 사회주의 헌법 개정안 심의를 진행한다. 남측을 제1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통일·동족 관련 조항을 삭제하면서 새로운 영토 조항을 신설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김정은이 지난 1월 최고인민회의의 시정연설에서 남북관계를 ‘교전 중인 두 적대 국가 관계’로 규정하면서 직접 개헌을 지시한 지 9개월 만이다. 이번 개헌의 핵심은 ▷통일·동족 개념 삭제 ▷영토 조항 신설 ▷전쟁 시 영토 편입 규정 신설 ▷제1적대국 교육 추가 등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정영교·이근평 기자

15일 국내 출시 앞둔 위고비 식약처 “비만환자만 사용을”

“두통·구토·설사·변비 등 부작용”
한달기준 80만원 환자부담 예상

‘굶의 다이어트 약’으로 주목받는 비만 치료제 ‘위고비’의 국내 출시를 앞두고 7일 식약품안전처(식약처)가 “비만에 해당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허가된 용법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고비는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한 비만 치료 주사제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 유명 인사들의 체중 관리 비결로 알려지며 세계적으로 품귀 현상을 빚기도 했다. 한국에서도 물량 부족 등을 이유로 공급이 미뤄지다 1년6개월 만인 이달 15일 출시를 확정 지었다. 위고비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체내

호르몬인 GLP(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과 유사하게 작용해, 음식을 먹지 않아도 포만감을 느끼게 만든다. 위고비의 국내 공급 가격은 37만2025원(4주분 기준)으로 책정됐는데, 유통 비용과 진료비 등을 포함하면 환자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80만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고비의 처방 대

상은 ▷초기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나 ▷BMI가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이면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제2형 당뇨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로 권고된다.

부작용 역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고비의 임상시험 결과, 두통·구토·설사·변비나 담석증·모발손



세계적 품귀 현상을 빚은 비만치료제 ‘위고비’. 이달 15일 국내 출시된다. [로이터=연합뉴스]

실, 심한 경우 급성 췌장염 등의 부작용이 따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수현 기자



한글 매력에 빠진 외국인 유학생 한글날을 이틀 앞둔 7일 대구 계명대 성서캠퍼스에서 한 외국 유학생이 ‘한글 이름 꾸미기 대회’에 출품한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뉴스1]

행인 칠 뻔한 문다혜, 12분간 130m 더 음주운전

(문 전 대통령 딸)

깜빡이 안켜고 차선 바꾸다 사고 CCTV에 걸지자 걷는 모습 담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사진)씨가 지난 5일 음주운전을 하면서 방향지시등(깜빡이)을 켜지 않고 갑자기 차선을 바꾸다가 택시와 접촉사고를 내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담겼다. 지난 5일 음주운전 사고현장 인근 CCTV 화면을 종합해 보면 문씨는 이날 오전 2시 42분쯤 동승자 없이 녹색 캐스퍼를 타고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 이태원역 삼거리 우회전(2차로) 차로에서 좌측 깜빡이를 켜 채 녹사평역 방면으로 좌

회전했다. 옆 1차로엔 좌회전을 하려는 차들이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후 문씨 차량은 깜빡이를 켜지 않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차로를 바꾼다. 결국 오전 2시 43분쯤 옆 차선에 있던 검은색 택시 승용차와 부딪혔고, 택시 기사는 오전 2시 51분쯤 차대 차사고로 경찰에 신고했다. 택시기사는 목이 빠진 정도의 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사고 20분쯤 앞서 문씨가 오전 2시 21분쯤 사고 현장 인근 골목길에 주차된 차로 걸지자로 걸어오는 모습도 CCTV에 잡혔다. 약 10분 뒤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문씨의 차량은 골목길 한 술집 앞에서 있던 행인들과 아슬

아슬하게 부딪힐 뻔하기도 했다. 이후 약 130m 떨어진 사고 지점까지 12분간 운전하다가 일어난 사고인 것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임의동행으로 문씨와 함께 인근 파출소로 향했다. 문씨가 굶똥 걸음으로 걷다가 부추하는 경찰관의 팔을 뿌리치고 잠시 얘기를 하는 듯한 모습도 CCTV에 담겼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문씨 측과 출석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다.

문씨 차량은 지난 4월까지 문 전 대통령이 소유했다가 문씨에게 양도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8월엔 제주 한 경찰서가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압류 차량으로 등록했지만, 실제 압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김서원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고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전문가)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몸과 마음이 불편하신 어르신 모십니다!



“정성과 돌봄이
다릅니다.
직접 확인해
보세요”

- 양질의 한식과 간식
- 한국 TV 시청 가능
- 최고의 시설 (1인/1실)
- 청결하고 쾌적한 환경
- INOVA 병원 5분 거리

문의 **703-980-9890**

윤 대통령, 38년 전 멈춘 필리핀 바탄 원전 재건 길 뚫었다

한·필리핀 전략적 동반자관계 수립 원전 재건설 타당성 조사 MOU 체결 20억 달러 인프라 등 전방위 협력



윤석열 대통령과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7일 오전(현지시간) 마닐라 말라카냥 대통령궁에서 열린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 체결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황주호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윤 대통령, 마르코스 대통령, 라파엘 로틸리아 에너지부 장관. [연합뉴스]

원조받던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국민방문은 이 문장 하나로 요약된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 방문 이틀 차인 7일 마닐라 말라카냥 궁에서 열린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수교 75주년을 맞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고 한국 정부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 달러가량을 필리핀 인프라 사업에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EDCF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정부의 저금리 공적개발원조(ODA) 기금이다.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미국과 영국에 이어 가장 많은 병력(7420명)을 파병했다. 전쟁의 참화를 딛고 일어난

한국이 과거 필리핀에 진 신세를 정부의 대규모 공적 원조로 갚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 뒤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공동언론발표에서 "필리핀은 6·25 전쟁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여 대

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함께 싸운 고마운 나라"라며 "양국 정부는 라구나 호수 순환도로와 PGN 해상교량 건설 사업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 사업들을 한국의 EDCF를 활용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두 사업은 지원 규모가 각각 10억불 상당으로 EDCF 사업 기준 역대 1, 2위의 대형 개발협력 사업이며 우리 기업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두 정상은 또한 필리핀의 군 현대화 3단계 산업에 한국 방산 기업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고, 1986년 체르노빌 사태 이후 건설이 중단됐던 필리핀 바탄 원전 재개 타당성 조사 MOU를 체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바탄에 인력을 파견해 원전 재개 필요성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중동과 유럽에 이어 동남아 원전 진출에도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외에도 양 정상은 지난해 9월 양국이 서명한 한·필리핀 자유무역협정(FTA)을 조속히 발효하고, 최근 한국에 파견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등 고용 협력 확대를 이어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북핵·남중국해 문제 등 지역·국제 안보 현안에 대해서도 논의했

다. 윤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서 "마르코스 대통령님과 저는 북한의 핵 개발과 무모한 도발, 불법적인 라·북 군사 협력을 국제사회가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임을 재확인했다"며 "양 정상은 역내 핵심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의 평화·안정·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공감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마르코스 대통령과 양국 정·재계 인사 300여명이 참석한 한·필리핀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했다. 윤 대통령은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한국과 필리핀이 함께 준비해 나가자 한다"며 "필리핀에서도 '팀 코리아'가 최고의 원전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필리핀 스타와의 서면 인터뷰에선 "한·필리핀 FTA가 발효되면 무역과 투자가 획기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마닐라=박태인 기자

경찰 불송치한 임성근, 검찰이 피의자 적시하고 압수수색

(전 해병대 1사단장)

검찰, 채상병 유족 이의신청에 수사 공수처도 압색, 임 포렌식 자료 확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7일 임성근(사진)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던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검 채상병 순직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임 전 사단장과 채상병 소속 부대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대구지검은 이날 오후 1시쯤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이 중령 사무실을 찾아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업무수첩 등 증거 7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중령 외에도 임 전 사단장 등 해병대 관계자 여러 명이 피의자로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지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상대로도 압수수색을 진행해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등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한 후 검찰이 공수처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작권남용 등의 혐의로 약 1년간 임 전 사단장을 수사했지만 지난 7월 '채상병 사망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

는다"며 임 전 사단장과 포7대대 정보과장, 통신부소대장 등 3명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7여단장 등 해병대 제1사단 현장지휘관 6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경찰 수사에 불복,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분류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김정석 기자

유리지갑 터는 '낮은 과표' ... 근로소득세 매년 9.6% 늘었다

연봉 8800만원만 넘어도 세율 35% 2008년 정한 과세표준 그대로 사용 소수만 내던 고세율 웬만하면 해당 '과표 소득구간 물가연동제 도입을'

과표 기준을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불어난다. 매년 물가와 함께 임금도 일정 수준 따라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리 지갑' 월급쟁이 세금을 손쉽게 털어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소득세는 기존 과표를 그대로 두는 것만으로 세금이 불어나는 '그림자 조세'"라고 지적했다.

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득세율 35%는 과세표준 8800만원 초과분부터 적용한다. 2008년부터 유지해왔다. 16년간 물가상승률(연평균 2.3%)을 고려하면 35% 세율은 현재 약 1억2000만원 초과분에 적용해야 한다. 직장인 박모(41)씨는 "월급 오른 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세금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고 말했다.

올해 연봉으로 1억1000만원을 받는 직장인 김모(42)씨. 4인 가족 홀벌이 김씨의 경우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원천징수로 내고 월 실수령액 700만원 정도를 받는다. 올해부터 과세표준(근로소득에서 소득·세액공제를 뺀 금액) 8800만원을 넘는 연봉에 대해 소득세 35%를 내야 한다. 김씨는 "세금이 늘어 연봉 9000만원일 때와 비교해 월 100만원 정도 오르는 데 그쳤다"며 "15년 전 입사할 때는 역대 연봉을 받으면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는데, 세금으로 푹 빠져가니 허탈하다"고 말했다. 급여 소득자가 매달 내는 소득세는

소득세는 돈을 많이 벌수록 더 많이 내는 누진세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은 8단계다. 6~45%의 소득 세율을 적용한다. 소득 1400만원 이하에 가장 낮은 6%, 소득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에 24%, 소득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에 35%, 소득 10억원 초과에 45% 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식이다. '경계선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확 늘어나는 구조다. 문제는 경계선이 시대 흐름에 뒤쳐

경제학에서는 이를 '재정경인(財政牽引·fiscal drag)'이라는 말로 설명한다. 쉽게 말해 물가 상승이 납세자를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견인'해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플레이션율보다 낮게 조세구간을 올리는 것은 조용히(by stealth) 실제 세금을 올리는 정치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2023 'Taxing Wages' 보고서)이라고 했다. OECD는 다양한 세액공제를 적

더디게 바뀌는 과세표준 자료: 국세청
* = 근로소득·각종 소득공제+소득공제 한도 초과액

종합소득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84만원+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24만원+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1536만원+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706만원+ 1억5000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9406만원+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억7406만원+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억8406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용받는 저소득 가구가 재정경인에 특히 취약하다고 분석했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국세가 연평균 4.9%

증가하는 동안 근로소득세는 연평균 9.6% 늘었다"며 "가계 소득 증가 속도에 견줘도 소득세가 가파르게 오른 만큼, 세 부담 증가 속도 조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 과세표준이나 각종 공제제도를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OECD 회원국 38곳 중 22곳이 이미 도입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고소득층부터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 부담스럽다. 세수를 더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반대한다. 근로소득자 중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면세자 비율이 33.6%(2022년 기준)에 달한다는 점도 물가연동제 추진의 걸림돌이다.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면 과세표준이 올라 면세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안창남 교수는 "각종 비과세·감면 제도를 정비하고 소득세 감면을 받아도 '최저한 세'를 적용하는 등 소득세법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GALAXY REALTY

★ 2024 여름 마켓에 울리지 않고 주인·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매매 / 렌트	금액	설명	주소	기간	세입자	
★ 주택	McLean, VA	\$900,000	현재 3년 렌트 (\$4,250) 렌트 끼고 살 투자자. 매달 25일경 기관에서 다음 달 렌트비를 주인 통장으로 바로 입금함	8*03 Fallstaff Rd, McLean, VA	1년	Non Korean
	Fairfax, VA	\$3,500	Mantua ES, Frost MS, Woodson HS 권 싱글하우스 렌트. 부엌, 화장실 upgrade 된 집, 10월 1일 입주 가능	82* Wakefield Dr, Arlington, VA	3년	주재원
★ 사업체	델리샵 (DC)	\$150K	DC 내 좋은 위치. 장사 잘 되는 곳이나 은퇴 예정. 사업 운영하면서 투자용 집, 두 자녀 집 살 때 다음 페이먼트 지원할 정도로 안정된 수입	822*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on Korean
	세탁소 (MD)	\$300K	MD, 코로나 때 주변 세탁소 문 닫아 장사가 더 잘되는 세탁소	1*11 Fallbrook Ln, Vienna, VA	2년	주재원
				1*02 Abbey Way, McLean, VA	3년	교민
				22*3 N Underwood, Falls Church, VA	2년	교민
				7*32 Old Dominion Dr, McLean, VA	2+1년	국제기구
				1*89 Dawson St, Vienna, VA	2년	교민
				2*02 Scotch Haven Dr, Vienna, VA	2년	주재원
				7*37 Backett Wood Ter, McLean, VA	3년	주재원
				1*40 Kensington Rd, McLean, VA	1년	주재원
				7*51 Tremayne Pl, McLean, VA	1+1년	
				411* 11th St, Arlington, VA	2년	주재원
				1*33 Colonial Hills Dr, McLean, VA	3년	국제기구
				2*69 Oakborough Sq, Oakton, VA	18개월	주재원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그 외 30여채 더 있음

SELFOTO
STUDIOS

나만의 사진관

가을 특선 9월 한달 동안

사진 5' X7' 인쇄 무료 & 촬영시간 10분 추가 서비스!!!

여권 사진 | 가족 사진 | 커플 사진 | 반려 동물 사진 | 영정 사진 | 아기 사진 | 기념일 사진

예약 문자 / 전화: 703-400-7099

14260M Centreville Square, Centreville, VA 20121

추억만들기!!!

나만의 맞춤형 사진관을 경험해보세요!

인생 샷 찍어보세요!

온라인 예약
www.Selfotostudios.com

우리말 바꾸기

‘마춤’? ‘맞춤’?

요즘은 어디에서든 쉽게 기성복을 구매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결혼식이나 졸업식, 회사 입사 등 중요한 일을 앞두고 양복집에 가서 양복이나 양장을 맞춰 입어야 했다. 이처럼 일정한 규격의 물건을 만들도록 미리 주문하는 것을 지칭할 때 ‘마춤’과 ‘맞춤’이 혼용되곤 했다.

“아버지는 결혼식 때 입으셨던 맞춤 양복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신다” “졸업식 때 입은 맞춤 양복의 모양과 색깔이 아직도 기억난다” 등과 같이 ‘마춤’과 ‘맞춤’이 혼용되고 있다. 정답은 ‘마춤’을 활용한 ‘마춤’이 아니라 ‘맞춤’을 활용한 ‘맞춤’이다. ‘맞춤 양복’ ‘맞춤 양장’ ‘맞춤 옷’은 모두 ‘맞춤’을 활용한 ‘맞춤 양복’ ‘맞춤 양장’ ‘맞춤 옷’으로 고쳐야 한다. 옷뿐 아니라 구두나 안경, 컴퓨터 등도 그렇다. “구두를 마춤다” “안경을 마춤러 간다” “컴퓨터를 새로 마춤다” 역시 “구두를 맞춤다” “안경을 맞춤러 간다” “컴퓨터를 새로 맞춤다”고 해야 한다.

요구하거나 생각한 대로 잘된 물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인 ‘안성맞춤’도 마찬가지다. ‘안성맞춤 한우’ ‘안성맞춤 막걸리’ ‘안성맞춤 갤럭시’ 등과 같이 상표나 상호로 ‘마춤’ 표현을 쓰는 곳이 있다 보니 이를 따라 ‘안성마춤’으로 적기 십상이다. 그러나 이 역시 ‘안성맞춤’이 맞는 말이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는 긴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편집국장 박세용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제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기고

우주선 스타라이너 착륙과 복구



손국락
보잉사 시스템공학 박사
라빈대 겸임교수

지난 9월 7일, 보잉사의 우주선 ‘스타라이너(Starliner)’가 우주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구로 귀환했다. 스타라이너는 60여명의 ‘착륙과 복구팀’이 열렬히 환영하는 가운데 뉴멕시코 주의 화이트 샌즈 스페이스 허버에 무사히 착륙했다.

우주여행의 화려한 조명은 대부분 우주 비행사들이 받는다. 우주 정거장에서의 일상, 지구와의 교신, 과학 실험, 또는 우주 유영 등 지구에서 경험할 수 없는 장면이 일반인에게 소개된다. 하지만 우주 비행사들의 화려한 무대 뒤에는 수많은 지원팀의 숨은 노고가 있다. 이번 비행 임무에도 8개로 구성된 ‘착륙과 복구팀’은 사막에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스타라이너의 착륙을 기다렸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최대한 발휘 임무를 완수했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수행한 8개 팀을 간략히 소개하면, 첫 번째가 ‘블랙 커맨드팀(Black Command Team)’이다. 전반적인 착륙 과정과 복구작업을 총괄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비한 절차와 훈련을 주도했다.

두 번째 ‘퍼플팀(Purple Team)’은 우주선이 지구로 귀환하는 과정의 데이터와 영상 정보를 추적하여 휴스턴과 케네디 우주 센터의 중앙 관제소와 교신하는 역할을 했다. 세 번째 ‘골드팀(Gold Team)’은 위험 물질 보호복을 입고 제일 먼저 착륙한 우주선에 접근해 유독성 증기의 유

무를 확인했다. 이들은 소방, 환경, 건강, 안전 전문가들로 착륙과 복구팀원들은 골드팀의 판단과 결정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했다.

네 번째 ‘실버팀(Silver Team)’은 골드팀이 안전하다고 판단하면 위험 물질 보호복을 입고 우주선으로부터 정전기를 방출하고 낙하산을 옮긴 후, 모래 위에 착륙한 우주선을 안전하게 세우는 작업을 했다. 특히, 실버팀원들은 낙하산 디자인, 제조, 실험 및 복구 전문가들이었다.

다섯 번째 ‘그린팀(Green Team)’은 골드팀과 실버팀이 작업을 마치면 안전한 거리에서 시간을 측정했다. 그린팀에게 주어진 시간은 우주선 착륙부터 지상 냉각기 연결까지 단 30초였다. 왜냐하면 이 30초가 우주선의 항공 전자 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주선의 해치가 열리면 그린팀은 선실 내의 습도를 제거한 후 내부 공기를 정화하는 작업을 했다.

여섯 번째 ‘레드팀(Red Team)’은 착륙과 복구팀원들, 그리고 비행사들의 메디컬 모니터링과 돌보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우주선의 해치를 열

고 화물 장비를 옮기는 작업과 국제 우주 정거장에서 NASA(항공우주국)로 보내는 분초를 다투는 화물 장비를 돌보는 작업을 했다. 레드팀은 의사, 건강 관리자, 소방대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주선 착륙과 복구 현장의 ‘응급실’로 불린다.

일곱 번째 ‘블루팀(Blue Team)’은 보잉사 커뮤니케이션팀과 NASA의 홍보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스타라이너의 착륙 과정을 일반인에게 생중계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생중계되는 이 영상은 미션팀에게 전반적인 상황 인식과 효과성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줬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오렌지팀(Orange Team)’은 우주선을 플로리다에 있는 케네디 우주 센터로 옮기는 운송을 담당했으며, 한 명은 우주선에 머물면서 최적의 온도 유지를 통해 캡슐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오렌지팀은 레드팀과 함께 우주선이 하강하면서 버린 부품들을 수거해 케네디 우주 센터로 보냈다.

이번 임무에도 많은 팀원의 희생과 노고가 숨겨진 사실을 알게 된다. 시스템의 신용도처럼, 모든 팀원이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할 때 놀라운 성과를 올릴 뿐 아니라 최고의 신용도를 얻을 수 있다. 하지만 한 명의 팀원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전체 시스템의 신용도는 그 팀원의 수준으로 전락하게 마련이다. 이것이 구성 요소와 시스템과의 밀접한 관계성이다.

열린광장

한국말은 까다로운가?



윤경중
연세목회자회 중경회장

“교수님! 한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글인 것 같은데 왜 한국말은 까다로운지 잘 모르겠어요.” “글쎄요.”

연세대학교에 다닐 때, 한글 맞춤법의 권위자였던 고 최현배 교수에게 한 질문과 그에 대한 최 교수님의 답이 어렵풋하게 떠오른다.

한글은 두말할 것 없이 세계 최고의 글자다. 웬만한 소리는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우수한 글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별로 높지 않은 것 같다. 아마도 글자 때문이 아니라 까다로운 한국말 때문이 아닐까 싶다.

첫째, 한국말은 말 자체가 무척 까다롭다. 높임말이 있고, 받침이 있는 낱말과 없는 낱말이 있고, 같은 글자도 띄어 쓰거나 붙여 쓰는 경우가 있다.

둘째, 한국말을 연구하는 학자들 탓도 있다고 생각한다. 오래전 최 교수님의 “글쎄요”란 답변의 의미가 무엇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한국어 학자들은 낱말을 더 쉽게 쓸 수 있도록 연구

하는 것보다 낱말의 ‘유래나 과학적 구조’ 분석에 더 집중하는 것 같다. 그러다 보니 한국어 낱말의 말본이 너무 까다로워 낱말의 옳고 그름이나 맞춤법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은 별 관심을 두지 않는다.

나는 장교로 복무하며 군 교육기관에서 대한민국 헌법을 강의했고, 예편한 뒤에는 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강의했다. 20여 년 동안 목회를 하며 설교문을 썼고 책도 두 권 펴냈다. 그리고 요즘도 글을 쓰고 있지만 “어! 이게 맞는 말인가?” 할 때가 종종 있다. 맞춤법에 맞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과거 공부했던 것과 달라진 것도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한국 기사의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 ‘엣 프 독’이란 낱말이 눈에 띄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소리가 하고 내용을 읽어 봤더니 ‘영국과 프랑스, 독일’ 세 나라를 줄여 이렇게 쓴 것이었다. 우리는 외국어 표기법에 따라 프랑스라고 쓰지만 과거 프랑스 친구가 내게 한 말이 생각났다. 그 친구는 “불어에는 프랑스란 낱말이 없다”는 것이었다.

한인들 모임에 가면 자주 듣는 것이 ‘파이팅’이라는 말이다. 아마 영어의 ‘fight’에서 유래한 말인 것 같다. 하지만 왜 하필이면 이런 말을 빌려다가 용기를 북돋워 준다는 말인가!

우리 한국말엔 훌륭한 격려의 말이 있지 않은가. 그것은 바로 “아자!”다. 파이팅에 비할 수 없는 아주 멋진 말이다.

끝으로 우리말로만 된 재미있는 글을 하나 소개한다. ‘넓은 들에 있는 콩밭의 콩들을 잘 훑은 뒤 집에 파 놓은 팔과 버무려 죽을 쑤어 훑아보니 그 맛이 기막하다. 이게 콩죽이나 팔죽이냐?’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집 파실 분 - 셀러 스페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최고가 판매 전문 노하우

1. 집값 - 셀러레포트
2. 홈 인스펙션/Class A Contractor
3. 지붕, 거리, 인스펙션
4. 히팅/에어컨 인스펙션
5. 터미이트 검사
6. 홈워런티
7. 현재 소유 보험 리뷰
8. 크레딧 리뷰, 관리 방법

모든 비즈니스 장소
찾아드릴 (매매/리스)

태권도장, 그루밍, 식당, 치킨, 베이커리, 당구장, 바버, 델리, 요거트, 카페, 병원, 치과

센터빌 미용실 \$90,000

① 프로협상전문가 ② 공격적 마케팅전문가 ③ 24/7 언제나 연락가능 ④ 신속 정확한 일 처리
⑤ 대기 셀러/바이어 다수 보유 ⑥ 클로징 후 철저한 지속 관리

부동산 전문 브로커 **황계실 571-239-6054**
GSHwang Realty

메디케어

변경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오바마 헬스케어

등록기간: 11월 1일 ~ 1월 15일

“개인보험, 그룹보험 플랜변경 및 새로 등록도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



사업체보험



집보험



생명보험

19년의 경험으로 여러분과 함께한 KWAK & CHANG FINANCIAL INC.

에이전트 모집

건강보험 (치과, Vision), 401K, Pension 제공
경험없으신 분 환영, 라이선스 도와드립니다.



대표 **곽민우**

“언제나 고객과 함께 하겠습니다”

곽민우 종합보험

KWAK & CHANG FINANCIAL INC.

Office : 703-750-2205, 2206

Fax : 703-750-2207

Email : kcfinancial.info@gmail.com

7369 McWhorter Pl. #420, Annandale, VA 22003



31년 연속 고객만족 1등 여행사
탑여행사 TOP TRAVEL
 서비스도 TOP 고객만족도 TOP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toptravelusa.com

센터빌 13880 Braddock Road #103, Centreville, VA
 703.543.2322 • 855.870.1235
애난데일 7023 Little River Tpke, #208, Annandale, VA
 703.256.0606 • 800.551.9373
엘리콧시티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4, Ellicott City, MD
 410.480.0100 • 800.564.4429

최우수한국항공권 소매, 도매 직판점
KOREAN AIR DELTA
유심칩 판매 한국방문시 로밍 걱정없!
 최저가 유심/데이터 전화, 문자 무제한!
항공권+유심칩 동시 구매하시면 할인 해드립니다

원더풀투어는 탑여행사의 전문인솔자가 모시고 떠나는 업그레이드된 항공 여행입니다.

남부 카리브해 크루즈
 볼티모어 출발
 12박13일
 12/7~12/19
\$1390부터 (인사이드)

원더풀투어 Wonderful TOUR
 탑여행사 전문 에이전트에게 직접 문의하세요!
703.663.8534
 레나 고 윤태웅

Wonderful TOUR
 2024~25 Yearly Schedule

12월 이태리 일주
 밀라노-베니스-볼로냐-피렌체 로마-나폴리, 폼페이, 소렌토
 *크리스마스 특선
 6박 7일 12/23~12/29
\$2,390 +항공

3월 남미 일주 (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3/17~3/29/25
\$5,490 +항공

4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 발칸
 13박14일 4/30~5/13/25
\$4,590 +항공

1/14~1/24 파타고니아 10박11일 \$6790+항공
 1/28~2/09 신비의 인도 12박13일 \$3390+항공
 2/04~2/08 코스타리카 4박5일 \$1990(항공포함)
 2/12~2/23 호주 & 뉴질랜드 11박12일 \$3790+항공
 2/17~2/26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10일 \$3590+항공
 2/20~3/05 아프리카 & 두바이 13박14일 \$9850+항공

2025 1월 파타고니아
 남극과 가장 가까운 '지구의 끝' 천국과 우주가 공존하는 여행자들의 지상낙원
 10박11일 1/14~1/24/25
\$6,790 +항공

3월 브라질 아르헨티나
 7박 8일 3/17~3/24/25
\$3,190 +항공

5월 그리스 & 튀르키예
 *산토리니 옵션
 10박11일 5/6~5/16/25
\$2,990 +항공

3/17~3/29 남미 일주(브라질/아르헨티나/페루) 12박13일 \$5490+항공
 3/17~3/24 브라질/아르헨티나 7박8일 \$3190+항공
 3/23~3/29 페루 일주 6박7일 \$2990+항공
 3/25~4/04 고품격 고국일주 1차 10박11일 \$2990+항공
 3/27~4/05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10일 \$3990+항공

1월 신비의 인도
 인도의 수도 델리, 타지마할의 아그라, 핑크시티 자이푸르, 파테푸르시크리
 12박13일 1/28~2/9/25
\$3,390 +항공

3월 일본 벚꽃축제 & 맛기행
 9박 10일 3/27~4/5/25
\$3,990 +항공

5월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5/13~5/23/25
\$3,390 +항공

5/06~5/16 그리스 & 튀르키예 10박11일 \$2990+항공
 5/07~5/13 발칸 크로아티아 6박7일 \$2990+항공
 5/13~5/23 스페인 & 포르투갈 10박11일 \$3390+항공
 5/20~5/30 정통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5/23~5/26 메모리얼 특선 엘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2월 이집트 나일강 크루즈
 9박 10일 2/17~2/26/25
\$3,590 +항공

4월 남프랑스
 수세기 역사를 보유했으며 문화와 예술의 나라로 불리는 프랑스의 도시를 한번에 둘러보는 여행
 *봄방학 특선
 6박 7일 4/14~4/20/25
\$2,990 +항공

6월 아이슬란드
 지구상의 최북단 청정지역 아이슬란드 빙하, 화산, 온천이 함께 어우러져 있어 새로운 경험이 되실 겁니다.
 8박 9일 6/3~6/11/25
\$5,690 +항공

6/03~6/11 아이슬란드 일주 8박9일 \$5690+항공
 6/10~6/18 스위스 알프스 일주 8박9일 \$4590+항공
 6/17~6/27 고품격 고국일주 3차(영) 10박11일 \$2990+항공
 6/18~6/29 영국일주 11박12일 \$5890+항공
 6/24~7/04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6/30~7/05 독립기념일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1690+항공

2월 아프리카 & 두바이
 13박14일 2/20~3/5/25
\$9,850 +항공

4월 정통 동유럽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등 특급 동유럽 관광은 유럽의 또 하나의 역사와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상품입니다.
\$3,390 +항공

6월 스위스 알프스
 취리히를 시작으로 바젤-사프하우젠 등 스위스 일주를 한번에~
 8박 9일 6/10~6/18/25
\$4,590 +항공

7/01~7/04 독립기념일 특선 엘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7/08~7/18 여름방학 특선 서유럽 10박11일 \$3590+항공
 8/05~8/15 북유럽 4개국 10박11일 \$5290+항공
 8/11~8/16 여름방학 특선 캐나다 록키 5박6일 \$1690+항공
 8/29~9/01 알래스카 일주 6박7일 \$2090+항공
 8/29~9/01 노동절 특선 엘로스톤 3박4일 \$1290+항공

한국관광공사 VISIT KOREA YEAR 2024 항공권, 고국관광, 건강검진, 출국전 준비까지 **한국방문의 모든것!**

고품격 고국일주 10박 11일 \$2990+항공
 4차 10/15~10/25 마감
 5차 10/22~11/1 마감
 6차 10/29~11/8

특선
 1. 워싱턴 최초 디럭스 28인승 리무진 우등 버스
 2. 모든 옵션 포함
 3. 최고급 호텔 숙박 (호텔을 꼭 비교해 보세요!)
 4. 고객 입맛을 고려하여 특별히 엄선한 업그레이드된 식사

동남아 여행
 방콕/파타고니아 \$590+항공
 푸켓 \$599+항공
 하노이/하롱베이 \$590+항공
 대만 \$499+항공
 대만 \$690+항공
 싱가포르 \$790+항공

고국건강검진
 세브란스(기본검진) 한국국적 \$555/외국 \$595
 미국국적 \$720/외국 \$770
 경희대병원(특화검진) 남/여 \$610
 삼성서울병원(기본검진) 남/여 100만원/여 113만원
 한양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연세대학교(기본검진) 남/여 \$460

일본 여행
 동경 \$999+항공
 오사카 \$999+항공
 일본완원일주 \$2690+항공

서남권 3박 4일 \$899+항공 매주 일
동해권 4박 5일 \$999+항공 매주 금
서남+제주 5박 6일 \$1499+항공 매주 수
전국일주 9박 10일 \$2149+항공 매주 일

성극 대니얼 +애쉬마켓 당일
 10/17, 11/14, 12/12 \$199

크리스마스 특선 라디오시티 로켓쇼
 일년에 단 한 시즌만 공연하는 미국 최고의 크리스마스 공연 라디오시티 스펙타클러 쇼 관람
 12/23~24 1박 2일 \$499

가을 단풍 여행
 3박 4일 천심/몽트랑블랑 10/14 \$950
 4일 몽트리올/퀘벡
 당일 여행 컴버랜드 기차여행 10/17, 21, 25, 26 \$159 단체여행 환영

동부관광 탑여행사 가이드가 직접 행사합니다!
미동부 뉴욕·천심 나이아가라
 나이아가라/토론토 천심/몬트리올/퀘벡 플래츠버그/뉴욕
 매주 일출발 3박 4일 \$899
 5박 6일 \$1350
 대형버스출발: 10/14, 10/28

뉴욕 나이아가라 동부 명호 해관 발송
 나이아가라폭포 옆 호텔 숙박
 매주 일출발 2박 3일 \$650
뉴욕 1박 2일 \$399
 워싱턴디씨 \$100
 루레이동굴 \$125
 DC런치크루즈 \$169(중주) \$199(주말)

서부관광
미서부 일주
 서부의 주요 도시와 3대 캐년까지 일주 여행
 일출발 8박 9일 \$1500+항공

서부 4대 캐년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5대 캐년+세도나 6박 7일 \$1300+항공 일출발
요세미티 샌프란시스코 5박 6일 \$990+항공 일출발
알래스카 6박 7일 \$1550+항공 일출발
엘로스톤 3박 4일 \$930+항공 일출발
캐나다 록키 4박 5일 \$1190+항공

해외여행은 출발 2개월전, 국내여행은 출발 3주전 결재하는 워싱턴 출발 요금이며, 모든 패키지 요금은 2인 1실 기준입니다. 상기 모든 내용은 사전 통보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이나 취소는 책임이 없으며, 상품은 조기 매진될 수 있습니다.

곽태우 변호사
K Law Firm, PLLC
이민 / 부동산 매매 (1031 Exchange)
비즈니스 매매 / 리스
리빙트러스트 / 이혼 / 유언장
T. 703.712.7151
T. 571.405.6540

교육 & 연예/문화 Sports

JoongAng Ilbo

Tuesday, October 8, 2024

냉·난방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의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후를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Implant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한미간호학교
Hanmi Nursing School
한미 간호 학교는 미주 지역에서
유일하게 미중언어로 CNA
교육과정을 제공 하고 있습니다.
t.(703)303-4556 / t.(703)303-0988
www.Hanminursingschool.com

프린스턴 '부동의 1위' ... 주립대들은 크게 부진

US뉴스 '미국 전국대학' 순위

US뉴스&월드리포트의 '베스트칼리지' 순위가 입시철을 앞두고 발표됐다. 미국의 대학 순위는 언론기관인 US뉴스&월드리포트 등에 의해서 집계되고 있다. 가장 오래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순위는 바로 US뉴스의 대학랭킹이다. US뉴스가 지난 달 23일 발표한 2025년 '미국 전국대학(National University)' 순위를 알아봤다.

버클리, 아우 UCLA에 역전 당해
UC막내 신생 '머시드' 상승세 지속

올해 집계 변화

US뉴스는 올해도 변화를 의도했다. 전국 대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방법론적 변화는 1세대 학생의 6년제 학사 졸업률을 순위 산정요소에서 제거하고, 펠그랜트 학생 졸업에 대한 두 가지 지표의 가중치를 높여 다른 순위 범주의 가중치와 일치시켰다.

상위 10개 전국대학은 약간의 변동 을 제외하고는 상대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유펜이 4단계나 떨어졌다. 지난해 톱10안에 있던 브라운대가 역시 4단계 떨어졌다. 반면 존스홉킨스와 노스웨스턴이 3단계씩 올라서는 반전을 일으켰다.

특히 주립대학들이 올해는 크게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 UC데이비스, UC샌타바버라, 위스컨신주립 매디슨, 퍼듀, 워싱턴 주립, 캔사스 주립, 델라웨어주립, 아이오와 주립 등이 적게는 4단계 많게는 12단계까지 떨어졌다.

도약한 대학도 눈에 띄었다. 빌라노바, 톨레인대, 클렘슨대, 드렉셀대, 하워드대,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 로체스터대, 아메리칸대 등이 도약했다. 특히 흑인대학인 하워드대는 29계단, 플로리다인터내셔널대는 26단계나 올랐다.

(2면 표참고)

2025년 순위

아이비리그 프린스턴이 14년 연속으로 전국 대학 순위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2위 MIT, 3위 하버드는 자리를



지켰지만 지난해 공동3위였던 스탠퍼드는 4위가 됐다. 5위 예일은 그 자리를 지켰다. 반면 켈텍, 듀크가 1단계씩 올라서 존스홉킨스, 노스웨스턴과 함께 공동 6위가 됐다. 코넬과 시카고대가 10위권 밖이지만 1단계씩 올라서 공동 11위를 차지했다.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주립대학의 공동 선두 UC버클리와 UCLA가 보여줬다. 재작년 공동 20위였던 두 대학은 지난해 공동 15위였다. 하지만 올해는 UCLA가 15위, UC버클리가 17위가 되면서 동문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버클리 대신 다투머스가 공동 15위가 됐고 지난해 17위 라이스가 노테데임, 밴더빌트와 공동18위를 차지했다. 이들 대학은 대부분 순위를 지켜냈다.

이들 뒤를 미시간 앤아버, 워싱턴세인트루이스(공동 21), 조지타운, 버지니아 주립, 예모리(공동24위)의 경우도 지켜낸 경우다.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은 USC와 함께 공동 27위다.

이들 뒤를 미시간 앤아버, 워싱턴세인트루이스(공동 21), 조지타운, 버지니아 주립, 예모리(공동24위)의 경우도 지켜낸 경우다.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은 USC와 함께 공동 27위다.

이들 뒤를 미시간 앤아버, 워싱턴세인트루이스(공동 21), 조지타운, 버지니아 주립, 예모리(공동24위)의 경우도 지켜낸 경우다.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은 USC와 함께 공동 27위다.

이들 뒤를 미시간 앤아버, 워싱턴세인트루이스(공동 21), 조지타운, 버지니아 주립, 예모리(공동24위)의 경우도 지켜낸 경우다.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은 USC와 함께 공동 27위다.

이들 뒤를 미시간 앤아버, 워싱턴세인트루이스(공동 21), 조지타운, 버지니아 주립, 예모리(공동24위)의 경우도 지켜낸 경우다.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은 USC와 함께 공동 27위다.

이들 뒤를 미시간 앤아버, 워싱턴세인트루이스(공동 21), 조지타운, 버지니아 주립, 예모리(공동24위)의 경우도 지켜낸 경우다. 노스캐롤라이나 채플힐은 USC와 함께 공동 27위다.

장병희 기자

공인회계사 김서규 CPA
703.914.0085
7535 Little River Tnpk., #310-B Annandale, 22003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나투라 치과
구강교육치과
dental implants
bright smile
703-652-4265

JJL Contractor Inc.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교통사고 |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 할지도 모르겠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고자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 **410-480-0083**

2025 순위	대학명	소재지	공사립	전년 순위	순위 변화	졸업시 연방 융자 중간값	학생대교직원비율	ACT/SAT 중위50%점수	ACT 제출율	SAT 제출율
1	프린스턴	NJ	사립	1	0	10,320	5.1	1500 1580	20%	57%
2	MIT	MA	사립	2	0	14,768	3.1	1510 1580	31%	83%
3	하버드	MA	사립	3	0	14,000	7.2	1500 1580	22%	52%
4	스탠퍼드	CA	사립	3	-1	12,000	6.2	1510 1580	22%	47%
5	예일	CT	사립	5	0	12,975	5.6	1500 1580	26%	56%
6	컬텍	CA	사립	7	1	N/A	3	N/A	N/A	N/A
6	듀크	NC	사립	7	1	13,000	5.1	1520 1570	30%	47%
6	존스홉킨스	MD	사립	9	3	10,250	6	1530 1580	14%	41%
6	노스웨스턴	IL	사립	9	3	15,000	6.4	1490 1580	29%	50%
10	유엔	PA	사립	6	-4	15,715	7.6	1500 1570	19%	51%
11	코넬	NY	사립	12	1	14,000	9	1480 1560	12%	37%
11	시카고대	IL	사립	12	1	15,000	5	1510 1570	30%	46%
13	브라운	RI	사립	9	-4	11,428	5.9	1500 1570	22%	54%
13	컬럼비아	NY	사립	12	-1	21,500	6	1490 1580	23%	44%
15	다트머스	NH	사립	18	3	17,500	6.2	1500 1570	24%	43%
15	UCLA	CA	공립	15	0	14,000	19.3	N/A	N/A	N/A
17	UC버클리	CA	공립	15	-2	13,000	18.7	N/A	N/A	N/A
18	라이스	TX	사립	17	-1	11,000	5.8	1500 1570	22%	50%
18	노터데이	IN	사립	20	2	19,000	8.5	33 35	29%	29%
18	벤더빌	TN	사립	18	0	14,000	7.3	34 35	26%	25%
21	카네기멜론	PA	사립	24	3	21,750	6.1	1500 1570	17%	51%
21	미시간주립 앤아버	MI	공립	21	0	19,500	15.2	1350 1530	18%	52%
21	워싱턴세인트루이스	MO	사립	24	3	17,500	7.1	1500 1570	28%	29%
24	에모리	GA	사립	24	0	18,250	8.8	1460 1550	19%	42%
24	조지타운	DC	사립	22	-2	15,500	10.9	1390 1550	34%	75%
24	버지니아주립	VA	공립	24	0	17,500	14.1	1410 1530	16%	50%
27	노스캐롤라이나채플힐	NC	공립	22	-5	14,000	14.8	30 34	34%	29%
27	USC	CA	사립	28	1	18,000	8.6	1440 1550	14%	32%
29	UC샌디에이고	CA	공립	28	-1	15,500	18.9	N/A	N/A	N/A
30	NYU	NY	사립	35	5	20,500	7.7	1480 1570	12%	27%
30	텍사스주립 오스틴	TX	공립	32	2	20,500	18.6	1310 1520	28%	83%
30	플로리다주립	FL	공립	28	-2	15,000	16.1	1300 1480	41%	79%
33	조지아텍	GA	공립	33	0	21,672	21.8	1330 1530	35%	77%
33	UC데이비스	CA	공립	28	-5	13,000	21.5	N/A	N/A	N/A
33	UC어바인	CA	공립	33	0	15,000	18.7	N/A	N/A	N/A
33	UIUC	IL	공립	35	2	19,500	20.2	1340 1530	16%	40%
37	보스턴칼리지	MA	사립	39	2	19,000	10.4	1430 1540	16%	28%
37	터프츠	MA	사립	40	3	16,250	9.6	1460 1550	18%	36%
39	UC샌타바버라	CA	공립	35	-4	13,993	17.2	N/A	N/A	N/A
39	워싱턴주립 매디슨	WA	공립	35	-4	20,484	17.8	28 32	38%	16%
41	보스턴대	MA	사립	43	2	23,250	10.4	1400 1520	10%	28%
41	렛거스 뉴브루스위크	NJ	공립	40	-1	21,500	15.2	1270 1480	5%	51%
41	오하이오 스테이트	OH	공립	43	2	19,976	15.8	29 32	35%	14%
44	메릴랜드주립 칼리지파크	MD	공립	46	2	19,000	17.2	1370 1520	8%	42%
44	로체스터	NY	사립	47	3	21,000	9.4	1400 1540	10%	26%
46	리하이	PA	사립	47	1	21,960	9.6	1350 1490	10%	33%
46	피투-메인캐퍼스	IN	공립	43	-3	19,500	13.9	1190 1470	24%	73%
46	조지아주립	GA	공립	47	1	18,500	16.9	1220 1420	47%	70%
46	워싱턴주립	WA	공립	40	-6	14,615	20.3	1260 1510	5%	14%
46	웨이코프라이스트	NC	사립	47	1	21,500	9.8	1390 1510	22%	26%
51	케이스웨스턴리저브	OH	사립	53	2	24,000	8.6	1420 1530	23%	43%
51	텍사스주립 A&M	TX	공립	47	-4	17,804	19.4	1140 1380	22%	78%
51	버지니아주립	VA	공립	47	-4	21,500	16.7	1240 1420	9%	45%
54	플로리다 스테이트	FL	공립	53	-1	18,000	16.6	1240 1390	32%	66%
54	노스이스턴	MA	사립	53	-1	24,250	15.2	1460 1550	8%	27%
54	미네소타주립 트윈시티즈	MN	공립	53	-1	19,500	16.3	27 31	34%	8%
54	올리언드 메리	VA	공립	53	-1	18,500	12.6	1365 1510	17%	45%
58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NC	공립	60	2	20,121	15.2	28 32	29%	22%
58	스토니브룩-SUNY	NY	공립	58	0	18,228	19.5	1320 1490	3%	36%
58	UC머시드	CA	공립	60	2	16,144	20.6	N/A	N/A	N/A
58	메사주립 에머스트	MA	공립	67	9	22,763	17.7	1300 1480	4%	27%
58	빌라노바	PA	사립	67	9	25,874	9.7	1400 1510	11%	25%
63	브랜디스	MA	사립	60	-3	25,648	10.2	1370 1520	12%	31%
63	조지워싱턴대	DC	사립	67	4	20,449	12.4	1350 1498	12%	30%
63	미시간주립	MI	공립	60	-3	23,250	16.8	1150 1350	7%	39%
63	샌타클라라대	CA	사립	60	-3	19,162	10.2	1340 1500	12%	25%
63	펜실베이니아 스테이트	PA	공립	60	-3	25,000	15.1	1220 1400	6%	33%
63	틀레인드	LA	사립	73	10	20,500	7.7	31 33	31%	14%
63	마이애미대	FL	사립	67	4	17,500	10.7	1330 1470	21%	32%
70	켄셀러 폴리텍	NY	사립	60	-10	23,750	15.3	1360 1520	11%	49%
70	케네디주립	CT	공립	58	-12	21,500	16.4	1210 1420	4%	37%
70	피츠버그대	PA	공립	67	-3	24,250	12.8	1270 1450	10%	40%
73	빙햄턴-SUNY	NY	공립	73	0	18,500	17.5	1320 1490	9%	47%
73	인디애나주립 블루밍턴	IN	공립	73	0	19,509	18.3	1170 1400	16%	41%
73	시라큐스대	NY	사립	67	-6	26,000	14.6	1260 1430	9%	24%
76	콜로라도스프링스	CO	공립	76	0	23,000	17.2	1320 1470	18%	42%
76	스티븐스	NJ	사립	76	0	27,000	10.3	1370 1500	8%	40%
76	버팔로주립-SUNY	NY	공립	76	0	19,000	11.2	1210 1380	3%	33%
76	UC리버사이드	CA	공립	76	0	17,500	23	N/A	N/A	N/A
80	클렘슨대	SC	공립	86	6	21,500	15.8	1230 1390	21%	39%
80	페퍼다인대	CA	사립	76	-4	23,510	12.7	1250 1450	7%	14%
80	렛거스 뉴와크	NJ	공립	82	2	21,500	13.4	N/A	N/A	N/A
80	일리노이대 시카고	IL	공립	82	2	16,704	16.9	1060 1310	5%	39%
84	뉴저지텍	NJ	공립	86	2	21,000	16.3	1210 1478	4%	43%
84	UC샌타크루즈	CA	공립	82	-2	16,666	21.9	N/A	N/A	N/A
86	드렉셀대	PA	사립	98	12	25,325	9.3	1230 1430	6%	38%
86	하워드대	DC	사립	115	29	24,500	12.1	1100 1298	10%	27%
86	마케트대	WI	사립	86	0	23,940	13.3	26 31	27%	14%
86	델라웨어주립	DE	공립	76	-10	24,572	12.2	1210 1380	3%	25%
86	워싱턴 폴리텍	MA	사립	82	-4	27,000	13.1	N/A	N/A	N/A
91	아메리칸대	DC	사립	105	14	22,750	10	1290 1450	11%	25%
91	베일런대	TX	사립	93	2	23,000	14.6	1210 1400	19%	31%
91	포덤대	NY	사립	89	-2	24,300	13.6	1330 1490	9%	23%
91	로울러메리마운틴대	CA	사립	93	2	19,500	10.5	1300 1460	11%	19%
91	로체스터텍	NY	사립	98	7	26,778	13.3	1280 1460	14%	55%
91	서던메소디스트대	TX	사립	89	-2	19,500	11.3	1320 1480	15%	17%
91	사우스플로리다주립	FL	공립	89	-2	17,988	21.6	1140 1330	25%	75%
98	플로리다인더피셔빌	FL	공립	124	26	16,500	21.3	1060 1250	9%	91%
98	곤자가대	WA	사립	93	-5	24,454	11.8	1220 1410	9%	25%
98	렛거스캠던	NJ	공립	98	0	21,500	11.9	1010 1255	2%	27%
98	델폴대	PA	공립	89	-9	24,395	11.8	1140 1380	3%	23%
98	콜로라도주립 볼더	CO	공립	105	7	19,500	18.9	1150 1390	9%	26%
98	아이오와 주립	IA	공립	93	-5	22,500	15.3	22 28	59%	19%
98	예시바	NY	사립	105	7	18,250	6.7	1320 1500	19%	21%



황원목의 과학 산책

천재도 유행?

과학을 공부하다 보면 천재들을 더러 접한다.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고 발전시켜 새로운 학문의 장을 연 위인들이다. 성취한 업적 외에 머리 좋은 것으로 유명한 사람들도 있다. 현대 컴퓨터의 창시자 중 한 명인 존 폰 노이만은 사진 같은 기억력을 가지고 있어 장편 소설도 한 번만 읽으면 몇 년 후에도 잊지 않고 정확히 암송할 수 있었다 한다. 복잡한 수학 문제를 암산으로 푸는 능력도 탁월해, 그 당시 뛰어난 수학자와 과학자들도 추종을 불허했다. 5개 국어도 구사했는데, 이는 최소 13개 국어에 능통했던 이론 물리학자 머리 이 겐만에 비하면 약과이긴 하다.



과학 외에 창조력과 재능을 요구하는 분야에도 천재들이 있다. 음악에서도 동서고금을 걸쳐 전설적인 명인 명창들이 두루 있다. 그런데 정량적 과학 분야에서는 20세기의 천재들처럼 기막히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요즘은 잘 안보이는 것 같다. 아

주 똑똑하고 신기하게 일 잘하는 사람들은 있지만, 널리 회자될 정도로 머리가 좋은 경우는 거의 못 봤다. 이에 여러 이유가 있겠다. 연구 분야가 다양해지고 조직화한 현대 과학계에서는 두루 알려지기 쉽지 않을 것이다. 현재 주요 연구 분야 중 수학적 실력이 주도적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생명 과학은 물리적 접근이도

다. 생명 과학은 물리적 접근이도 입되고 있으나 알려지지 않은 것이 워낙 많고 정밀 실험도 어려워 아직도 경험 과학의 성격이 짙다. 이 외에 정량적 기초과학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어 비상한 지적 능력의 학도들이 상대적으로 덜 외쳐 안 보이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해본다. 과거 판소리 명창들이 나오던 시대에서 K팝 스타들이 나오는 시대가 되었듯이, 연구하는 데는 많은 요소가 있어 장기 자랑에 나올 정도로 머리 좋은 것이 필수는 아니지만 어쩌다 한두 명쯤 나오는 것은 분야 전체에 도움과 자극을 줄 수 있고 흥미로운 이야기거리도 될 것이다.

텍사스A&M대 생명공학부 교수

나라카와 아야의 시사일본어

데츠오타

(鉄オタ)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당 총재에 당선되고 102대 일본 총리에 취임했다. 이시바 총리가 어떤 인물인지 여러 보도가 나오는데 '데츠오타'라고 소개된 기사도 많았다. 한국의 철도 마니아에 해당하는 데츠오타는 데츠도(철도) 오타쿠의 줄임말이다.

일본에는 데츠오타가 많은데 이시바 총리처럼 타는 것을 즐기는 사람, 사진 찍는 것을 즐기는 사람, 두꺼운 시간표를 애독하는 사람 등 다양하다. 일본에서는 승강장에서 카메라를 들고 전철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시바 총리는 1986년 돗토리현에서 출마해 중의원에 당선됐다. 당시 29세로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다. 이때부터 돗토리외 도교를 왕복했는데 침대차를 애용했다고 한다. 이시바 총리가 데츠오타 친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영상을 봤는데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어서 나 같은 문외한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이시바 총리는 철도뿐 아니라 군사, 프라모델 오타쿠이기도 하고 애니메이션이나 아이돌에 대해서도 잘 아는 편이다. 돗토리현에서 열린 행사에서 만화 '드래곤볼'에 나오는 캐릭터로 분장해 등장한 적도 있다.

군사 오타쿠라고 하면 위험한 이미지를 가질 수

도 있는데 전투기나 전함의 모형을 좋아한다고 한다. 부인 요시코 여사와의 첫 데이트에서 영화 '연합함대'(1981)를 봤다는 에피소드도 있다. 이시바 총리의 덕질에는 거부감보다 친근감을 느끼는 일본 국민이 많은 듯하다. 그냥 오타쿠였다면 일본의 정치를 맡겨도 되나 걱정하겠지만, 독서가로도 알려져 있고 출간한 저서도 많다. 나는 십수년 전에 한번 그의 강연을 들은 적이 있는데 천천히 신중하게 말하는 차분한 모습에 호감을 가졌다. 총재 선거에 다섯 번 도전한 끝에 당선됐는데, 일본 총리를 국민이 직접선거로 뽑았다면 좀 더 빨리 당선되지 않았을까 싶다.

나는 데츠오타는 아니지만, 철도를 이용해 지방을 여행하는 것을 좋아한다. 특히 시코쿠에는 신칸센이 없어서 천천히 풍경을 즐길 수 있다. 이시바 총리의 과거 발언을 살펴보면 데츠오타가 지방 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든다.

안타깝게도 요즘은 경영난으로 없어지는 철도가 많다. 지방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철도마저 없어진다면 쇠퇴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시바 총리의 철도에 관한 방대한 지식이 지방 활성화에 긴요하게 쓰이길 기대해 본다.

▶표를 어떻게 읽어야 하나: US뉴스가 평가한 '평가 총점'의 순서대로 선정됐다. 평가 총점이 같은 경우 '공동 순위'다. 'SAT/ACT중위50%'는 성적순으로 하위 25%, 상위25%를 제외한 학생들의 성적이다. 만약 100명이라면, 26등부터 75등까지의 성적이다. SAT는 1600점, ACT는 36점이 만점이다. 순위변화는 전년 대비다. ACT/SAT제출율은 신입생중 대입지원시 제출한 지원자 비율이다.

약착같은 부동산 비키리 10월 HOT 리스팅

바이어들의 희소식, 모기지 이자율이 많이 내렸습니다!

6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3600 + 세금 + 보험
5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3000 + 세금 + 보험
40만불 대출시 30년 융자 월납부금 \$2400 + 세금 + 보험

부동산 관련 모든문의는 북버지니아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탐 에이전트, 비키리 부동산에 문의 해주세요.

\$69만 우드브리지 나쁜 평평 상층부 방4+ 화장3 최고2

\$56만 알링턴 콘도 방2개 2층짜리 교통좋은 메트로와 인접 디운하우스 콘도

임대 애쉬번

보이지 않는 분자의 모양을 알 수 있는 이유

장하석의 과학하는 마음

케임브리지대 교수



세상의 모든 물질이 분자로 이루어졌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교육을 받은 현대인들은 너무도 잘 알고 있다. 또 분자는 원자들이 모여서 형성되고, 원자는 소립자들이 모인 것이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한다. 그런데 우리가 뭘 직접 알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다고 배웠을 뿐이다.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는 과학자들을 믿는 것이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원자나 분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알까. 전문가라고 해서 그런 입자들이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최고 성능을 가진 전자현미경을 들이댄다고 해도 물 분자가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두 개로 만들어졌거나, 벤젠의 6각형 분자 모양이 그냥 환히 보이는 것은 아니다. 1980년대에 개발된 주사 터널링 현미경(STM)을 사용하면 원자 하나하나를 볼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원자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형성된 고체 상태의 물질의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관측 기술이 개발되기 100년 전에 이미 화학자들은 분자구조를 알고 있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랫동안 고심하며 여러 방향에서 연구한 결과를 집대성해 거대한 퍼즐을 풀었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퍼즐을 풀도록 해 준 단서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모두 간접적인 것이었다. 예를 들어서 광선이 용액이나 결정체를 통과할 때 그 분자 구조에 따라서 다르게 회절된다. 그런 식의 간접적 관측방법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 처음



인공지능(AI) 이미지 생성기 '달리(DALL·E)'를 이용해 그린 19세기 프랑스 궁전 무도회 연산가스 사건.

원자·분자, 상식으로 여기지만 실제 구조는 직접 관측 힘들어 프랑스 왕실 무도회 사고 계기로 원자론 및 분자구조 이론 발전

발되었던 것은 치환(substitution)반응이다. 분자 속에 있는 한 가지 원자를 다른 종류의 원자로 교환하는 것인데, 일반인들에게는 아마 생소한 개념일 것이다.

‘연산 가스’ 뿜어낸 무도회 상들리에 치환 반응에 대한 연구의 출발점은 1820년대에 프랑스 왕 샤를 10세가 그 당시 파리 시내에 있었던 튀일리 궁전에서 주최하였던 한 무도회였다. 그 행사에 참석했던 귀빈들은 상들리에에서 뿜어 나오는 정체불명의 유독성 연기를 맡고 질겁하여 도망쳤다. 이 사

건의 원인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은 저명한 화학자 장 바티스트 뒤마는 그 독가스가 연산 가스였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런데 상들리에에서 연산이 나오다니? 그 당시 상들리에라 칭한 것은 요즈음 생각하는 전등불이 아니라, 양초를 둥근 틀에 층층이 꽂아서 달아 놓은 것이었다. 그런데 그날 사용되었던 초들은 염소(鹽素, chlorine)를 포함한 표백제를 써서 우아한 하얀 색이 나도록 만들어 놓은 제품이었다. 그 표백 과정에서 초의 원료인 동물성 기름에 들어있는 수소의 일부가 표백제에 들어 있는 염소로 대체되었으며, 그것이 연소하면서 연산 가스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뒤마는 추론하였다. 그 해석이 일리는 있어 보였지만 많은 화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수소와 염소는 속성들이 전혀 다른 물질이다. 그 당시 정설로 간주되었던 전기화학적 이론에 의하면 수소는 강한 양성을 띠

었고 염소는 가장 음성을 띤 원소였다. 그런데 어떻게 염소가 수소의 자리를 차지한 화합물이 형성될 수 있는지 명확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렇게 하여 연구를 시작한 뒤마는 1834년에 수소-염소 치환에 관한 경험적 법칙들을 발표했다. 또한 과거의 다른 실험들이 수소-산소 치환의 사례들이었음을 돌이켜보며 깨달았다. 그런 실험 중 가장 오래된 것은 염소가 시안화수소(HCN)에 가하는 작용에 관한 게이-뤼삭의 1815년 연구였다. 그 작용을 통해 시안화수소는 염화시안(CNCI)으로 둔갑하는데, 그 과정에서 일정한 부피의 염소가스가 흡수되고 정확히 같은 부피의 수소 가스가 나왔다. 그렇다면 분자 구조를 생각할 때 수소 원자 하나를 염소 원자 하나와 맞바꾸었다고 해석할 수 있었다.

단서를 끈질기게 추적하는 과학 또 더 재미있는 것은, 메탄가스는 염

소가스와 그런 식의 반응을 네 번이나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렇다면 메탄분자에는 수소 원자가 네 개 포함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추론으로 시작하여 결국 밝혀낸 메탄의 분자식은 CH₄, 즉 탄소 원자 하나와 수소 원자 네 개가 결합한 것이었다. 거기서 수소 하나를 염소로 대체하면 소위 클로로메탄(CH₃Cl)이 되고, 네 개 다 대체하면 테트라클로로메탄(CCl₄)이 된다. 이 물질은 드라이클리닝에도 사용되는 등 여러 가지 용도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하다 보니 탄소 원자는 수소가 되었건 염소가 되었건 다른 원자를 네 개 잡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은 결국 탄소의 원자가(valence·한 원자가 다른 원자와 결합하는 수)가 4라는 개념으로 발전하였다.

원자의 개념은 19세기 중반부터 꽃피게 된 유기화학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가 되었다. 그리하여 왕과 귀족들이 놀다가 봉변을 당했던 이상한 사고가 첨단 화학의 커다란 연구 프로그램을 유발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러한 연구가 진전되어 복잡한 화학 물질들의 분자식을 밝혀내고, 직접 보이지 않는 분자 구조를 어둠 속에서 문고리 잡듯이 차차 알아내게 되었다. 물론 치환 반응이 준 것은 한 가지 단서였을 뿐이고, 수많은 다른 단서를 여기저기서 잡아서 그에 기반하여 추론하고 여러 가지 방향의 연구 결과를 모아서 우리가 이제 철석같이 믿게 된 원자론과 분자구조 이론들을 만들어 낸 것이다.

과학의 발견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고들 이야기한다. 그러나 그것은 길에 흘린 물건을 줍는 식으로 어설픈게 얻는 것이 아니라, 우연히 주어진 실마리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결국은 무언가를 밝혀내는 힘겹고도 신나는 과정이다.

김승중의 아메리카 편지

기억과 테크놀로지

한국에서 온 신입생 한 명이 내 토론 토 대학 연구실을 찾아왔다. 꾸깃꾸깃한 종이 메모, 그리고 자그마한 쇼핑백 하나를 붙씩 들이대며 한국에서 아버지 친구분이 자기를 통해 보냈다고 전했다. 새우깡 한 봉지랑 소주 한 병이 들어있었다. 그때는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멍하게 서 있었다.

그날 저녁이 돼서야 갑자기 20여년 전에 미국 동부로 유학 와서 몇 번 만났던 수학과 친구 얼굴이 떠올랐다. 하하하. 그렇구나. 용석이!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뇌 기능은 플라톤을 비롯한 수많은 철학자와 이론



가들이 고심하며 이해하려 했던 소재다. 근래에는 신경심리학 및 인지과학의 연구 대상으로 기억에 관한 신기하고 흥미로운 사실들이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스마트폰을 옆구리에 끼고 사는 21세기에 들어 인간 기억력의 구조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 전화번호 하나 외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는 우리는 고대 그리스의 음

유시인이 어떻게 호메로스의 서사시 ‘일리아드’의 20만 단어를 외워서 읊었을까 상상하지 못한다. 지금도 기억력 대회 선수들이 흔히 사용하는 ‘장소 연상 기억법’(기억하고자 하는 정보를 가상의 장소에 배치하고 그 장소의 이미지와 결합해 기억하는 방법)은 고대 그리스 때부터 웅변가들이 활용했다.

기억의 여신 믈레모시네는 시와 음악을 비롯한 모든 예술적 창의력의 여신들, 즉 뮤즈들의 어머니다. 믈레

모시네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일들의 진실을 관할하는 통괄적인 존재로 신과의 교류를 상징한다. 기억과 망각은 인간존재의 양면이다. 지금 우리는 기억이라는 행위 자체를 인간이 만든 기계에 의해 빼앗기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반드시 기억해야만 한다. 기억해야만 할 것을 같이 기억하는데 민족의 동질성이 있는 것이다.

고고학자·토론토대 교수

혈관이 부르는 첫번째 이름

세종 송보감



- 전통솔잎으로 연구 개발된 세종송보감
- 고농축캡슐 타입으로 개발된 GMP 기준 솔잎농축캡슐
- 임상으로 인정되고 식약처(KFDA)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 혈액순환 장애로 도움이 필요한 분
- 당뇨, 혈압, 고지혈증 등 혈관계 건강이 필요한 분
- 혈액순환, 혈관청소가 필요한 분

문의 (703) 256-7671 | www.sejongbiotech.us

김원근 변호사 유언상속·이혼



- Probate·상속재산 정리절차·한국의 유산상속분쟁
- 트러스트·유언·위임장 Power of Appointment·취소 가능 트러스트·취소 불가능 트러스트
- 합의 이혼·재판 이혼·한국관련 국제이혼 재산분할·자녀 양육권·양육비 생활비 청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대입 들여다보기

입시용 이메일 만들어 곧바로 응답, 대학과 잘 소통하면 대입에 큰 도움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가져다 준다. 그 과정이 마치 직장을 구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대학 입학 사정관은 나를 고용할지 말지 결정하는 고용주처럼 보인다. 입학 사정관은 잠재적 신입생들에게 대학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고, 원서를 심사한다.

지원자로서 학생이 입학 사정관들과 어떻게 소통하느냐가 합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나에게 메리트(성적) 장학금 기회를 알려주고, 나를 교수진에게 소개하며, 실제로 대학 경험이 어떻게 펼쳐질지 나에게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등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런데 학생으로서 입학 사정관들과 어떤 방식으로 소통해야 입시에 도움이 될까?

첫째, 입학 사정관과 교류하는 모든 행동이 카운트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일부 대학은 지원자가 대학에 진지한 관심을 가지는 것에 대해 가치를 둔다. 대학에 따라 학생이 직접 캠퍼스 투어를 하거나, 온라인 프로그램 등에 등록해 버추얼(virtual) 투어를 하는 것까지도 자료를 수집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내가 관심있는 대학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팔로우 하면서 최근 어떤 뉴스가 올라가 있는지 살펴보고,

캠퍼스를 방문해 대학 관계자를 만났다면 집에 돌아와서 감사 이메일을 보내는 등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좋다.

각 지역에서 열리는 칼리지 페어(college fair)에 간다면 관심 있는 대학의 테이블에 들러 관계자들에게 대학에 대해 다양한 질문을 한다. 웹사이트만 찾아보면 나오는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 해당 대학에 대해 진지한 관심을 보여주는 질문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질문에는 염두에 두고 있는 전공이나 대학에서 가입하고 싶은 클럽, 최근 업데이트된 대학 소식 등이 있을 것이다. 관심있는 대학에 대한 뉴스가 새로 뜰 때마다 구글 얼럿(Google alert)을 받도록 설정해두는 것도 좋다.

둘째, 부모가 아닌 내 연락처를 대학에 알린다.

대학은 원서를 넣을 당사자인 학생이 대학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알고 싶어한다. 부모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학생 본인의 전화번호, 이메일을 제출하고, 입학사정관에게 대학에 대해 질문할 것이 있을 때는 이메일로 문의한다.

셋째, 대학 입시와 관련한 모든 활동에는 학생의 개인 이메일을 하나만 사용한다. 기존에 쓰던 이메일 주소가 있더라도 다른 사적인 이메일과



섞이지 않도록 입시용 이메일 계정을 따로 만드는 것도 좋다. 입시용 이메일 계정은 나의 이름과 성을 포함하며, 같은 주소로 모든 디지털 계정을 통일하는 것이 현명하다. 예를 들어 이메일 주소를 제이슨 김123@gmail.com으로 한다면 링크드인(LinkedIn)이나 인스타그램 등의 주소도 동일하게 하는 것이 좋다.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확인하고 입학 사정관이 보내온 이메일에는 신속하게 응답해야 한다. 답장이 길 필요는 없지만 입학 사정관이 보낸 이메일을 무시하고 답장을 하지 않는다면 자칫 내가

해당 대학에 관심 없는 것처럼 비쳐질 수 있다.

만약 칼리지 페어나 캠퍼스 방문처럼 직접 대면하는 행사에서 입학 사정관과 대화를 나눈다면, 헤어진 뒤 즐거운 대화를 가졌다는 내용의 팽귤 이메일을 보내라. 이때 나에게 대해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상세한 정보를 알려면서 내가 왜 그 대학에 관심이 있는지 설명하고, 다시 만나기를 기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 좋다.

넷째, 링크드인 프로필을 만드는 것을 고려한다.

링크드인 프로필은 고등학교 시기에 내가 이루는 성취를 이력서로 만들어 지속적으로 올리기 좋은 공간이다. 링크드인 계정에서 내가 관심 있는 대학들을 팔로우 하면서 대학들이 공유하는 흥미로운 기사나 소식들에 대한 코멘트를 달아보라. 나의 성취를 해당 대학의 관계자가 본다면 나를 경쟁력 있는 지원자로 판단할 수 있다.

다섯째, 개인 소셜 미디어 계정으로 입학 사정관이 어떤 코멘트를 남긴다면 즉각 이메일을 보내서 응답하라. 드문 일이지만 나의 독특한 재능을 알아보고 대학이 먼저 연락을 취할 수도 있다. **빈센트 김-어드미션 매스터스 카운슬러**

에듀 포스팅

명문 사립대 입시, 홀리스틱 리뷰 중요, 점수 외 환경·능력·성과 등 전인적 평가

홀리스틱 리뷰는 명문 사립대의 입학 심사 기준으로 학업점수와 같은 특정 요소만으로 학생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에서 발휘한 능력과 성과와 환경을 고려한 전인적인 평가를 한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학업적 능력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홀리스틱 리뷰를 이해하기 쉽지 않다.

홀리스틱 리뷰는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통해 특정한 대상 혹은 경험을 평가하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이는 학생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평가하는 것이기에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수렴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을 중시한다. 그 중 과외활동, 연구활동, 개인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실행할 때 고려해야 할 8가지 중요 요소들을 정리해 보자.

1. **흥미 요인:** 각 개인은 모두 다른 흥미와 재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저마다의 관심사와 열정이 있는 분야도 다를 것이기에 대학은 각 지원자가 가진 자신이 특별한 관심을 바탕으로 고등학교 기

간 자신이 참여하거나 개발한 과외활동, 연구, 일, 혹은 개인 프로젝트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한다. 대학들은 한마디로 정의 해 고등학교 기간을 '자신을 찾는 기간'이며 자신을 발견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해 봤는지 궁금해 한다.

2. **시작 요소:** 자신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활동이 있다면 가만히 좋아만 하고 있을 수 없다. 그것과 연관된 활동을 시작할 계기가 있을 것이다. 대학은 지원자의 내적 가치관 및 실생활 경험을 촉발시킨 일이 무엇인지 살펴본다.

3. **지식 요소:**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가 있다면 학교 수업에서 배우는 내용 만으로는 목이 마를 것이다. 그 분야와 관련된 추가적 수업을 수강하므로 기본 지식을 충분히 습득 해 나갈 것이다. 즉, 지식이 열정적으로 변하여 나만의 프로젝트 및 과외활동으로 이어 나가기 위해 갖춰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은 빠져서는 안될 중요한 요소가 된다.

4. **호기심 요소:** 대학은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사

회적 인식과 지적 호기심은 어떤 것이며 그 수준과 깊이를 알고 싶어 한다. 여기서는 성취보다는 지원자의 진정한 지적 호기심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그래서 대입 지원 에세이에 빠지지 않는 질문들이 학업적 호기심 혹은 자신이 탐구하는 공공증과 이와 연관되어 학습한 내용을 묻는 것이다.

5. **참여 요소:** 자신이 호기심을 느끼고 배운 내용들을 실제 사회적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참가한 내용들을 알고 싶어 한다. 고등학교 기간 참여했던 단체 혹은 소그룹에 참여했던 프로그램, 학문적 연구, 열정적인 프로젝트, 자원봉사 경험에 대한 학생의 생생한 체험이 중요하다.

6. **학문적 탐구 요소:** 고등학교 기간 자신의 공금증을 불리일으켜 이제 대학에 진학을 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싶은 분야가 무엇인지를 대학은 알기 원한다. 그래서 참여했던 연구 분야 혹은 학문적 영역을 어느 정도 탐구 했는지를 평가한다. 그간 이를 위해 투자했던 시

간과 노력, 그리고 지금까지 획득한 추가 지식과 기술을 이야기해 줘야 한다.

7. **창의적 문제해결력 요소:** 대학은 독창적이며 혁신적으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방안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인지 지원자를 평가하기 원한다. 자신만의 창의적인 방식으로 학교 학업 활동이나 과외 활동에서 겪었던 문제를 해결했거나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사례가 좋다. 그 노력이 보여준 효과와 그 문제에 대한 독특했던 접근 방식을 이야기하면 좋다.

8. **지속성 요소:** 일회성 노력이 아닌 계속되는 프로젝트와 활동에 참여했는지를 고려한다. 자신이 좋아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여 참여한 일이라면 단기간만 참여할 리가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기에 자신이 그동안 참여한 연구, 프로젝트,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배우고 성장한 이야기 즉 직접 경험한 자신의 성과와 실수들을 통한 성장 이야기가 포함되어야 한다.

새라 박 원장-A칼리지프렘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박공석 척추신경전문병원

척추 한방 클리닉

교통사고/척추통증전문

첨단 물리치료 시설 및 X-Ray 시설완비

진료 안내

- 교통사고 관련 후유증
- 두통, 목, 허리 디스크, 안면 신경마비
- 각종 신경마비 및 근육, 관절 통증 질환
- 한방 치료 (침), 마사지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운동화, 물 한통이면 준비끝. 걷기 좋아하시는 분 형사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은 절로병 예방과 허벅지 굵게 잡아 줘요"

Dr. 박공석 척추신경전문의
한 의사 (NCCAOM)

Tel: (703) 354-8686 | 전화예약 바랍니다. | • 애난데일 중앙일보 3층 •
 7023 Little River Tnpk., Suite 330, Annandale, VA 22003

바디프랜드 • 파나소닉 • INADA 이나다 • 카후나 • 오사키 • 오레스트 워런티 걱정없는 미국제품 카후나/오사키 VA 공식딜러 전화주문시 미 지역 무료 딜리버리 가능

믿을 수 있는 곳, 믿음이 있는 곳, 나의 건강은 곧 가족의 행복

건강마을

Health Town

애난데일 703-354-1515
 2층 스토어 OPEN 4305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OPEN HOUR 월-토: 오전 9시 30분 - 오후 7시 일: 오전 11시 - 오후 5시
 센터빌 703-712-7116 GRAND OPEN!
 5738 Pickwick Rd. Centreville, VA 20121

10월 스페셜

면역력 향상을 원하는 당신의 건강지킴이 LG 생활건강

어떻게 만들어도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다

고급 로얄 앰플 1병당 사포닌 18mg 함유
 홍삼 로얄 본액 한팩 사포닌 12mg 함유

리툰 골드 비전 홍삼 로얄 앰플 \$250 1+1
 리툰 골드 비전 홍삼 로얄 본액 \$160 1+1
 리툰 진한 레드 석류 콜라겐 \$36 1+1

광동 공진단 供辰丹

고귀한 분을 위한 명품

귀하다 귀한 사향을 사용하여 만든 명품중의 명품 공진단

추천대상

- 심천성 허약체질
- 월경이상
- 만성피로
- 두통
- 어지러움
- 체력저하
- 무력감

광동 일품기력보환

\$149.00

이경제 황제신용단

대박 SALE \$430 \$250.00

광동 침향환 반세기 최씨고집, 광동의 기술과 철학이 만나다

5개짜리 FREE 증정

빛을 내서라도 먹어야 하는 명인이 만든 무엇

말이 필요 없는 명품

기침 가래 해수 천식에 최고

유기농 양배추환

편안한 위장/속쓰림

AHCC가 혼합된 네이처메딕 **후코이단**

간기능/면역력암세포/암세포 사멸

FromBIO **위건강엔 마스크**

meditree **래변플러스**

코팅식이섬유

차전자피식이섬유제품 **대장사랑**

대장사랑은 혈중콜레스테롤 개선 및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여에스터 필름글루타치온

간 해독 풀광피부 피로개선

영신 생 로얄제리

영신 생 로얄제리 원액은 USDA(미농림부)로부터 100% 유기농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면역강화에 최고! **영신건강 프로바카리**

Pro Bacchari-X 심한알러지 대상포진 독감예방 면역강화에 최고

항암, 면역성 강화, 갱년기 증상 예방 **뉴질랜드 초록입 홍합**

하이퍼리프트 관절치료 통증완화에 최고!! + 프로플러스 항병 공파

당케어골드

식후 단 2알로 혈당 걱정 끝!! 혈당 억제 기능성 인장발은 원료가 2개 들어 있어 더욱 강력합니다

징크크린 정

기질성 뇌기능 장애 및 말초 혈액순환장애 치료제

농협용심 **한삼인** 10% SALE

농협 한삼인 홍삼 100% 홍삼즙 60포/30포

C그룹과 서울대 연구진이 개발한 대통령 표창 수상! **선삼**

기력회복 / 면역력향상자 / 만성피로

광동 짜먹는 경옥고

20% SALE \$159.99

100% PURE HONEYWAY 프리미엄 브라질산 **그린 프로플러스**

3+1 스페셜 1oz \$45 4oz \$125

세종 승보강 세종 속편한 세종 관절보강

만성기침, 가래 CMORI 시모리

머리 혈액 순환 건강 **비피헬스**

심장, 뇌, 미세혈관 & 간 건강, 혈액 순환 건강

관절 건강엔 역시 **호관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대한민국 인증 유일한 명인 도해 **용용 자죽염**

인산 김일호 선생의 17년 계승자 해독, 면역력, 항노화, 잇몸 건강

명인 용용 죽염

70가지 이상의 미네랄을 함유한 강력한 항산화

홍환씨환

장수 넘버원 홍화씨, 관절 건강에 최고!! 골다공증, 염증, 관절염 감소

호당원 프리미엄 골드 \$299.99

- ✓ 혈당 건강이 염려되시는 분
- ✓ 식후 혈당 수치가 높으신 분
- ✓ 혈당 건강을 챙기고자 하는 분들
- ✓ 생활습관 및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
- ✓ 식후에 활동량, 운동량이 부족하신 분
- ✓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얻고자 하시는 분

천연 발효 식초

발효 장인이 만든 명품 식초

산양유 초유 단백질

노년기 빠지는 근육 생성, 회복 우유를 못 드시는 분도 편안하게

글루타치온 콜라겐

간 회복과 피부 미백까지 피로개선과 피부미용을 동시에

먹는 발모제 비오틴

고함량 비오틴으로 풍성하게~ 맥주효모로 백작하게~ 엘라스티노로 찰랑하게~

Umexon **우메켄** 전제품 판매

석류엑기스 / 니토키나제 / 리포포 베타글루칸 / 코스볼 EX / 옥마놀한 제오아리 / 재첩엑기스 / L칼슘 노니맥실 / 엘라스틴부티 콜라겐

천연 죽염 치약

건강탄산칼슘 걱정 없는 건강하고 안전한 죽염 치약

대표팀 손흥민 빈자리 ‘영국 3총사’가 메운다

10일 요르단 원정, 15일 이라크전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 중인 축구대표팀이 에이스 손흥민(32·토트넘) 없이 A매치에 나선다.

앞서 치른 3차 예선 B조 1·2차전을 1승 1무로 마쳐 요르단에 이어 조 2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은 오는 10일 오후 11시 요르단 암만에서 요르단과 원정 경기를 치른다. 이어 오는 15일 오후 8시에는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이라크와 맞대결한다.

왼쪽 햄스트링(허벅지 뒤 근육) 부상으로 지난 4일 A매치 소집 명단에서 제외된 손흥민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게 대표팀의 숙제다.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A매치에 출전하지 않는 건 지난해 10월 튀니지전(4-0승) 이후 1년 만이다.

손흥민의 공백은 손흥민과 잉글랜드 무대에서 함께 뛰는 ‘영국 3총사’가 메운다. 축구대표팀 핵심 공격수 황희찬(울버햄프턴)의 발끝에 기대를 건다. 그러나 최근 소속 팀 주전 경쟁에서 밀려 경기 감각이 떨어진 게 문제다. 황희찬은 지난 5일 브렌트퍼드전에 후

반 12분 교체 출전해 33분간 그라운드를 밟은 것을 포함해 지난 3라운드 이후 5경기 연속 선발 출전 명단에서 제외됐다. 소속 팀 울버햄프턴이 최근 4연패를 포함해 7경기 연속 무승(1무 6패)의 극심한 부진을 겪는 가운데 황희찬에게 이렇다 할 기회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

황희찬이 부진할 경우 잉글랜드 챔피언십(2부 리그)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배준호(21·스토크시티)와 엄지성(22·스완지시티)이 나설 가능성도 있다. 배준호는 지난 3일 6-1 대승으로 끝난 포츠머스전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엄지성도 6일 스토크시티전에서 전반 추가 시간 위력적인 왼발 슈팅으로 크로스바를 강타하며 무력시위를 했다.

10일 A매치 2연전에서 ‘영국 3총사’의 활약이 필수적이다. 손흥민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2승을 추가한다면 축구대표팀은 본선 진출에 성큼 다가설 수 있다. 그러나 요르단 및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승점을 추가하지 못할 경우 흥명보호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송지훈 기자

첫 가을야구 나선 오타니, 3점포로 신고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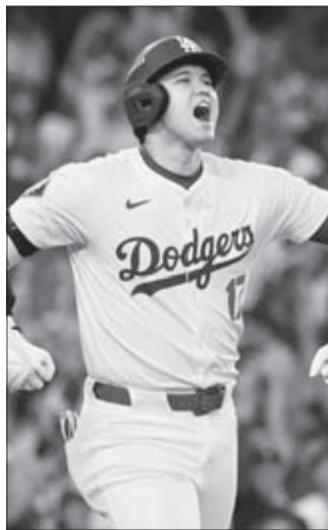
(MLB)

7시즌 만에 출전한 첫 포스트시즌 경기. 마침내 오타니 쇼헤이(30·LA 다저스)의 방망이가 폭발했다.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의 강타자 오타니는 6일(한국시간) 캘리포니아주 LA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린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의 내셔널리그 디비전시리즈(NLDS·5전 3승제) 1차전에서 동점 스리런 홈런을 터뜨리면서 승리를 이끌었다. 다저스가 샌디에이고에 7-5로 역전승을 거뒀다.

다저스가 0-3으로 뒤진 2회 말 2사 1·2루의 찬스. 오타니가 타석에 들어섰다. 첫 타석에서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던 오타니는 차분하게 샌디에이고 선발 투수 딜런 시즈의 공 두 개를 지켜봤다. 볼 2개를 골라낸 뒤 3구째는 파울. 오타니는 4구째 시속 96.9마일(약 156km)짜리 직구를 받아쳐 3-3 동점을 만드는 홈런을 터뜨렸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오타니도 이날은 배트를 거칠게 집어던지면서 호효했다. 타구 속도는 111.8마일(180km). 마이크 쉘트 샌디에이고 감독은 “오타니 앞에 주자를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2회 말 동점 스리런 홈런을 터뜨린 뒤 기뻐하는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MLB 데뷔 7시즌 만에 포스트시즌 경기에 처음으로 출전해 5타수 2안타 3타점을 기록했다. [로이터=연합뉴스]

오타니에게도 의미가 큰 홈런이었다. 이날 경기는 그가 MLB 진출 이후 처음으로 밟은 포스트시즌 무대였다. 오타니는 2018년 LA 에인절스에 입단했지만, 에인절스는 오타니와 마이크 트라웃만 수퍼스타 2명이 있는 데도

가을야구 무대에 진출하지 못했다.

오타니는 결국 2023시즌을 마치면서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뒤 우승하기 위해 다저스 유니폼으로 갈아입었다. 계약 조건은 10년 7억 달러(약 9440억원). 역대 스포츠 사상 최대 규모의 계약이긴 했지만, 금액 일부를 추후에 받는 계약이라 실질 수령액은 그보다 적었다. 그만큼 오타니가 우승에 목말랐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리고 첫 포스트시즌 경기에서 홈런을 때려냈다. 오타니는 “야구장은 정말 영광적이었다. 경기하는 게 즐거웠다”고 말했다.

샌디에이고는 3회 초 2사 1·2루에서 산더 보하르츠가 2타점 2루타를 터뜨려 다시 앞섰지만, 4회 말 다저스 타선이 다시 불을 뿜었다. 다저스는 토미 에드먼, 미겔 로하스, 오타니의 연속 안타로 만루 기회를 잡았고, 상대 투수 에이드리언 모레혼의 폭투로 한 점을 따라붙였다. 이어 2사 만루에서 테오 스카 에르난데스가 중전 적시타를 날려 6-5로 뒤집었다. 5회 1점을 추가한 다저스는 볼넷 투수 5명이 6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내면서 7-5 승리를 거뒀다. 오타니는 5타수 2안타 3타점 2득점을 기록했다. 김효경 기자

내년 영화판 강자도 넷플릭스? 재난·애니·로코 다 있다

부산영화제로 예측한 내년 전망 넷플릭스, 영화 신작 7편으로 ‘최대 플러스옴’은 ‘야당’ ‘열대야 개봉 유력

“100년 뒤에도 (극장 영화에) 시청각적으로 밀리지 않는 작품을 제공하겠다.”(넷플릭스 서울 김태원 콘텐츠 디렉터) “창작자 지원에 아낌없이 노력하겠다.”(플러스옴 엔터테인먼트 흥정인 대표) “연간 1조원 규모 콘텐츠 투자를 지속해서 늘려가겠다.”(CJ ENM 윤상현 대표)

올해 부산 국제영화제에선 넷플릭스를 비롯해 플러스옴 엔터테인먼트, CJ ENM 등 주요 콘텐츠사들이 포럼과 라인업 공개 행사를 열고 향후 작품 계획을 밝혔다.

내년 영화 공개 편수는 넷플릭스가 가장 많다. 지난 4일 열린 ‘넥스트 온 넷플릭스’ 행사에서 내년 공개가 확정된 7편의 신작을 각 감독과 함께 발표했다. 연상호 감독의 ‘계시록’, 변성현 감독의 ‘굿뉴스’, 김병우 감독의 ‘대홍수’ 등 흥행 감독들의 기대작에 더해 넷플릭스 첫 한국 애니메이션 ‘이 별에 필요한’(감독 한지원), 로맨틱 코미디 ‘고백의 역사’(감독 남궁선), 중간소음 공포 ‘84제곱미터’(감독 김태준), ‘길복순’의 스핀오프 ‘사마귀’(감독 이태성) 등 신인감독 작품까지 아울러졌다.

같은 날 ‘플러스옴과 SL의 밤’ 행사를 연 플러스옴은 대만 동명 로맨스 리메이크작 ‘침실’(11월 6일 개봉), 송



부산영화제에서 각 콘텐츠사 라인업 행사를 열었다. 1 4일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5 한국영화’ 행사 전경. 2 4일 ‘CJ의 밤’ 행사에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소개 영상. 3 4일 ‘플러스옴과 SL의 밤’에선 나홍진 감독 영화 ‘호프’ 촬영 현장이 공개됐다.

중기 주연의 ‘보고야: 마지막 기회의 땅’(울 겨울 개봉 예정)을 비롯해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총 11편 발표했다. ‘서울의 봄’ ‘범죄도시4’ 등 천만 흥행이 신작 제작의 동력이 됐다.

내년 개봉이 점쳐지는 유해진·강하늘 주연 범죄영화 ‘야당’, 우도환·장동건 주연 액션 ‘열대야’ 등 ‘서울의 봄’ 제작사와의 협업이 눈에 띈다. 연상호의 ‘얼굴’, 김한민이 ‘더 소드(The Sword)’, 나홍진의 ‘호프’ 등 거장 감독들의 신작도



부산영화제에서 각 콘텐츠사 라인업 행사를 열었다. 1 4일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5 한국영화’ 행사 전경. 2 4일 ‘CJ의 밤’ 행사에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소개 영상. 3 4일 ‘플러스옴과 SL의 밤’에선 나홍진 감독 영화 ‘호프’ 촬영 현장이 공개됐다.

포진해 있다. 마동석도 주연·제작 액션 ‘돼지굴’, 제작만 맡은 ‘백수아파트’ 등 두 편을 함께한다. 한소희·전종서 주연의 범죄극 ‘프로젝트Y’, 박민규 소설 원작 영화 ‘파반느’도 관객과 만날 날을 기다린다.

지난 4일 CJ 무비포럼에 티빙, CGV 등 계열사가 총출동한 CJ ENM은 다음 날 대규모 파티 ‘CJ의 밤’까지 열었지만, 내년도 신작은 두 편에 불과했다. 임윤아 주연의 로맨틱 코미디 ‘악마가



부산영화제에서 각 콘텐츠사 라인업 행사를 열었다. 1 4일 ‘넥스트 온 넷플릭스: 2025 한국영화’ 행사 전경. 2 4일 ‘CJ의 밤’ 행사에서 박찬욱 감독의 신작 소개 영상. 3 4일 ‘플러스옴과 SL의 밤’에선 나홍진 감독 영화 ‘호프’ 촬영 현장이 공개됐다.

이사왔다, 박찬욱 감독이 미국 미스터리 소설 『더 엑스』를 토대로 연출하는 ‘어쩔수가 없다’(주연 이병헌·손예진)다. 최근 관객 700만에 육박한 ‘베테랑 2’로 숏폼을 띄웠지만, ‘외계+인 2’ ‘탈출’ 등 대작이 흥행 참패한 여파다.

올해 아카데미 각본상 후보에 오른 ‘패스트 라이브즈’에 투자·배급으로 참여한 CJ ENM은 ‘지구를 지켜라’(2003)의 할리우드판 리메이크 ‘부고니아’ 등 글로벌 라인업에 내실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파일럿’ ‘헛심가지즈’ 등 올해 중급 영화가 선전했던 극장가 양상이 내년에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투자배급사들이 앞다퉈 제작비 100억원 이상 대작을 내놓기 때문이다. 총제작비 300억 원대로 알려진 웹툰 원작 영화 ‘전지적 독자시점’, 구교환 주연 판타지 액션 ‘부활남’을 비롯해 마동석 공포 액션 ‘거룩한 밤: 데몬헌터스’(이상 롯데 엔터테인먼트), 송혜교·전여빈 주연 ‘검은 수녀들’, 웹툰 원작 ‘좀비팜’(이상 NEW) 등 오컬트·공포 강세 역시 이어질 전망이다. 부산=나원정 기자

한미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두 가지 여건은 경력과 학력입니다.
 한미법률사무소의 임종범 변호사는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변호사입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미국의 명문 조지타운 법대를 2003년에 졸업했으며, 그 후로 20여 년간 변호사 활동을 했습니다.
 아울러 임종범 변호사는 2005년, 2007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통령의 통역을 맡은 바 있으며,
 2010년, 2012년, 2014년에는 싱가포르 상그릴라 장관회의에서 미국 국방장관의 통역을 담당했습니다.

임종범 변호사는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법원,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연방지법,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파산법원 등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 법률사무소는 한국어와 영어로 속 시원한 상담을 약속드립니다.

대표변호사 임종범
James Yim Victory, Esq.

“
 지난 20여 년간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인생을 살며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많은 일들
 혼자 갈 수 없는 길엔 동반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날이 될 수 있다고
 믿는 당신에게 희망의 꽃 한 송이 드립니다.
 ”

* 변호사 임종범 *

이름변경 · 교통사고 · 위임장
아포스티유 · 가족이민 · 추방재판

리치몬드 페닌슐라 상담원영

사무장 김진주
Jinju Kim

“
 걱정도 많고, 궁금한 것도
 많으실텐데, 저희 한미가 친절하게
 도와 드리겠습니다.
 억구름 뒤에도 태양이 있고,
 추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포기하지 마시고 힘을 내세요.
 ”

* 사무장 김진주 *

Hanmicenter.com 웹사이트를 방문하시면 파산 관련 정보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이혼, 파산, 생활법률에 관한 동영상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검색이나 중앙일보 웹사이트에서 “임종범변호사” 를 치시면
 한미법률사무소에서 기고한 300여개의 칼럼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anmi Center for Justice, PLLC (한미 법률사무소) Tel. 703-333-2005 / 301-230-3122
 4216 Evergreen Lane, #131, Annandale VA 22003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직원모집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플타임 가능

703-256-3005
703-830-0993
mercy4resume@gmail.com

회계사 사무실 구인

유경험자 우대

Benefit 있음
(건강보험/보너스/유급휴가)

영주권 스폰서 가능 함

무경험자도 함께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 분

* 이력서 보내실 곳 *
luvacct1986@gmail.com

정성웅보험

보험료를 확 줄일 수 있는
경제적인 보험!

내가 탄 거리만큼만 내는
실속형 보험!

•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사업보험 • 생명보험
• 화재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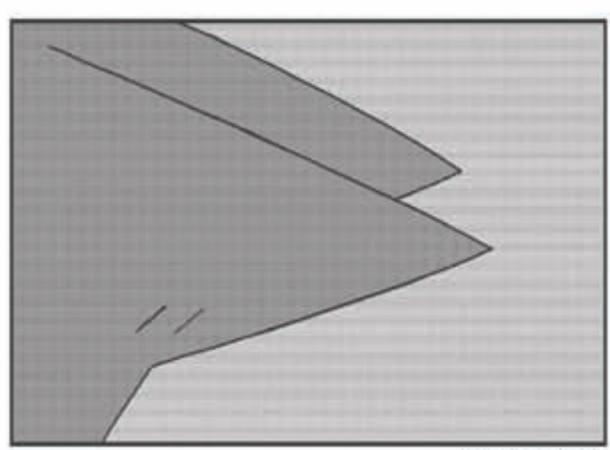
703.825.2945

카툰 릴레이
THE SIXTH SENSE

식스센스

오늘의 주제 **성형**

이상신 · 국중록 · 고리타 · 병수씨 · 손준혁 · 장우혁 · 양영순 · 메가씨킹



무슨 신문 읽으세요?

Tel: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10월 구인광고

전기차 충전 EV 장비 전문회사

모든 전기 수리/구축/공사

LifeTime Energy VA, MD, PA, DC, WV, DE

전화

240-316-1823

사업체 매매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3,200 (Catonsville).방4, 화3+1/2

문의

301-768-1240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WE ARE HIRING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구인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 구매부 0명
◎ 영업지원팀 0명
ERP/Excel 경험자우대

이력서:eni@enidist.com

문의

301-477-4710

LÖTTE Plaza **롯데플라자 스틸링점 푸드코트**

롯데플라자 스틸링점(VA)에서 근무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캐쉬어

풀타임/파트타임

sijang.sterling@gmail.com

성함, 연락처 남겨 주세요!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 오솔길, 산길 걷기
- 6마일/2시간
-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향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운동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25년 용자 경력 제인 최 용자

\$비교해 보십시오!

매입용자/재용자
최저이자율 보장
용자비용 \$0 가능

현금인출 용자/2nd 용자
긴급용자(차압 또는 급전),
노인컴 용자, 외국인 용자,
상업용 용자 등
모든 용자 프로그램 취급

703-244-3453 Mortgage4U LLC.
Janec.loan@gmail.com
VA 8200 Greensboro Drive, #900 Mclean, VA 22102
MD 9211 Corporate Blvd., #200, Rockville, MD 20850

구인

- Office 청소하는 사람 구함
- 경험있는 Area Manager 구함

매나사스 지역 (버지니아)

301-537-3800

구인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5+years of body man experience
Busy Auto Body Shop
in Gaithersburg, MD

T. 301-977-4484
C. 240-246-4477

시니어 보험 에이전트 모집

- ▶안정된 소득과 도와주는 기쁨
-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라이선스 교육 가능
- ▶목회자/사모님/교회 종사자 환영

ehyum0530@gmail.com

571-232-5022

L&B Universal, Inc.
히팅/냉동/덕트클린

HELPER TECHNICIAN
(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전화문의:
703.678.1749

Chantilly

SPECIAL EVENT
BUY ONE WHOLE CHICKEN GET ONE Free

571-752-6417

92 Chicken KOREAN STYLE
13966 METROTECH DR, CHANTILLY, VA 20151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보험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력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로광고내용보내실곳:kdclass2018@gmail.com (계재증지를 원하실 경우이메일주시기바랍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메릴랜드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MD Montgomery 및 PG County에서 식당장비세일즈 구합니다. 경력있는 보수(커미션), PEPCO 등 정부보조프로그램 또는 다른 분야의 대면 방문 세일즈 경험자, 경력자 우대(기본급 및 경비 지원) 초보자 세일즈 트레이닝 및 각종 지원 제공 (Case by Case) edk.tre@gmail.com으로 자기소개와 함께 지원 바랍니다. 571-332-2101(문자요망)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션리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책임감있고 성실한 직원모집
 *College Park 지역, MD - 경험 많은 Handyman - Part Time Office 관리자 - 정육부 관리자 *Capitol Heights 지역, MD - 사무보조: 이종언어 가능자 *PT 20~35HR: \$17~20/H
 jobsmd@outlook.com
 문의: (301)333-2209

MD 글렌버니 지역 Severna Park 베트남 국수 식당 Full/Part Time Hall Server 구합니다 240-678-5395

Silver Spring, MD 에 위치한 종합보험 Agency에서 함께 일하실 이종언어(영어 또는 스페인어) 가능한 유, 무경력자 구함. albert@wkinc.com (Cell) Mr. Kim 301-526-7000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승원유통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구합니다.
 *위치: 메릴랜드 재섭(Jessup)
 1. 승원 물류센터 사무직원 모집
 - 업무: 사무직원 (서류관리 및 인보이스 등)
 - 시간: 주 32~48시간(주 5일 근무 가능)
 2. 승원 물류센터 현장 관리자 모집
 - 업무: 현장 직원 관리 및 인출고 관리
 - 시간: 주 48~52시간
 - 유경력자 우대(물류센터 운영 전반)
 접수 방법: 간단한 이력서 작성 이메일 접수
 ▶연락처: han97003@lotteplaza.com 240-750-0016 / 물류센터장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 P: 301-942-5071

닥터 오피스에서 full or part time 직원 구함. 락빌/ 콜롬비아 이종언어, 신분에 결격사유 없으신분 문의 301-580-5777

▶▶요양원에서 일하실분 풀/파트 타임 입주가능. 경력자우대. 엘리컷시티 240-426-5678

MD에 위치한 MGH Adult Medical Daycare Center에서 근무할 RN 간호사를 구함 443-621-2625

▶▶어시스트리빙노인분들 케어 해주실분. 남녀불문 경력자 우대. 속식도 가능. 메릴랜드 콜롬비아 410-961-3012

▶▶메릴랜드 JESSUP-화장품출세일(NYX L'OREAL) 세일즈(남)구함/풀타임, 컴퓨터사용가능한 성실하고 참신한분. 410-852-1006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식당/델리

▶▶엘리컷 시티 Cafe June 에서 풀타임 바리스타로 일하실분 유무경력자 443-310-9247

▶▶엘리컷시티 장수 설령탕에서 새가족을 구합니다 주방/캐슈어/경험자 우대 410-750-3333

▶▶볼티모어 지역에서 토보자 사시 & Fried Chicken 파트/풀 타임 구합니다. 646-220-8184

Gaithersburg, MD 남/여 머리하시는 분 ▶301-926-3638 / 301-538-4246

4일 또는 2일. 일 하실 바버 구합니다 메릴랜드 앤드류 공군 기지 근처 애난데일에서 25분 거리 703-975-8008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다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다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세탁소/기타

▶▶세탁소에서 바지 프레스/카운터 시간조절가능, 볼티모어 Royola 대학근처 410-433-5008(Store) 410-868-6670 (Cell)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컷시티, MD)

▶▶픽업바느질하실분(파트타임)/엘리컷시티 410-926-3200

운전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허 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으로 모십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엘리컷시티 자동차 정비소 성실히 일하실분 메케닉, 영주권 가능, 좋은 대우 410-446-9981

자동차 정비사 구함 Columbia MD 지역 443-983-1965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 / 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eamdc@emmanuel.care ▶443-828-7777

▶▶MD 아류델말 샵센터 근처에 위치한 무궁화메디컬 데이케어에서 풀타임 운전 하실분 구합니다. 443-621-2625

연감합리회 워싱턴교회 지휘자 모집 - 자각: 성악전공/지휘전공음악전공(지휘경력) - 서류: 이력서 신앙고백 자기소개서 제출: nationalkumc@hotmail.com ▶301-309-6856

싱글/타운/콘도 방렌트

저먼타운 방1 욕실별도, 금연자 깨쓰한 콘도/노인우대 단기 702-622-8853

엘리컷시티-롯데에서 10분 거리/타운 홈 2층방/유포/가구일체/교통편리/남자분 원함 443-631-7866

▶▶엘리컷시티타운홈 렌트 매릴랜드 10Th Street. 방3개, 화장실/샤워 넓고 잘가꾸진 집. 롯데/한아름 5분거리 443-676-9225

실버스프링 두플렉스 방2/부엌1/화장실1/출입문 별도 301-257-7126

▶▶저먼타운 단독주택 리모델링한 지하실 방 2개 워크아웃 부엌 화장실 2층방 1 \$700 / 문자요망 240-393-3615

메릴랜드 콜롬비아 싱글홈 렌트 방5, 화장실4, 차고2, 좋은환경, 최고 학교 410-599-1800

메릴랜드 대학 가까운 495와 95 만나는 교통 편리한곳. 싱글홈 방4, 학.2.5 차고 2 301-385-3535 (문자요망)

▶▶조용/교통 편리한 워튼 도서관 한아름 메트로근처 싱글홈 방1 아파트식 뒷문 별도 인터넷 직장인 301-655-324

▶▶MD 실버스프링 Calverton 교통편리, 싱글홈, 큰방, 욕

실, 유포, 인터넷, 가구, 금연, 301-648-2422

▶▶단독주택 이층 큰방/인터넷/가구 완비/냉장고별도/샤워별도/차차, 29번과 198번 사이 Burtonsville, MD 20866 직장인, 금연자 240-413-2738

▶▶Ellicott City 가까운 Hanover 지역 지하전체 세놓음 240-393-5530

▶▶단독주택 지하방 2. 출입문 별도. 부엌, 욕실, 거실 등, 저먼타운 메릴랜드 (롯데 마켓 5분거리) 문자요망 202-985-9191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저먼트로 자기 사업 하실 분. 문의: 443-262-1813

1. 메릴랜드 자이안트염 - Sea Food 매매 \$195,000/주매상: \$9,500/렌트: \$3,750 All(6일근무) 부부 가능. 좋은장점 있음. 571-242-3736

컨비니언 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Annandale, VA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wjkim0111@gmail.com

도깨비 척추신경 병원 직원 구합니다. 페어팩스/파트타임, 풀타임 / 이종언어 가능/dkbcclinic@gmail.com 757-384-5757

▶▶1. LED Light 세일즈 2. Electrician 배우실분. 202-993-8870 (문자요망)

▶▶LORTON 헤어제품수입출세일창고에서 오전: 고객오더접수 오후: 노던버지니아 지역 및 메트로 지역 담당관리. 영어/불어 우대 이력서 jintva@hotmail.com 703-864-6641 John Lee 문자요망

김서규공인 회계사무실에서 회계업무 하실분 구합니다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경력자 우대 합니다. Resume: skim@skimcpa.com

ENI DIST, INC 사무직 Columbia, MD 위치 *구매부 0명/영입지원팀 0명 -ERP/Excel 유경력자우대 이력서: eni@enidist.com 301-477-4010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코너스톤 종합보험 사무직원 모집 -풀타임/파트타임/영어/컴퓨터사용

-Annandale 인근 지역 ▶이력서 joshuah123@gmail.com

▶▶Smart Insurance P&C(Property and Casualty) specialist 모집 - 경력자우대(P&C License 소지자)/신입 환영 - MS Office 사용자 가능 - Benefit: 401K/Health Insurance/PTO/Sick Leave ▶지원: smartacct@solomonus.com 703-639-0882

WBS 직원 모집 사무직, 월-금, 금 휴가, 건강보험/취업비자/영주권 Sponsorship. \$50,000/Yr 이력서: hr@worldbankcard.net ▶문의: 703-225-5500

변호사 사무실 직원 채용 경력, 영어 및 컴퓨터 능력에 따라 18불, 20불, 22불부터 시작. 영어 이력서 ▶이력서: Janammi0410@gmail.com

Fairfax 풀/파트타임 이종언어 사무직 유경력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탑 여행사와 함께 할 에이전트를 찾습니다! (엘리컷시티, MD)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256-0606

탑 여행사 바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고 실장)

롯데플라자 마켓 분사 인승원에서는 그래픽 & 웹 디자이너를 구합니다.

■모집부문: 그래픽 디자이너 / 웹 디자이너 ■근무형태: Full Time (Mon.-Fri.: 7:30AM - 5:00PM) ■근무지: 승원 분사 디자인실 (Jessup, MD) chankim@lotteplaza.com 으로 Resume와 포트폴리오 첨부

유재신 회계사 애난데일 공인회계사 사무실 경험자우대, Benefit, 영주권 스폰서 가능함, 무경력자도 성실히 열심히 함께 일하실분 이력서: acct.one3@gmail.com

Annandale, VA에 위치한 공인회계사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 모십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경력자도 환영. Benefit 있음(보너스, 건강보험, 유급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acct.one3@gmail.com

Wanted Sales/Marketing. YI design factory, LLC 443-240-5114

건강용품 매장에서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일하실 분 / 영어 가능하신 분 703-798-7270

첼트리 위치한 한미포스트 물류회사 풀/파트타임 (9am-5pm or 10am-2pm) 운영팀 00명, 패키징/포장팀 00명 학생/한국에서 오신지 얼마 안되신분 ceo@hanmipost.com *스폰서 가능

에버그린 헬스 매니저먼트에서 풀타임 직원모집 Position: Human Resource, Medical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입업 밀칭
 (ALLIANCE LAND MANAGEMENT)
 ● 토지 개간
 ●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 산책로 및 목초지
 540-905-2849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English 상담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운전면허에 관한 모든 것
 VA, 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 필기시험 요점정리, 예상문제
 ▶ 한국/타주면허 갱신
 ▶ Real ID 신청
 ▶ 차량 구입/등록
 ▶ 기타 교통국 업무
 Jim Dong
 571-294-0057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리스트 구합니다!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콘도 4채 매매 렌트수입 증음!
 ▶ 교통 편리한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 Cash Only
 AGENT 환영
 문의 703-244-3453
 SERIOUS INQUIRIES ONLY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0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중앙일보

Billing Assistant
한국어/영어, MS Office (Word/Excel)
danny.evergreenhealthcare@gmail.com

버지니아 애난데일 회계사무실
파타임/풀타임 직원모집/학생및 유/무 경
험자 환영, 컴퓨터/영어 가능자, 취업비자/
영주권스폰 가능
이력서: annandalecpa22@gmail.com

ASL Division Manager:
애난데일 소재한 정부계약회사
www.visitlod.com 수어(ASL)통역 매니저
구함-통역사들의 스케줄관리-정부계약및
vendor 관리-좋은 인성과 성실함
-100% Medical/Dental/ Vision/Life
insurance-Starting \$60,000
이력서: admin@visitlod.com

의료품 관련업체 세일즈 사무직, 스폰서 가능
703-626-3489 / Vp@ytsglobal.com

JTBC-중앙일보 워싱턴 총국에서 '행정·코
디자'를 채용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근무조건: 풀타임
-근무내용: 워싱턴 총국 행정, 취재코디 및 기타
-지원자격: 신입 및 경력
미국 취업에 결격사유 없는 분
-처우: 보수는 최종 면접 후 결정
-지원서류: 이력서(한글 또는 영문)
-접수처: kim.hyounggu@joongang.co.kr
thkang@joongang.co.kr
phil9@jtbc.co.kr

버지니아 한의과대학교 부속 한방병원
마사지사 구합니다.
- 타이슨스 코너 5분거리
-풀타임/파트타임 가능
▶ 571-243-4251

센터빌,첼트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rehab16@gmail.com
▶ 703-865-6455

나투라치과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첼트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여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슨톤/ 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 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풀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 703-256-3005/703-830-0993

워싱턴 데이케어에서 일하실분 구함.
- 데이케어 직원 / 주방보조 / 간병사(남,여)
703-850-1100/703-963-1234

닥터오피스 리셉셔니스트 구합니다.
풀/파트타임, 영어/한국어 가능 경력자 우대
P: 703-965-3103
email: admhappy.hr@gmail.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모집분야: 행정직, 간호사(RN, LPN),
Case Coordinator, Day Care Driver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 가능,
자격증 소지자
-근무혜택: 건강보험·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지원 및 문의: HR 담당
▶ 703-657-0944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식품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경력자 우대합니다.
연락처 703-712-7089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력자 우대
매니저: 박성태 부점장
▶ 703-573-6300

Global Food VA 매장 그로서리 매니저
info@theglobalfood.com
▶ 703-897-61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시어, 풀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 sijang.sterling@gmail.com

정보 인터넷서술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 우드브릿지 지구촌마켓 한식코너
파트타임 캐시어 구함(월, 수요일)
410-961-7376

한식 일식당 sushi chef 구합니다
플로리다(마이애미) 지역 속소 원비
561-525-6544

베이글샵에서 일하실 분
파/풀타임(주말포함), 알렉산드리아 스프링
필드 몰에서 5분거리, 문자요망
703-371-1263 / 703-899-5098

알링턴의 Gute Leute 커피샵에서 커피에
대한 열정을 가진 바리스타를 모집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 싶은 분들도 환영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주세요.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알링턴 gute Leute 커피샵에서 바리스타
구합니다. 바리스타가 되고싶은 분도 환영
합니다. guteleute.usa@gmail.com
703-989-9828 (Text Only)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풀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현존 H-마트 안 민가네 식당 캐셔 구함
703-638-8878

미국음식 하시는 분 구합니다.
경력자 구함. (Woodbridge, VA)
월 \$6500+Tip(전화+text 부탁드립니다)
571-365-8303

▶▶ 92 치킨과 함께 창업하실분을
찾습니다! 같이 성공하는 길을 갑시다.

703-901-1004
▶▶ 알렉산드리아 MATSUI 일식당에
서 풀타임 스시맨 구합니다!
703-888-6627 (MR. 노)

▶▶ Honest Grill에서 파트타임
Host/Hostess 구합니다. 영어 필수.
703-543-2320

▶▶ 텍사스도넛센터빌베이커보조구함(아근)
영주권 스폰서 가능
703-462-4349

제빵 기술자 구합니다. 리치몬드 지역
919-225 4703/jaybae67@gmail.com

이미용

후레드릭스버그 버지니아 이발소에서
금, 토요일 일하실분 구합니다.
703-907-9541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첼트리에 위치한 미용실에서 부스렌트,
스킨케어룸 원하시는 분 구함.
자세한 사항은 문자, 메세지 다 가능
571-215-6767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셔니스트
구함(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킹 하실
분/파/풀타임(문자요망)
703 608 5183

▶▶ 세탁소공장에서 카운터, 배킹, 프레스,
빨래/파트타임 또는 풀타임 /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픽업 스토어에서 필요물품가게 크로즈로
판매 (컴퓨터, 얼터레이션 장비등 일체)
571-224-7777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풀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 지역 세탁소 픽업소통에서 파
트타임하실분. 연락처.
703-300-4959

세탁소 수선하실 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바느질 하실분 구함. 알렉산드리아 지역
703-328-3064

픽업 풀타임 카운터 구함. 우드브릿지 지역
571-455-3609

자동차/정비/바디샵

2006 Toyota Sienna
20만6천마일, 703-825-0852(문자)

포드 강통벤 냉장됨, 18만, 12년,
굿 컨디션. \$8,500.
240-796-0093

▶▶ 자동차 정비 매케닉 구함.
Alexandria, VA (문자요망)
703-887-5355
첼트리 자동차정비소에서 청싹히 일하실분
모집합니다. 메케닉,준메케닉,헬퍼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베네핏!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플러밍/냉난방

L&B Universal, Inc. (냉·난방/덕트
클린)헬퍼/테크니션 구합니다
▶ 703-678-1749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니저 (VA)
▶ 301-537-3800

No.1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 (센터빌)
▶ 571-591-4455

맥클린한국학교 교사 모집
▶ 571-235-8997, 703-505-5760

COLUMBIA COLLEGE 교직원 초빙
초빙 부서: 미용학과 코디네이터 / 강사
자격: 라이선스 보유 J-1 (교환교수, 인턴,
H-1B Transfer 가능
▶ 이력서 제출: raphaell@ccdc.edu
www.ccdc.edu

기타/구인/청소

▶▶ VA 스프링필드/페어팩스 지역.
밤청소 하실분
703 980 1917

골프동아리 조구진품 그림. 한국가면 고가
판매가능, 일본물건도 있음.
240-796-0093

버크 태권도 사범 구합니다 풀타임 \$50,000
tony@incouragemartialarts.com
571-243-7027 (문자요망)

홀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력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hco.com
▶ 571-549-6789

홀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가능합니다.
571-422-7189

페어팩스 노리학교에서 아이들을 사랑하
는 선생님을 구합니다. 이중언어, 교육자
전공자 & 경력있는 분을 구합니다. (풀/파
타임) norischoolkids@gmail.com
703-881-8349

집안일 도움주시고 운전 가능하신분 구합니
다. 월-금, 오후 3PM - 7PM
센터빌 롯데 부근입니다.
703 300 1048

알렉산드리아 치맥치킨 홀맡아서 해주실분

(703) 473 6022.

각 종류의 영어서류 신청과 등록 및 접수와
해석하면서 도와드려요. 연락주세요.
703-537-6756 (씨니 한)

파타임 구함. 이중언어 되시는 분
은퇴하신 남녀노소 환영.
703-424-8596

필그림유치원 교사모집
토틀러반 풀타임 / 오후 파트타임
571-212-9020

몸이 불편하신 시니어 분들 모십니다.
-최적의 위치·시설-최고의 식사와 돌봄
703-980-9890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력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모두 가능하신분
240-903-0777

싱글/타운하우스렌트

▶▶ 싱글홈 지하 렌트 워아웃 \$2100
방2, 화장실2, 풀키친, 단독샤워, 와쉬어,
66번가까운 페어팩스, 지하 출입문 별도
▶ 703-489-6926

▶ 센터빌 타운하우스 지하 \$1,100
▶ 페어팩스 싱글홈 2층방.
조지메이슨 부근 여학생 환영. \$1000
(싱글/타운하우스 렌트)
▶ 페어팩스 싱글홈 렌트 \$3,500
▶ 703-231-5572

페어팩스 콘도 \$1,600
큰방1, Den(Dining Room), End Unit,
집전체 새 나무마루, 새 화장실, Washer &
Dryer 집안에 있습니다. 넓은 남향 Bacony,
Costco 가까운 동네. 즉시 입주 가능
▶ 703-477-3114

114 Birch St /B-6, Falls Church
서쪽지하철 근방. (교통/학군 좋음)
방2, 화1, 세탁기, 새 부엌, 렌트 or 매매
703-336-3283

게인스빌 2019년에 지어진
햇빛 잘드는 엔드유닛 모던 타운홈
방 3개, 화 4개, 2가 가라지. \$2,850
703-762-6759

센터빌 타운홈(차고 두개 짜리) 사고저하는
분 연락주세요.
연락전화: 571-277-7758

1. 페어팩스 타운홈, 방3, 화3.5,
좋은 로케이션, 잘 관리된 집 \$3,700
2. 사우스라이딩 타운홈, 방3, 화2.5,
전체 새 페인트와 바닥 등 Renovation,
Freedom High 학군 \$3,300
571-567-5797

콘도 렌트

▶▶ 애난데일 콘도 방2 화장실 2.
밝고 넓은 리빙룸. 큰방2. 나무마루.
엘리베이터. \$1,900(물값과 가스비 포함되
어있슴). H-Mart 가깝음. 교통편리.
703-477-3114.

▶ 애난데일 H마트 옆, 방1, 가구완비,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리커 | 식당 | 카워시 | DC 건물 | 호텔

주5일 DELI
\$68,000

급매

렌트 \$3500 CAM포함.

주매상 \$5천

MD, PG카운티,
MGM에서 10분거리

703-395-3123

CoSTAR GROUP POWER BROKER

정크 빨리빨리

이거
어떻게
버리자?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각종 밀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정크 빨리빨리

571-723-0446

열린 마음으로 시니어분들 돌봐 드립니다

◆ 주인이 직접 돌봐 드립니다.
◆ 1에이커 넘는 깨끗하고 넓은 정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자녀들의 휴가, 출장으로 인한 단기간 돌봄도 가능합니다.
◆ 노바대학과 벨트웨이 중간지점(예천 2분거리)입니다.
◆ 1인1실

MD나 타주에서 오시는 분 상담해 드립니다!

“양로원에 들어갈 예정이신 분들과 나오신 분들께
모든 것을 한국식(음식)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세요!

문의: 571-278-8811 / 703-999-3557

중앙생활안내광고 Classified

중앙일보 2024년 10월 8일 화요일

구인/구직광고와개인렌트유료광고내용보내실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종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1

남여 직장인/유포/\$800
703-350-1986

센터빌 콘도. 방2, 화2, 2층, Loft, Top Floor, 탁트인부엌, 넓은 리빙룸, H-Mart, Lotte Mart 가까움, 전용주차장 2대, \$2,200
▶703-477-3114

애난데일 콘도. 방1, 화1, 새 나무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새 페인트, New Light Fixture, 넓은 발코니, 밝은 리빙룸, 계단없는 1층 위치. \$1,500(Water, Gas, Trash removal 포함됨)
▶703-477-3114

방렌트

▶▶노바조지메이슨 5분, 웃슨하이 15분 도보 거리/리모델링/새집같은 단독주택/방1, 지하웍아웃/화장, 욕실, 거실, 부엌, 단신남자환영/10/27일 입주가능
703-425-9075

설악가든근처 싱글홈 방1. 화 1. 냉장고, 간단가구 인터넷 출입문별도 금연자 즉시입주
571-243-6295

아난데일 한강뷰 방1/화1 즉시입주가능
703-395-4380

홀디포워 방렌트 주차장 넉넉, 출입문 별도
571-237-3411

▶▶타운하우스 방1/욕실/유포 센터빌로데근처
571-970-8048

▶▶아난데일 아파트/한강뷰/여자분 원함/큰방+Full Bath+간단취사
571-217-7155

▶▶아난데일 H마트 옆 방1/여자분 환영
703-505-5698

▶▶방 세놓음 맥클린 싱글하우스 아래층 방 3개 전체 리모델링했음 직장인이나 학생구함 교통이 아주 좋음 워싱턴 실버라인 걸어서 7분에서 8분거리 타이슨코너 근처
703-307-2473

▶▶교통 편리한 아난데일 단독주택 넓은 지하방 렌트.
703-559-5607

센터빌 스톤로드 선상-타운홈 안방 + Full Bath 금연자/단기 렌트 가능
929-424-2221

▶▶센터빌 타운하우스 2층 작은 방 여학생 환영. 유포 \$800
▶703-489-6926

▶▶센터빌 방/욕실/화장실 1 세놓음 문자 또는 전화주세요!
703-470-5655

▶▶Annandale 방 렌트: townhouse 밝고조용한 뒷뜰방 or walkout basement with a private bathroom, 마루, 유포함, 교통편리함 여자분 원함. 문자보내주세요.
571-345-8879

▶▶아난데일 노바 3분거리. 조지메이슨 대학 5분거리, 반지하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가능.
703-598-6087

▶▶1. 아난데일 한강시당위 싱글홈 방 렌트 돌침대/가구/화장실/ 즉시 입주가능
703-395-4380

▶▶첼트리 타운하우스 반지하 웍아웃 인터넷, 가구, 가전, 주방일체 포함 \$900 즉시 입주 가능 문자요망
571-429-2222

▶▶열린문 교회 근처 싱글하우스 방 세놓음 남자분 환영
703-344-6273

▶▶조지메이슨 노바 5분거리 반지하 \$900/부엌/화장실/출입문 별도/마루바닥/유틸리티포함/문자요망
703-598-6087

Fairfax VA 비엔나 전철역 근처 66도로 495도로 2분거리 직장인 환영
703-419-0337

▶▶싱글홈 지하렌트 조지메이슨 근처

웍아웃, 방2, 거실, 화장실, 풀키친, 워셔드라이어
703-898-3838
Bürkett Mart 10분거리 2층 타운홈 취사, 가구 즉시입주 가능 방 1 \$600 방 2 \$1000 여자분 한함/문자바람
703-678-7833

▶▶아난데일 예촌근처 반지하 전체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9-6275

▶▶아난데일 예촌 앞 출입문 별도 방1/ 화장실/샤워/욕실 유포, 파킹 즉시입주가능 문자요망
703-622-2033

애난데일 지역 싱글홈, 방1개 렌트
▶703-470-5238

단독주택 출입문 별도. 지하방2 부엌 거실 욕실등(문자요망)
202-985-9191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Room \$1,600
1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Message 문자주세요)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콘도렌트 \$1,900 Springfield 아난데일 10분 거리. 방 2, 화장실 1, 세탁기, 건조기 나무 마루, 깨끗한 화장실, 넓은 리빙룸, 큰 발코니 파킹 3개 충분한 리모델링하여 밝고 환한집.
▶703-477-3114

1. Coming Soon 애난데일 싱글홈 \$899,900 완전 업그레이드하고 리노베이션 한 단독 주택, 방4, 화4, 편리한 램블러스타일
2. 스프링필드 \$549,900 타운하우스, 방4, 화2½, 1,612sq.ft., 교통편리, Walkout Basement, Fenced Backyard, Braddock Rd와 Backlick Rd 만나는 동네
▶703-477-3114

렌트 수입 좋은 콘도 5채 매매 - PG 카운티에 위치 - 경비 제외한 순렌트 수입 \$4,000/m - 매매가 \$515,000(Cash Only) Serious Inquiry Only
▶703-244-3453 *Agent 환영

1. 근교 (I-66 Exit 47) 주택 추천 교통 및 생활여건 좋아진 Manassas, 병원, 사당, 한국 그로서리, 식당 등 근린 생활 기반이 잘 조성되어 있는 지역
2. 싱글 \$520,000-590,000 방 3, 화 2.5, 0.3 에이커 대지 단층집, 워크아웃 베이스먼트
3. 타운하우스 \$440,000 방 3, 화 2.5, 1 car 거리지
4. 콘도 Main level \$300,000 방 3, 화 2, 콘도 Fee \$260/월
▶703-483-0505

스프링필드 공원 옆 좋은 위치 싱글홈 위층 방 3개, 화 1개, 부엌, 리빙룸, 다이닝 / 아래층 방 2개, 사무실, 화 2개, 현관 리빙룸 / (세탁기, 히터, AC)
703-336-3283(자세한 사항 문의)

부동산/상업용 매매

▶▶앤지 부동산 파고 사고자 하시는분 이익 창출 위해 함께 고심해 드립니다
571-550-7658

▶▶리커 | 식당 | 카워킹 | DC 건물 | 호텔 현재 리타이어를 준비하시는 사장님들! 비즈니스 매매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I. 사업체 매매 상황을 잘 Evaluation 하여 매매 가격을 산정해야 합니다.
II. 정확한 매물 상황과 매매 조건들이 flexible 해야 합니다
III. 커머셜 / 비즈니스 매매 부동산 전문가를 고용해야 합니다
20년 경력의 남보다 2배 더 뛰어난 케빈 신과 은퇴를 설계하세요!
703-395-3123

▶▶Seafood 매매 Woodbridge VA \$165,000. Open: Mon-Sat (6일 근무) 자기사업에 관심있는 분 연락주세요!

703-967-3963

이준식 부동산
1. seafood carry out
2. pickup store(bowie) \$30,000.
3. single house rent (Catonsville) \$3,200. 방4 화3, 1/2
▶703-768-1240

1. 미용실·바버 \$70,000 Manassas Sudley Road 사당룸, 1,500 스퀘어, 부스 10+3, 저렴한 렌트비
2. B2 상업용 용지 \$2M 2.4 에이커, 인근 800세대 신규 주택지 개발 중인 진입로 독립적 위치, 상가 개발 환영
▶703-483-0505

▶▶성업중인 오토 리페어 (VA) 연매상-\$850,000. 포텐셜 좋음 매매-\$38만(실 바이어 Only) 571-242-3736

기타

▶▶치과 임플란트: \$1,000 임플란트 크라운, 별도: \$750 다양한 종류, 형태의 임플란트 전문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703-569-8000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예상문제/한국·타주면허/Real ID 신청/차량 구입·등록/기타 교통국 업무
▶571-294-0057 (Jim Dong)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 요금로 모십니다
▶240-796-0093

버크레이크에서 멀세레이크까지 오솔길 6마일(2시간) 걷기
· 장소: 버크레이크 쉼터 / 시간: 일 아침 9시 - 숲속길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상 환영 - 포시즌 워킹 클럽
▶703-939-5223

ZOOM-ART - Pen & Water Color - 누구나(성인, 시니어) / 주 1회 90분 수업 - 기초반 / 중급반 / 고급반
▶문의: 703-678-6639

컴퓨터 업그레이드, 고쳐드립니다. 데스크탑, 랩탑, Mac 컴퓨터 데이터 백업이나 수리 새제품, 중고제품 판매
703-624-2295

통역 서비스 친절하도 도와드립니다. 관공서 서류 대행, 심부름 대행, 퍼미트 대행, 이민국 인터뷰, 병원, 카운터, DMV, 등... 차 없으신분 라이드 가능
703-939-2737

중 / 고 수학과외 Algebra, Geometry, Calculus, SAT 등 intensive learning
703-946-4969 / inyeolchoi@hotmail.com

중고품/기타매매

▶▶렉서스 SUV RX 350, 12만 마일 급매 \$7,000. 상태 최고!
240-796-0093

무빙세일 역 이민 가구 및 생활용품을 정리. 냉동고, 컴퓨터, 옷장, 히터, 세탁기와...
703-203-5177(3시 이후 전화요망)

건축/페인트/마루

▶▶구인-리모델링 건축회사에서 같이 일하실 기술자, 헬퍼 직원들 구합니다.
703-499-4494

▶▶리모델링 부엌, 화장실, 에디션, 텍, 팬스, 지붕 제너럴 컨트랙터 MR. 송
703-434-2810

Mr. Lee 페인트 703-508-7214

TOP 건축 콜롬비아 MD - 집수리전문 / 각종 집수리 일체 / 지하실, 주방, 욕실 / 전기설비, 타일 마루 / 루핑, 카펫, 페인트 /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문의 전화: 703-910-0400

Park's Floor 경력 20년 이상. 우드, 카펫, 장판 LVT, VCT, Laminate, 무료견적
▶703-395-0050

레드문 페인트/하우스 페인팅(In, Out), 텍메인 터너스와 클리닝, 샌딩, 파워워시, 핸드맨서비스
▶문의: Mr. 문 703-965-3011

TK 30년 경력 종합건축 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건축, 시공 및 건물 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상가 및 빌딩 신축, 리모델링,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자체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 가입
▶703-504-6116

손사이드 / 메케닉 크루 703-955-2827 / 540-680-1571

와니 건축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텍, 그외도공사, 추정부 라이선스 보유, 책임보험가입, 카톡 아이디: wani6811
▶571-331-6811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 업체 30년 경력과 신용 / 목수, 각종 집수리
▶240-687-5155

보험

조은혜 종합보험/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 /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703-591-0009 / 703-537-9899

용자

제인 최 용자 25년 경력 매입/재용자/특수
▶703-244-3453

마이클 장 용자 주택/상업용자/재정상담
▶410-370-4229

페어웨이 에셋 워싱턴 한인 전문 용자회사 - 낮은 이자 / Cash out / 명의변경 / Mortgage Insurance Remove
▶703-204-0022 / 703-727-9730

소득/가스검사

JD STAR 소득 (Mr. 은) Rats/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라돈가스 검사 폐암을 일으키는 라돈 가스는 집에서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입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냉동 & 히팅

L&B UNIVERSAL 히팅, 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제일 대규모의 냉난방 회사, 덕트 클리닝
▶703-678-1749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히터, 히팅펌프, Carrier, Trane 달러, 덕트, 드라이어벤트크린, 가정용/상업용
▶문의: 703-380-2282

JD 냉난방 (Mr. 은)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크인 / ELECTRIC CONTROLS SPECIALIST/냉난방 TEACHER
▶410-370-8057

아라냉동 에어컨, 히팅, 냉동, 보일러, 세탁장비, 케리아웃 장비수리, Ice Maker, 플러밍, 지하수펌프, 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443-850-3703 / 410-979-4242

쥘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443-280-1873

정스 냉동(가정용/상업용) (Mr. Chung)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플러밍, 워킹쿨러, 아이스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301-572-2786/403-953-0801

보석

▶▶JJ VA 시계, 보석 수리 기술 배우면서 일하실분/영어 필수 우대
703-691-1993

골든벨라보석 (센터빌, VA) K24, K18, K14, K10, 다이아몬드 고가매입
▶703-988-0033 / 301-792-5615

카펫, 에어덕트 클리닝

토달카펫 25년 전통과 신용 최저가격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상업용 한번시공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703-909-0988

베스트 카펫,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최상의 트러파워 스팀삼부,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제거, 브러쉬, 파워풀 청소. 응급 수해구 및 타일 플로우 왁스

플러밍

SK 플러밍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온수, 히터 디쉬워셔, Disposals, 상하수도 수리교체
▶703-989-0103

제임스 플러밍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온수, 히터교체, GAS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집안밖 물새는 것
▶703-499-5984

이삿짐

Movers LLC (GOOD HAND) -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 쓰레기 / 폐기물 처리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 sales@moversdmv.com

MI 이사짐 (24/7) 빠른·책임·값이 싼·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mimovingllc@gmail.com

정크 8282 각종 딜리버리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각종 철거전문 가정/사업체에 안쓰시는 가구, 가전품 등 처리해드립니다.
▶571-723-0446

범양 해운 정확한 선택, 확실한 만족, 귀국 이삿짐 포장이사, 타주 이사(차량운송) 무료견적
▶703-298-1919

HD 현대 통운 미동부 최대 운송회사, 귀국, 해외, 타주, 시내 이사, 고품격 포장, 자체창고 보관 서비스 한국 화물 배송 서비스
▶703-339-8844

고려 통운 세계 어느 곳, 어디든지 가능 ICC 인가업체, 100% 자체보험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한국에서 지불가능
▶703-550-2424

조양 운송 -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귀국이사, 포장이사, 타주 시내 이사, 자체창고 보관
▶703-550-5550

핸디맨/리모델링/전기

핸디맨(애난데일/페어팩스/센터빌)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드립니다. 페인트/플로링/전등/햇탱크 등 교환·수리
▶571-567-5165

Repair, Remodeling VA Class, Insured, Since 1999 -
▶571-239-8525

BBG 블라인드 버지니아 20여년 이상의 전통과 기술 한국산 블라인드, 친환경 원단, 하이퀄리티, 무료견적,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
▶571-229-4633

H.P.C 집수리 센터 집안밖의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집안-리페어, 핸드맨서비스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571-594-4080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703-340-5858(VA)/443-980-5858(MD)

▶▶미국회사 Electric Co. 전기 기술자, 영어 소통 필수 973-997-5805 (엘렌)

JIP Electrician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가능.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 무료견적, 철저한 AS
▶703-929-9601

전기공사, 페인트 리모델링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24시간 출장가능,
▶703-582-7757

Nest Energy Service, LLC EV 전기자동차 가정용 충전기 설치 및 리베이트 도와드립니다. 전기마스터면허와 1M 보험 보유업체
▶703-855-3565

유리

JK유리 & Window/상점, 가정용 유리,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 Aluminum, Door 설치, MD/VA/DC 지역
▶703-346-5962

생활안내 줄광고 유료 게재요청 kdclass2018@gmai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보험

“메디케어” & “오바마케어” 신청접수!

59년생, C플랜, 약보험

신규가입 · 재가입

자동차 주택 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값은 고장이 기계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Carrier, Lennox 전문딜러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덕트 클리닝
최신장비로 서비스 전문을
확실히 비교해 드립니다.

에어덕트 속 피트 먼지와 세균
알라지와 질병의 시작
믿을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욱 깨끗이 청소해드립니다.

L&B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703-678-1749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703-504-6116 / Cell: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센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전문
-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 핸디맨, 플러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라돈 가스 검사/유리

이삿짐 / 재테크 / EV 충전기 설치

라돈 가스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라돈 가스는 폐암을 일으키는 두 번째 주요 원인으로, 눈에 보이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는 가스입니다. 집에서 많이 발견되는 문제의 **가스**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꼭 검사를 하셔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NRPP 면허소지 202-774-6554

범양해운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타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 ↔ 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 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KOREA(BUSAN)	USA(LOS ANGELES)	USA(SAN FRANCISCO)
02-2083-2083	051-469-4191	310-767-5699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 귀국 이사 전문
- ▶ 자체 창고 보관
- ▶ 타주, 시내 이사
-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 · 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 · VA · DC 지역, 신속시공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 100% 자체보험으로
- ◆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 703-550-2424 Fax. 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Movers LLC

Movers LLC
GOOD HAND

이사 / 배송 서비스 전문
(Professional all types of moving service)

쓰레기 / 폐기물 처리
(All types of junk removal)

571-982-9871(Korean) / 202-802-2858
sales@moversdmv.com

MD 업소 안내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를 받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몰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전기공사, 페인트

- ◆ 각종 전기, 카메라, DATA
- ◆ 24시간 출장가능
- ◆ 리모델링

703-582-7757

에어컨&히팅 / 핸디맨 / 리모델링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애난테일·페어팩스·센터빌 핸디맨

20년 노하우로 집에 관한 모든 작은 일도 시원하게 고쳐 드립니다!

페인트, 플러밍, 전등, 토일렛, 퍼셋, 핫탱크 등 교환 및 수리

T. 571-567-5165

토탈카펫

25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Chung's Refrigeration
정스냉동

가정용 상업용

에어콘, 히팅, 냉동, 냉장, 전기 프러밍, 워킹쿨러, 아이스 머신 덕트설치 & 크리너

한국 미국 경력30년

Mr.Chung
301-572-2786
703-953-0801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vac.com
703.380.2282

냉동·냉장고 사고팝니다

아라냉동 판매장 및 장비 수리 센터

에어콘·히팅·냉동·보일러·세탁장비 수리
 케리아웃 장비수리·Ice Maker·플러밍
 지하수 펌프·정수장치

연중무휴 무료점검

TEL. (443) 850-3703 / (410) 979-4242

MI 이사짐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쿨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410.917.1888 Lee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무역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32년 전통의 **베스트**

카펫 및 에어 덕트 크리닝

- 최상의 트러파워 카펫 스티밍 샴푸 (고온 300°F)
- 살균, 소독, 냄새 및 얼룩 제거
- 최상의 브러쉬 발크 에어덕트 크리닝
- 파워 폴청소 (택, 사이딩, 벽돌 및 마블플로어)
- 응급 수해복구 및 타일
- 플로어 왁스

서비스 지역 : VA, MD, DC
703.967.4155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 전기)
-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 Gas 공사, 히팅, 에어컨, 냉동
-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핸디맨 Since 1999

REPAIR
 REMODELING
 VA Class A. Insured

571.239.8525

집수리,가게수리 LLC

핸드레일, 계단, 계단손잡이

작은일도 성의껏 일합니다.

703-340-5858 (VA)
443-980-5858 (MD)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프,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센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커팀 보험 보유
571-594-4080

JL 건축 주방 & 욕실 리모델링

예쁘고 실용적인 주방과 욕실을 디자인하여 만들어 드립니다.

703.910.0400

K&J PAINTING

실내외 페인트 전문업체
 30년 경험과 신용
 목수, 각종 집수리

Licensed and insured
240-687-5155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통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linds.com / bbgbllinds@gmail.com

PARK's Floor
 마루경력 20년/견적무료

- 우드, 카펫, 장판 (Hardwood/Carpet/Vinyl)
- LVT (Luxury Vinyl Tile)
- VCT (Vinyl Commercial Tile)
- 라미네이트 (Laminate)

703-395-0050

임업 벌칭 / 토지, 들판, 잔디, 울타리, 목초지 관리

ALLIANCE LAND MANAGEMENT
 FORESTRY MULCHING & LAND SERVICES

핸드폰 540-905-2849
 이메일 SALES@ALLIANCELANDMANAGEMENT.COM

전 후



임업 벌칭이란 무엇입니까?

임업 벌칭은 자란 나무, 덩굴, 초목을 토양에 최소한의 교란을 주면서 잘게 잘라 멀칭하는 특별한 기술입니다. 뿌리 덮개는 원치 않는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고 토양 침식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임업 벌칭

- 토지 개간
- 자란 들판 잔디 깎기
- 울타리 라인, 산책로 및 목초지

전 후



이용자 가능

군인, 응급 구조대원, 간호사, 교사에 대한 할인 요금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 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as I see it: 내가 본 바로는

David is talking to Roger at work ...

(데이비드가 직장에서 로저와 이야기를 나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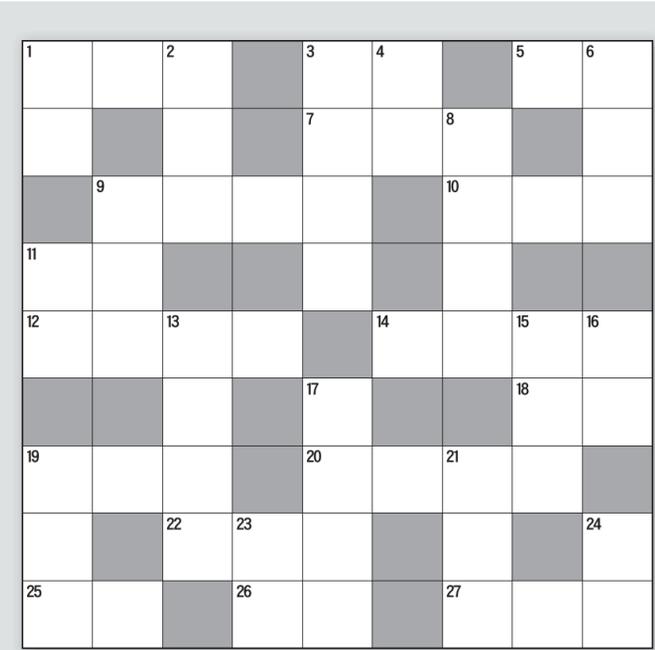
David: Nancy drives me crazy!
데이비드: 낸시 때문에 미치겠어!
Roger: What's the problem this time?
로저: 이번엔 또 뭐가 문제야?
David: She talks so much during our coffee breaks and I can't stand the clothes she wears.
데이비드: 커피 휴식 시간에 말이 너무 많고 입고 다니는 옷도 마음에 안들어.
Roger: You talk about her a lot. Do you realize that?

로저: 너 낸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 알아?
David: What do you mean?
데이비드: 무슨 뜻이야?
Roger: As I see it I think you like her.
로저: 내가 보니까 너 낸시를 좋아하는 것 같아.
David: What?! You can't be serious.
데이비드: 뭐라고?! 농담하는 거지.
Roger: Well you spend so much time talking about her.

로저: 그게 틀만 나면 낸시 이야기 하잖아.
David: Well you're wrong.
데이비드: 글썽 잘못 봤어.
Roger: I don't think so. 로저: 그렇지 않을 걸.
기억할만한 표현
▶ (someone or something) drives (one) crazy: (누구 때문에) 미치겠다.
"That loud music next door drives me crazy. I wish

they'd stop." (옆 집에서 음악을 크게 틀어 미치겠습니다. 음악을 꺾으면 좋으련만.)
▶ can't stand: 참을 수 없다. 싫다.
"I can't stand rude people. (전 무례한 사람들이 싫습니다.)
▶ spend time: 시간을 쓰다 보내다.
"I spent the weekend cleaning my house. It was so dirty." (집 청소하느라 주말을 보냈습니다. 집이 너무 지저분했거든요.)

낱말퀴즈



가로열쇠

(1)얼굴에 철관을 깔았다든 말. 염치가 없고 뻔뻔스러운 사람 (3)강이나 호수에 사는데, 몸무게는 2톤 정도. 입이 매우 크다 (5)낮 열두 시 (7)환각제로 쓰는 삼의 이삭이나 잎. 가까이 해서는 안 되죠 (9)베개를 높이 베면 오래 살지 못함 (10)부엌 아궁이 위에 흙과 돌을 쌓아서 솥을 걸어 놓은 곳 (11)야드파운드법에서, 길이의 단위. 1~는 3피트로, 91.44센티미터에 해당한다 (12)공중에 높이 걸려 있는 다리 (14)여러 번 되풀이하여. 재□□□ (18)가감승제는 더하기, -, 곱하기, 나누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죠 (19)통나무의 속을 파서 큰 바가지같이 만든 그릇 (20)여러 가지가 오밀조밀 어울려 예쁜 모양. 잔재미가 있고 즐거운 모양. 신선살림이 ~하니 재미있지? (22)정치적·경제적으로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국가로서의 주권을 상실한 나라 (25)그 때그 때 상황으로 미루어 알아내는 것. ~가 100단이다 (26)놀라지 말라 뜻으로 엄정한 것을 말할 때에 미리 내세우는 말. 전 세계 코로나 환자가 ~ 1억 명을 넘어서다 (27)때릴 때에 쓰는 가는 나뭇가지

세로열쇠

(1)쇠붙이를 곁에 붙여 지은 갑옷.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을 두른 듯 (2)벼락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높은 곳에 세우는 금속제의 막대기 (3)어떻게 다음해를 기다리나. 기다리기가 몹시 지루함 (4)임금과 그 가족들의 침후 뒤에 쓰이던 말 (6)사람이 겨우 들어가 살 정도로 작게 지은 막. 작고 초라한 집 (8)첫 번에 실패한 것이 세 번째에는 성공함. 꾸준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음. □□득□ (9)길게 얼어붙어 매달린 얼음 (11)상대편 투수가 던진 공을 방망이로 치고 1, 2, 3루를 돌아 본루로 돌아오면 1점을 얻는다 (13)보고 들은 것이 많고 아는 것이 풍부함. 그는 ~해서 모르는 게 없다. □문□□ (15)재의 맨 꼭대기. 험뎠거러며 간신히 ~에 올라선 할머니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16)나쁜 피로 남을 속임 (17)정신이 한곳에 온통 쏠려 스스로를 잊고 있는 경지. 무□□□ (19)굵고 탐스럽게 내리는 눈 (21)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어린이의 어머니나 누이들로 구성된 모임 (23)강이나 호수의 물처럼 소금기가 없는 물 (24)짐승이나 물고기, 별레 따위를 세는 단위

스도쿠

2	4				5			
9		5						
			9		7	2	8	
6		3						5
	1			6	8			
	9	2		7				
8	2			9		6		3
			5	3	2	8		9
3		9		4	6		2	



자료제공 = 올드독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토리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오는 7월 1일 부터 조정되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input type="checkbox"/> Check <input type="checkbox"/> Bill <input type="checkbox"/> Credit Card <input type="checkbox"/>
Card Info	카드 종류 <input type="checkbox"/> VISA <input type="checkbox"/> Master <input type="checkbox"/> Amex <input type="checkbox"/> Discovery <input type="checkbox"/>	카드 뒷면 3자리 EXP. DATE: / month year CVS: <input type="checkbox"/>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A **매매**

병원 리셉션 및 간호사
풀/파트타임
플러턴 지역
한국면허 인정
(714)389-7000
stemsmedical@gmail.com

구인

스시쉐프-풀타임
경력자 우대
(951)225-2212

사람을 찾습니다.
오랫동안 연력이 끊겨 소식을 알 수 없는 아들을 찾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많이 위독합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식 주사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이름 : 심 종철
외국 이름 : Antonio 심
나이 : 1975년생
연락처 : 작은 아버지 (213)905-3874 (818)454-8332
Yongsok45@gmail.com

가장 작은 광고로 가장 큰 만족을 얻을수 있는 광고 **중앙일보**

us.srotech.com **건식온돌 난방 진짜가 나타났다**
전통온돌의 우수성을 재현한 조립식 구들장입니다.

너무나 쉬운 설치 시공 영상 시청하세요~
us.srotech.com
지사 및 대리점 모집 문의 510-381-0301

법무사가 되세요

대면 수업 시작!!!
항상 고소독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자격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목회자와 사모님을 위한 반을 다시 시작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InterpacU.com
(213) 674 - 7000

개인 / 비지니스 / 융자전문

- ▶ GOOD크레딧, BAD 크레딧 상관없이 융자상담환영
- ▶ 비지니스론, SBA론, 머천트론 전문
- ▶ 개인융자, 카드융자 및 현금화 전문
- ▶ 집 모기지 페이먼트 월드신분
- ▶ 메이저은행에서 융자 거절된분 환영
- ▶ 다쓴크레딧카드 한도 증액 후 재융자 가능
- ▶ 사업체 운영 / 매매 / 폐업시 융자 가능
- ▶ 역이민 고려하시면 연락요망 (귀국플랜)
- ▶ 나쁜크레딧 리페어 빌드업 전문

중부컨설팅 (213)357-1010, (213)820-3912

잠자리를 갖기 25분 전에, 1캡슐 복용으로 1주일 지속효과 비아그라의 부작용이 전혀 없는 MADE IN USA 천연 비아그라, 즉효성 남성 발기제

발기부전, 전립선 비대증, 배뇨장애 고통받, 근본 원인 치료제. 비아그라 시알리스 효과 없는 남성 특효 보강

1-213-703-8809, papaaa.com

함께한 50년, 함께할 50년 **50**

www.koreadaily.com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o#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흡세인 가격 판매

- 30년 1파운드 \$750 → \$550
- 40년 1파운드 \$1,500 → \$950
- 50년 1파운드 \$2,350 → \$1,500
- 견산삼 40% ~ 50% 파격세일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 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818)518-0033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 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삽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췌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터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2024 야생 햇산삼을 소비자와 함께 공동 구매합니다.

야생 햇산삼 공동구매

지금까지 류마티스 관절염, 요통, 모듬 통증,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심마니 가격 450g 한/정/판/매

- 대 \$1,400 (450g)
- 특대 \$1,800 (450g)
- 중 \$1,200 (450g)

Nation Wide **내 광고가 전미주 동시게재??!!**

미주 한인사회 1등신문 중앙일보에 Nationwide 광고 게재시, LA, 뉴욕, 시카고, 애틀랜타, 워싱턴DC 5개 지사 동시에 광고가 게재됨으로 최고의 광고효과를 드립니다!

안내광고 문의: **(213)368-2525**

미국 전지역 안내광고
LOS ANGELES | 시카고 | 뉴욕 | 애틀랜타 | 워싱턴 DC

당뇨 환자와 다이어트에 **희소식!**

칼로리를 내리는 날씬한 **저당밥**

40% ~ 49% 탄수화물 DOWN

탄수화물은 낮추고 **내 몸을 건강하게**

당뇨와 다이어트에 좋은 저당밥을 SALE **banustory.com | 213.800.5749**

1세대 저당 밥솥

New 2세대 스테인리스 304 내솥 직접가열식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Little River Tnpk.

중양일보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